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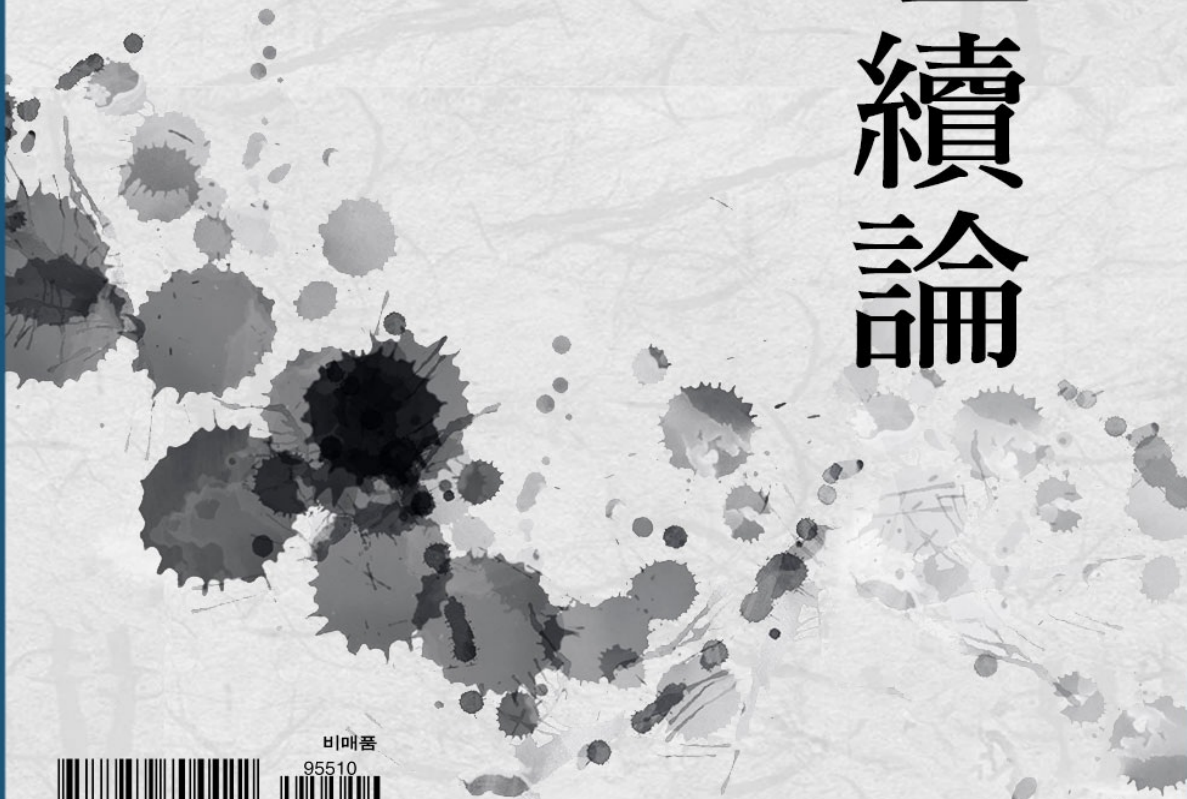
저자 陶華

국역 오준호

해제 오준호

傷寒明理續論

국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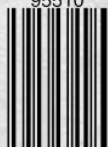


비매품

95510



9 788959 704422



ISBN 978-89-5970-442-2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상한명리속론 傷寒明理續論	1.1
명리속론서 明理續論序	1.1.1
상한삼음삼양맥증론 傷寒三陰三陽脈證論	1.1.2
음양허실과 약의 한온(寒溫)에 대한 변별 陰陽虛實用藥寒溫辯	1.1.3
육경용약격법 六經用藥格法	1.1.4
음양허실과 약의 한온(寒溫)에 대한 변별 陰陽虛盛用藥寒溫辯	1.1.5
삼음삼양의 맥증 三陰三陽脈證	1.1.6
한법, 하법, 온법의 정석 汗下溫正法	1.1.7
상풍에 한이 드러나거나 상한에 풍이 드러날 때의 맥과 증 傷風見寒傷寒見風脈證	1.1.8
삼양합병 三陽合病	1.1.9
태양양명병병 太陽陽明併病	1.1.10
봄의 온병(溫病)과 여름의 열병(熱病) 春溫變熱	1.1.11
치 瘧	1.1.12
풍온과 습온 風溫、濕溫	1.1.13
풍습과 중습 風濕、中濕	1.1.14
온독과 중갈 溫毒、中噎	1.1.15
발열 發熱	1.1.16

두통 頭痛	1.1.17
항강 項強	1.1.18
오풍 惡風	1.1.19
오한 惡寒	1.1.20
배오한 背惡寒	1.1.21
한열 寒熱	1.1.22
조열 潮熱	1.1.23
사학 似瘡	1.1.24
무한 無汗	1.1.25
자한 自汗	1.1.26
두한 頭汗	1.1.27
수족한 手足汗	1.1.28
도한 盜汗	1.1.29
번열 煩熱	1.1.30
번조 煩燥	1.1.31
오뇌 懊惱	1.1.32
몸의 통증 身痛	1.1.33
사지구급 四肢拘急	1.1.34
해수 咳嗽	1.1.35
천 喘	1.1.36
기역 氣逆	1.1.37
단기 短氣	1.1.38
구조인건 乾	1.1.39

갈渴	1.1.40
흉협만통 胸脇滿痛	1.1.41
결흉 結胸	1.1.42
비痞	1.1.43
복만 腹滿	1.1.44
복통 腹痛	1.1.45
소복만 小腹滿	1.1.46
구토 嘔吐	1.1.47
건구 乾嘔	1.1.48
해역과 얼 欬逆、噦	1.1.49
하리 下利	1.1.50
변농혈 便膿血	1.1.51
사역 四逆	1.1.52
궤역 厥逆	1.1.53
불대변 不大便	1.1.54
섬어 [정성] 譫語 [鄭聲附]	1.1.55
소변불리 [소변난] 小便不利 [小便難附]	1.1.56
소변자리 [소변삭, 유뇨] 小便自利 [小便數、遺溺附]	1.1.57
설상백태 [장결] 舌上白胎 [臟結附]	1.1.58
인통 咽痛	1.1.59
두헌 頭眩	1.1.60
비늑 鼻衄	1.1.61
토혈 吐血	1.1.62

심계 心悸	1.1.63
발황 發黃	1.1.64
발광 發狂	1.1.65
근척육손 筋惕肉瞤	1.1.66
잠을 많이 자는 경우 [栝亂] 多眠汗下 [附霍亂]	1.1.67
음양역, 음양교 陰陽易、陰陽交	1.1.68
불을 拂鬱	1.1.69
계종 癰瘡	1.1.70
전을 戰慄	1.1.71
시행과 양감 時行、兩感	1.1.72
부득면 不得眠	1.1.73
발반 發斑	1.1.74
동기 動氣	1.1.75
회궤과 호혹 蛔厥、狐惑	1.1.76
백합병 百合病	1.1.77
불인 不仁	1.1.78
곽란 霍亂	1.1.79
병이 나은 뒤의 정신이 흐릿한 경우 瘥後昏沈	1.1.80
상한과 유사한 4가지 병증. 《상한지장도(傷寒指掌圖)》에 나온다. 傷寒四證類玄。出指掌圖	1.1.81
담증 痰證	1.1.81.1
식상 傷食	1.1.81.2
허번 虛煩	1.1.81.3
각기 脚氣	1.1.81.4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항	2.3



傷寒明理續論 상한명리속론

餘杭 節菴 陶華述

| 여항(餘杭)의 절암(節菴) 도화(陶華) 씀

新安 師古 吳勉學校

| 신안(新安)의 사고(師古) 오면학(吳勉學) 교정



明理續論序 명리속론서

餘杭節菴陶華述

여항(餘杭)의 절암(節菴) 도화(陶華) 씀

昔朱肱奉議著《傷寒百問》，書成經進，授醫博士，其書付監刊行。道遇豫章名醫宋道方因就質之，宋爲指駁數十條，肱罔然自失，由是書監不刊，事見《續易簡方》。雙鍾李知先又爲《歌括八韻》，二書吾鄉先輩例以爲活人之書。按《魏志·佗傳》云出書一卷，此書可以活人，則活人之名所由始，而仲景《傷寒論》是也。朱、李二公雖知有仲景之書，不能臻其閫奧，未足以充活人之名。

예전에, 봉의랑(奉議郎)을 지낸 주굉(朱肱)이 《상한백문(傷寒百問)》을 쓰고 완성된 책을 진상하자 조정에서 의박사(醫博士)를 제수하고, 그의 책을 국자감(國子監)에 보내 간행하게 하였다. 길에서 우연히 예장(豫章)의 명의(名醫) 송도방(宋道方)을 만나 내용을 질정(質正)해 보았는데, 그가 수십 조문을 지적하며 반박하자 주굉은 망연자실하였고, 이로 인해 국자감에서 책이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속이간방(續易簡方)》에 보인다. 쌍중(雙鍾) 이지선(李知先)이 다시 《가팔팔운(歌括八韻)》을 만들었는데, 내 고향에서 선배들은 이 2가지 책을 모두 사람을 살리는 책(活人)으로 여겨왔다. 《위지(魏志)·타전(佗傳)》에서 화타(華佗)가 책 1권의 책을 꺼내어 이 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活人)고 하였다는 기록¹을 보건대, 이것이 활인(活人)이라는 이름의 유래로 장중경(張仲景)의 《상한론(傷寒論)》이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굉과 이지선 두 분은 비록 중경(仲景)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묘한 이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니 《상한백문》과 《가팔팔운》은 '활인(活人)'이라는 이름에 충분하지 못하다.

正統改元，余遊京師，遇臨江劉志善先生，授書一卷，指摘《百問》亦數十條。携以南歸，呈之松江趙景元先生。奉議之書，固未盡善，而劉公所駁，似爲太察²，前人³無議爲也。且仲景之書，流傳既久，魚魯實多，微辭奧旨之互見，殘簡斷篇之後先，朱公⁴既未知其文，又不知其證候。然自漢魏以來，高人逸士所著，不傳于今者，何可勝數。因出示諸書，曰郭白雲《傷寒補亡》、龐安常《卒病論⁵》、韓祗和《微旨》、楊仁齋《傷寒類書》、王寔《證治》，常器之、楊大授⁶，凡此數種，皆有功于仲景，而東南醫流所未見也。景元亦自編一書，曰《傷寒類例》，久未之成，不以示人。

정통(正統) 원년(1436)에 내가 북경(北京)을 유람하다 임강(臨江) 사람 유지선(劉志善) 선생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었는데, 《상한백문(傷寒百問)》을 지적한 것이 또한 수십 조였다. 이것을 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와 송강(松江) 조경원(趙景元) 선생에게 드렸다. 그러자 주봉의(朱奉議)⁷의 책도 최선은 아니고 유지선의 지적도 빠진 듯하지만 두 책 모두 후배들이 알가알부할 수준이 아니더라고 평하였다. 또 중경의 책이 유전된 지 오래되어 잘못 알려진 것이 매우 많고, 모호한 말과 심오한 이치가 뒤섞여 나타나며, 죽간(竹簡)이 훼손되고 편(篇)이 끊겨 선후가 뒤섞였으니, 주공조차 그의 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증후도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한(漢)나라와 위(魏)나라 이후로 비범한 인물들의 저술들 가운데 지금에 전해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는가. 이러한 책을 예로 들면, 백운선생(白雲先生) 곽옹(郭雍)의 《상한보망론(傷寒補亡論)》、방안상(龐安常)의 《상한총병론(傷寒總病論)》、한지화(韓祗和)의 《상한미지론(傷寒微旨論)》、인재(仁齋) 양사영(楊士瀛)의 《상한유서(傷寒類書)》、왕식(王寔)의 《상한증치(傷寒證治)》、상기지(常器之)⁸와 양대수(楊大受)⁹의 글이 있다. 이 여러 책은 중경의 뜻을 논하였으나 동쪽과 남쪽의 의원들은 보지 못하였다. 조경원(趙景元) 선생 역시 책 하나를 지어 《상한유예(傷寒類例)》라고 이름 붙였으나 오래도록 완성되지 못하여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다.

庚寅¹⁰冬, 予病足, 不出戶庭數月, 因觀成無己《明理論》, 止五十證辨究詳明, 惜其未備。於是乃集所見所聞, 比類附例, 斟酌而損益之, 遂成一書, 名曰《明理續論》, 姑以自備遺亡, 非敢傳諸人也。雖朱公《百問》積平生之勤, 尚不免後人之紛紜言之, 予實何人, 乃以數月而有所成。蓋賴古人之成訓, 有以啓發之, 初學醫之士, 或有所得焉。當有知予心者, 乃記其所由於卷首云。

경신년 겨울 내가 다리가 아파 수개월 동안 문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이때 성무기(成無己)의 《명리론(明理論)》을 보았는데, 단지 50개의 증상에 대해서만 변별하고 궁구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미비한 점이 애석하였다. 이에 보고 들은 것들을 모아 비슷한 부류끼리 나열하고 이를 정리하며 덜어내거나 덧붙여 마침내 하나의 책을 만들고 《명리속론(明理續論)》이라고 이름하였다. 임시로 빠진 내용을 손수 추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할 내용은 아니다. 주공이 평생의 노력을 쌓아 지은 《상한백문(傷寒百問)》으로도 오히려 후인들의 분분한 논쟁거리를 면하지 못하였는데 실로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수개월만에 이론 바가 있겠는가. 옛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에 힘입어 새롭게 밝힐 수 있었으니 처음 의학을 배우는 이는 더러 배우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이가 분명 있을 것이니 책 앞에 그 유래를 적어두는 바이다.

1. "화타가 죽음에 이르러 책을 꺼내어 주며 옥리에게 '이 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佗臨死出了恭書，與獄吏曰，此可以活人〕"

※《위지(魏志)》↩

2. 太察：☞大闕 ※이존제각본 ↩

3. 前人：☞後人 ※이존제각본 ↩

4. 朱公：☞諸公 ※이존제각본 ↩

5. 卒病論：☞總病論 ※문맥상 ↩

6. 楊大授 : 楊大受 ※문맥상 ↩

7. 주봉의(朱奉議) : 봉의랑(奉議郎)을 지낸 주굉(朱肱)의 별칭 ↩

8. 상기지(常器之) : 송대(宋代) 의가(醫家)이다. 상한에 정통했으나 저작은 남아있지 않다. 그의 의학 사상은 《상한보망론(傷寒補亡論)》에 보인다. ↩

9. 양대수(楊大受) :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의방유취(醫方類聚)》·《기효양방(奇效良方)》 등에 그의 이름이 보인다. ↩

10. 庚寅 : 경인년은 1470년이나 1410년이다. 전자는 저자 사후로 불가능하다. 후자는 저자의 북경 유람 이전인데, 글의 순서로 보아 자연스럽지 않다. '庚寅'을 '庚申'이나 '丙寅'의 오자로 본다면, 전자는 1440년, 후자는 1446년이 된다.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두고 번역하였다. ↩

傷寒三陰三陽脈證論 상한삼음삼양맥증론

傷寒汗下溫之法，最不可輕據脈¹以驗證，問證而對脈。太陽者，陽證之表也。陽明者，陽證之裏也。少陽者，三陽三陰之間。太陰、少陰、厥陰，又居于裏，總謂之陰證也。發于外，則太陽爲之首。發于內，則少陰爲之先。太陽惡寒而少陰亦惡寒，但太陽之脈多浮，少陰之脈沈細，與其他證狀亦自異也。

상한의 한법、하법、온법은 절대로 가벼이 맥에 얽매어 증상을 확인하여서는 안되며 증상을 물은 뒤에 맥상과 견주어 보아야 한다. 태양은 삼양증에서 겉〔表〕이다. 양명은 삼양증에서 속〔裏〕이다. 소양은 삼음삼양(三陽三陰)의 가운데이다. 태음、소음、厥음은 또한 속〔裏〕에 있으니 모두 음증이라고 한다. 병이 밖〔外〕에서 생겨나면 태양이 첫번째가 되고, 안〔內〕에서 생겨나면 소음이 우선하게 된다. 태양에도 오한의 증상이 있고 소음 역시 오한이 있다. 그러나 태양의 맥은 대체로 부(浮)하고 소음의 맥은 침세(沈細)하며, 다른 증상도 서로 다르다.

發熱惡寒，身體疼痛，或自汗，或無汗，是爲表證，可汗。不惡寒反惡熱，口燥咽乾，壯熱腹滿，小便如常而大便秘結，是爲裏證，可下。厥冷囊拳²，自利煩躁，而無身熱頭疼，是爲陰證，可溫。浮、洪、緊、數，此表病之脈。沈、實、滑、數，此裏病之脈。微、細、緩、若³，此陰病之脈。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몸이 아프고, 땀이 나기도 하고 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표증(表證)이니 한법(汗法)을 써야 한다. 오한은 없으나 오열이 있고, 입과 목이 마르며, 열이 심하고 배가 그득하며, 소변은 평소와 같으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이증(裏證)이니 하법(下法)을 써야 한다. 손발이 차고 몸을 웅크리며 입을 다물고 설사를 하며 번조(煩躁)가 있지만, 몸에서 열이 나지 않고 머리도 아프지 않은 것은 음증이니 온법(溫法)을 써야 한다. 부(浮)、홍(洪)、긴

(緊)·삭(數)한 맥은 표병(表病)의 맥이다. 침(沈)·실(實)·활(滑)·삭(數)한 맥은 이병(裏病)의 맥이다. 미(微)·세(細)·완(緩)·약(弱)한 맥은 음병(陰病)의 맥이다.

在表者，邪傳於榮衛之間。在裏者，邪入于胃腑之內。胃腑之下，少陽居焉。若傳之陰，則爲邪氣入臟矣。榮與衛俱爲表也，亦均可汗也。然有汗者，爲傷風。風傷衛氣，則以桂枝助陽而汗之輕。無汗者，爲傷寒。寒傷榮氣，則以麻黃湯助陽而汗之重。榮衛固爲表也，胃腑亦可以爲表也。然以腑臟而分表裏，則在腑爲之表，在臟爲之裏。胃取諸腑，可以表言。若合榮衛腑臟而分之，則表者榮衛之所行，裏者胃腑之所主，而臟則又深于裏者矣。

병사(病邪)가 겉(表)에 있는 것은 사기(邪氣)가 영분(榮分)과 위분(衛分) 사이에 전경된 경우이다. 병사가 속(裏)에 있는 것은 사기가 위부(胃腑) 속으로 들어간 경우이다. 위부(胃腑)의 아래 소음이 있다. 만약 삼음(三陰)으로 전경되면 사기(邪氣)가 장(臟)으로 들어간 것이다. 영(榮)과 위(衛)는 모두 겉(表)에 해당하므로, 또 모두 발한시켜야 한다. 그런데 땀을 흘리는 것은 상풍(傷風)이다. 풍(風)이 위기(衛氣)를 손상시키면 계지탕(桂枝湯)으로 양기(陽氣)를 도와 가볍게 발한시킨다. 땀이 나지 않는 것은 상한(傷寒)이다. 한(寒)이 영기(榮氣)를 손상시키면 마황탕(麻黃湯)으로 양기(陽氣)를 도와 강하게 발한시킨다. 영(榮)과 위(衛)는 분명히 겉(表)인데, 위부(胃腑)도 겉(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부(腑臟)를 표리(表裏)로 나누었을 때, 사기(邪氣)가 부(腑)에 있으면 표증(表證)이 되고, 장(臟)에 있으면 이증(裏證)이 된다. 위(胃)는 부(腑)에 속하므로 겉(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영(榮)·위(衛)·부(腑)·장(臟)을 모두 합하여 분류하면, 겉(表)은 영위(榮衛)가 담당하고, 속(裏)은 위부(胃腑)가 주관하며, 장(臟)은 속(裏)에서 깊은 부분이 된다.

審脈問證，辯明⁴定經。眞知其爲表邪則汗之。眞知其爲裏邪則下之。眞知其爲陰證則溫之。表有邪則爲陽虛⁵，陰經受邪則爲臟病，而溫裏⁶之藥熱。如此而汗，如彼而下，又如彼而溫，桂枝、承氣投之不差，姜附、理中發而必中。

맥을 살피고 증상을 물어 병명(病名)을 변별하고 병사가 머문 경맥을 판정한 다. 겉의 사기(邪氣)임을 확실히 알았다면 한법(汗法)을 쓰고, 속의 사기(邪氣)임을 확실히 알았다면 하법(下法)을 쓰며, 음증(陰證)임을 확실히 알았다면 온법(溫法)을 쓴다. 겉(表)에 사기(邪氣)가 있으면 양(陽)이 허(虛)하고 음(陰)이성한 것이니 따뜻한 성질의 약으로 발표(發表)시키고, 속(裏)에 사기가 있으면 음이 허하고 양이성한 것이니 차가운 성질의 약으로 공격(攻裏)시키며, 음경(陰經)이 사기(邪氣)를 받으면 장(臟)의 병이니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음(陰)을 따뜻하게 한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을 때 한법을 쓰고 속에 있을 때 하법을 쓰며 또 음경에 있을 때 온법을 써야 하니, 계지탕(桂枝湯)과 승기탕(承氣湯)을 투여하여 낫지 않을 때 강부탕(薑附湯)과 이중탕(理中湯)을 쓰면 반드시 적중하게 될 것이다.

大抵治傷寒有法，投劑少差，死生立見。古人處方立論，曰可汗，曰可下，曰可溫，曰和解，曰少與，曰急下，與夫先溫其裏乃發其表，先解其表乃攻其裏，謂知奇⁷者，若網在綱，有條不紊。論至于此，則知古人之立論甚嚴，而汗下溫之法，亦不可輕也，信矣。

대개 상한(傷寒)을 치료하는 데 방법이 있으니 약을 투여하는 작은 차이가 죽고 사는 것으로 곧 드러나게 된다. 옛사람이 처방을 만들고 의론을 세워 "한법을 써야 한다", "하법을 써야 한다.", "온법을 써야 한다.", "화해시켜야 한다.", "조금 써야 한다.", "서둘러 공하시켜야 한다."라고 하였고, 먼저 속(裏)을 따 뜻이 한 뒤에 겉(表)을 발산시키거나, 먼저 겉(表)을 풀 뒤에 속(裏)을 공하시킨다고 하기도 하였다. 제대로 이해한 이는 그물에 굵은 줄이 제대로 있는 것과 같아서 얇은 줄이 있어도 엉키지 않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옛사람이 세운 의론이 매우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법·하법·온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經曰，傷寒六七日，目中不了了，無表證⁸，脈雖浮，亦有可下者。少陰病二三日，無裏證，亦有可汗者。陰證四逆，法當用溫，而四逆散性寒，豈可用哉。曰醫在九流之中，非圓機之士，不足爲語也。脈雖浮而亦可下者，無表證⁹，謂六七日不大便。借使大便不難，其敢輕下之乎。少陰病亦有發汗者，少陰本無熱反發熱，而表猶未解，故用溫藥微取其汗也。借使身不發熱，其敢輕汗之乎。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상한 6 - 7일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뻑뻑하며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없는 경우"【252】에는 맥이 비록 부(浮)하더라도 하법을 써야 한다. 또 "소음병 2 - 3일에 이증(裏證)이 없는 경우"【302】에도 한법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음증(陰證)에 사역(四逆)의 증상이 있다면 온법을 써야 하는데 사역산(四逆散)은 성질이 차가우니 어찌 쓸 수 있겠는가. 의학은 여러 학술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맥이 비록 부(浮)하더라도 하법을 써야 하는 경우에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없다는 것은 6 - 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음을 말한다. 만약 대변 보기 어렵지 않았다면 어찌 함부로 가벼이 하법을 쓰겠는가. 소음병이지만 발한(發汗)시키는 경우는, 소음병에는 본디 열이 나지 않으나 도리어 열이 날 때로 겉(表)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 따뜻한 성질의 약으로 조금 땀을 내는 것이다. 만약 몸에서 열이 나지 않았다면 어찌 함부로 가벼이 한법을 쓰겠는가.

四逆湯用姜、附，四逆散用枳、柴，一寒一熱，病¹⁰主四逆，固不侔矣。然傳經之邪，與陰經受邪，初病便厥者不同。四逆散用藥寒，主先陽後陰也。四逆湯用藥熱，主陽不足而陰有餘也。

사역탕(四逆湯)에는 건강(乾薑)、부자(附子)를 쓰고 사역산(四逆散)에는 지실(枳實)、시호(柴胡)를 사용한다. 하나는 성질이 차고 다른 하나는 성질이 뜨거우나 모두 사역(四逆)의 증상을 치료하니 참으로 같지 않다. 이것은 전경(傳經)된 사기(邪氣)로 사역(四逆)이 생겨난 경우와, 음경(陰經)이 사기를 받아 처음 병이 되었을 때 바로 사역이 생긴 경우의 차이이다. 사역산(四逆散)은 차가

운 성질의 약을 사용하여 처음에 양증이었다가 나중에 음증이 된 것을 치료한다. 사역탕(四逆湯)은 뜨거운 성질의 약을 사용하여 양(陽)이 부족하고 음(陰)이 남아도는 상태를 치료한다.

若張氏之論日數多¹¹則曰, 日數雖多, 但有表證而脈浮者, 猶可發汗, 日數雖少, 若有裏證而脈沈實者, 卽須下之。此日數之不可拘也。

장중경이 날수(日數)를 거론하면서, 날수가 비록 많더라도 만약 표증(表證)이 있고 맥이 부(浮)하면 오히려 한법을 쓸 수 있고, 날수가 비록 적더라도 만약 이증(裏證)이 있고 맥이 침실(沈實)하면 곧 반드시 하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날수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至如陽極發厥, 陰極發燥¹², 陰證似陽, 陽證似陰, 差之毫釐, 繆以千里, 可不深思而熱慮¹³也哉。

양(陽)이 지극하여 생긴 궤증(厥證), 음(陰)이 지극하여 생긴 조증(躁證), 양증(陽證)과 유사한 음증(陰證), 음증(陰證)과 유사한 양증(陽證)의 경우에는 작은 착오가 천리 만큼의 잘못을 초래하니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1. 據脈: ㉞拘脈 ※《상한유서》↩

2. 囊拳: ㉞蹠默 ※《상한유서》↩

3. 若: ㉞弱 ※《상한유서》↩

4. 明: ㉞名 ※《상한유서》↩

5. 表有邪則爲陽虛: ㉞表有邪則爲陽虛陰盛, 而發表之藥溫, 裏有邪則爲陰虛陽盛, 而攻裏之藥寒 ※《상한유서》↩

6. 溫裏: ㉞溫陰 ※《상한유서》↩

7. 知奇 : ㉾ 知音 ※《상한유서》↩

8. 表證 : ㉾ 表裏證 ※《상한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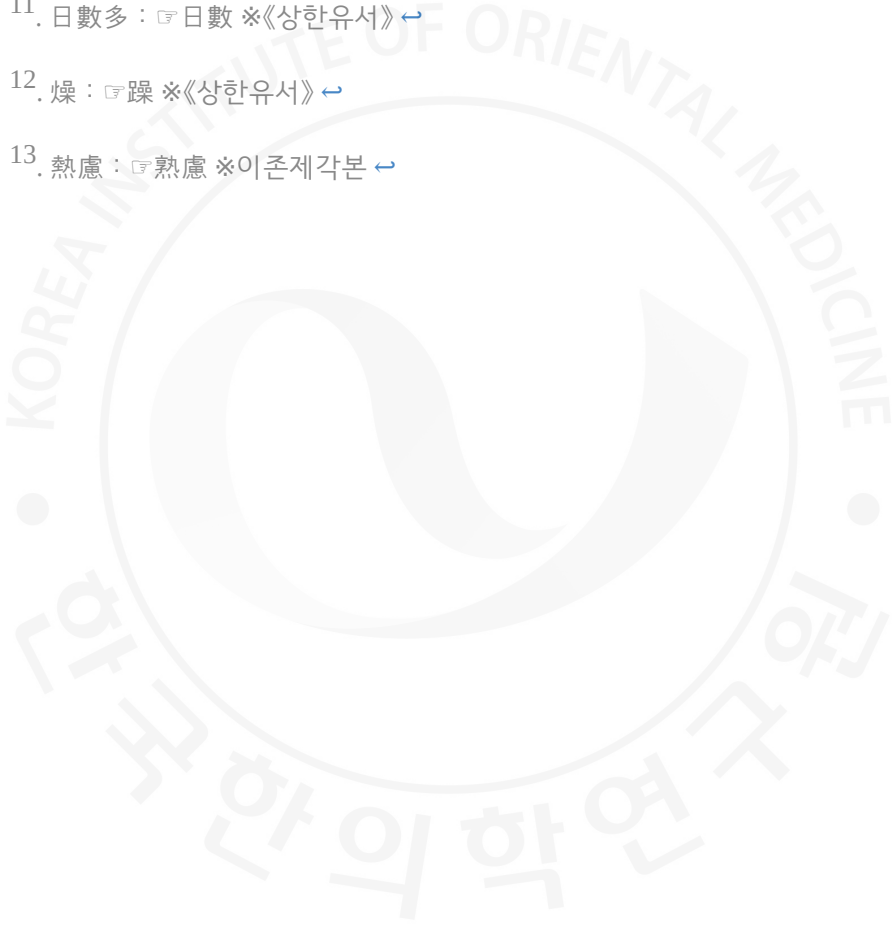
9. 表證 : ㉾ 表裏證 ※《상한유서》↩

10. 病 : ㉾ 并 ※《상한유서》↩

11. 日數多 : ㉾ 日數 ※《상한유서》↩

12. 燥 : ㉾ 躁 ※《상한유서》↩

13. 熱慮 : ㉾ 熟慮 ※이존제각본 ↩



陰陽虛實用藥寒溫辯 음양허실과 약의 한온(寒溫)에 대한 변별

《傷寒》一書，所謂陰陽虛盛，則精微之義，不無辯析於其間。四十八難曰，"病之虛實，出者爲虛，入者爲實"。蓋表之眞陽既虛，故陰邪以盛，出而乘陽，是以脈浮于外，其病在表，法當汗之。當其陰邪出表，脈浮于外之時，不可自感¹以爲陽脈盛也。裏之眞陰既虛，故陽邪以盛，入而乘陰，是以脈入于內，其病在裏，法當下之。當其陽邪入裏，脈實于內之時，不可自惑以爲陰脈盛也。是說非古人之立言也。蓋使人知如此之爲陰盛，則抑陰而助陽，如彼之爲陽盛，則抑陽而助陰。陰甚²則邪出於外者，發表之藥當性溫，以助陽氣，如桂枝湯之類是也。陽盛則邪入于內者，攻裏之藥當性寒，以抑陽氣，如承氣湯之類是也。

《상한론(傷寒論)》에서 말한 음양(陰陽)의 허실(虛盛)은 그 속에 있는 정미로운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난경(難經)》〈48난(難)〉에서 말하였다. "병에서 허실(虛實)은, 나오는 것이 허(虛)가 되고 들어가는 것이 실(實)이 된다." 겉(表)의 진양(眞陽)이 허(虛)해지면 음사(陰邪)가 왕성하여 겉으로 나와 양(陽)이 있는 곳을 침입하므로 맥이 겉으로 부(浮)하게 드러난다. 병이 겉에 있으므로 한법을 써야 한다. 음사(陰邪)가 겉(表)으로 나와 맥이 겉으로 부(浮)하게 나타날 때 스스로 미혹되어 양맥(陽脈)이 왕성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속(裏)의 진음(眞陰)이 허(虛)해지면 양사(陽邪)가 왕성하여 속으로 들어가 음(陰)이 있는 곳을 침입하므로 맥이 속으로 들어간다. 병이 속에 있으므로 하법을 써야 한다. 양사(陽邪)가 속(裏)로 들어가 맥이 속에서 실(實)하게 나타날 때 스스로 미혹되어 음맥(陰脈)이 왕성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론은 옛사람들이 말해 놓은 것은 아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이것과 같은 것을 음이 성한 경우라고 알려주면 음을 억누르고 양을 도울 것이고, 저것과 같은 것이 양이 성한 경우라고 알려주면 양을 억누르고 음을 도울 것이다. 음이 왕성하여 음사(陰邪)가 겉으로 나왔을 때 발표(發表)시키는 따뜻한 성질의 약으

로 양기(陽氣)를 도와야 한다. 계지탕(桂枝湯)과 같은 약들이 그것이다. 양이 왕성하여 양사(陽邪)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공리(攻裏)시키는 차가운 성질의 약으로 양기(陽氣)를 억눌러야 한다. 승기탕(承氣湯)과 같은 약들이 그것이다.

或曰，陰出而乘于外，是陽之不足也。陽病則當有以發表³而汗之，何哉？是大不然，陰邪傳于外，不汗之，則邪何由而去？桂枝之性溫，溫之，乃所以助陽，陽有所助而長，則陰邪之所由以消，辛甘發散爲陽者，此也。張氏所謂承氣入胃，陰盛乃亡者，正恐陰盛出外，而誤以承氣下之，安得而不亡。

어떤이가 물었다. 음(陰)이 나와 밖(外)으로 침입한 것은 양(陽)이 부족한 때 문이다. 이때 한법을 쓰면 망양(亡陽)이 생기는데도 한법을 쓰는 것은 어째서 인가. 이것은 실로 그렇지 않다. 음사(陰邪)가 밖(外)으로 전경되었을 때 한법을 쓰지 않는다면 사기(邪氣)가 어떤 이유로 물러가겠는가. 계지탕(桂枝湯)의 따뜻한 성질로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은 곧 양(陽)을 돕는 일이다. 양(陽)이 도움을 받아 늘어나면 음사(陰邪)가 이로 인해 사그러든다. "맵고 단 성질의 약재는 발산시키며 양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장중경이 "승기탕(承氣湯)을 복용할 때 음이 성하면 죽는다."【상한례】고 한 것은 바로 음이 왕성해져 밖으로 드러났을 때 잘못 승기탕으로 하법을 사용하는 일을 염려했던 것이니 어찌 그러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或者有⁴，陽入而承⁵于內，是陰之不足也。陰病則當有以溫養而下之，何哉？是又不然，陽邪入于內，不下之，則邪從何而出？承氣之性寒，寒之，乃所以抑陽，陽受其抑則微，而眞陰之所由以長，酸苦湧泄爲陰者，此也。張氏所謂桂枝下咽，陽盛則斃，正恐陽盛入內，而誤以桂枝汗之，又安得而不死。觀古人發表之藥多溫，攻裏之藥多寒，則知陰陽虛實之意微，非止於汗下設矣，所以爲用藥寒溫設也。

어떤이가 또 말하였다. 양이 들어가 안(內)으로 침입한 것은 음이 부족한 경우이다. 음병(陰病)에는 따뜻하게 하고 길러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하법을 쓰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양사(陽邪)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법

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기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승기탕(承氣湯)의 차가운 성질로 차갑게 해 주는 것은 곧 양사(陽邪)를 억누르는 것이다. 양사가 억누름으로 미약해지면 진음(眞陰)이 이로 인해 자라게 된다. "시고 쓴 성질의 약재는 토하거나 설사기키며 음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이 때문이다. 장중경이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할 때 양이 성하면 죽는다."【상한례】고 한 것은 바로 양이 왕성하여 속으로 침입했을 때 잘못 계지탕으로 한법을 사용하는 일을 염려한 것이니 어찌 그러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사람들이 발표시킬 때 사용한 약이 대부분 따뜻한 성질이고, 공리시킬 때 사용한 약이 대부분 차가운 성질인 것을 보면, 음양허실의 세밀한 의미를 알 수 있다. 한법이나 하법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약의 차갑거나 따뜻한 성질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1. 感 : 𣎵惑 ※《상한유서》↩
2. 陰甚 : 陰盛 ※《상한유서》↩
3. 陽病則當有以發表 : 𣎵發汗則亡陽 ※《상한유서》↩
4. 有 : 𣎵又曰 ※《상한유서》↩
5. 承 : 𣎵乘 ※《상한유서》↩

六經用藥格法 육경용약격법

太陽屬膀胱寒水，非發汗不能愈，亦有¹桂枝、麻黃以助陽祛邪。此膀胱寒水之經，有標本之作。風寒初客，仍在表，宜用辛溫之劑以發散之。若無頭痛惡寒，或非冬時，皆不可用。

태양은 방광(膀胱) 한수(寒水)에 속하여 발한법이 아니면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계지(桂枝)、마황(麻黃)으로 양(陽)을 도와 사기(邪氣)를 쫓아야 한다. 이 방광(膀胱) 한수(寒水)의 경맥에는 표본(標本)에 따라 증상이 생겨난다. 풍한(風寒)이 처음 침입하여 겉(表)에 머무르면 맵고 따뜻한 성미(性味)의 약재로 사기(邪氣)를 발산시켜야 한다. 만약 두통(頭痛)과 오한(惡寒)이 없거나, 겨울이 아닐 때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陽明屬胃，非通泄不能痊，必用大黃、芒硝以疎利陽熱。此言表證已罷，頭痛惡寒已除，則熱歸陽明之本矣，宜承氣湯寒劑以泄熱。若惡寒未除，則爲表，寒邪尚在，不可下也。冬時亦宜用，不可拘忌。

양명은 위(胃)에 속하여 배출시키지 않으면 나올 수 없으니 반드시 대황(大黃)과 망초(芒硝)로 양열(陽熱)을 흠어 내보낸다. 이는, 표증(表證)이 이미 풀려서 두통(頭痛)과 오한(惡寒)이 이미 사라지면 열(熱)이 양명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므로 승기탕(承氣湯)과 같이 차가운 성질의 약으로 열을 배출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만약 오한(惡寒)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면 표증(表證)으로 한사(寒邪)가 여전히 있는 경우이니 하법(下法)을 쓸 수 없다. 겨울에도 사용해야 하며 금기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少陽屬膽，無出入之道，柴胡、半夏能利能汗，消解血熱，黃芩佐之。

소양은 담(膽)에 속하고 드나드는 길이 없다. 시호(柴胡)、반하(半夏)로 설사시키거나 땀을 내고 혈열(血熱)을 식혀 풀며, 황금(黃芩)으로 이를 돕는다.

太陰脾土，惟惡寒濕，非乾姜、白朮不能燥濕也。

태음 비토(脾土)는 오직 차갑고 습(濕)한 것을 싫어한다. 건강(乾薑)·백출(白朮)이 아니면 습(濕)을 말릴 수 없다.

少陰腎水，惟惡寒燥，非附子不能溫潤。

소음 신수(腎水)는 오직 차갑고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부자(附子)가 아니면 따뜻하고 촉촉하게 할 수 없다.

厥陰肝木，藏血榮筋，非芍藥、甘草不能滋養。此用藥經常之道也。

궤음 간목(肝木)은 혈(血)을 저장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작약(芍藥)·감초(甘草)가 아니면 기를 수 없다. 이것이 약을 쓰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1. 亦有：☞必用 ※《상한유서》☞

陰陽虛盛用藥寒溫辯 음양허실과 약의 한온(寒溫)에 대한 변별

夫傷寒發表攻裏之藥，寒熱殊途，用之一差，死生反掌。所以越人、仲景深致意于其間也。《難經》云，傷寒陽虛陰盛，汗之則愈，下之則死。陽盛陰虛，汗之則死，下之則愈。且寒邪之傷人也，有淺深焉。淺者汗之，深者下之。此古今不易之定法也。

상한에서 발표(發表)하거나 공리(攻裏)하는 약을 한열(寒熱)에 어긋나도록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죽음과 삶이 뒤바뀔 수 있다. 이것이 진월인(秦越人)과 장중경(張仲景)이 그 문제에 깊이 뜻을 둔 까닭이다. 《난경(難經)》〈58난(難)〉에서 말하였다. "상한에 양(陽)이 허하고 음(陰)이 성할 때 땀을 내면 낮고 사하시키면 죽는다. 양(陽)이 성하고 음(陰)이 허할 때 땀을 내면 죽고 사하시키면 낫는다." 또 한사(寒邪)가 사람을 손상시킬 때는 얇고 깊음이 있다. 얇은 경우에는 땀을 내고, 깊은 경우에는 사하시킨다. 이것은 고금에 바뀌지 않는 정해진 법도이다.

方其風寒初客皮毛之間，陰氣乃盛，閉塞腠理，身中陽氣已虛，不能禦衛，遂有惡風惡寒之證見焉。當此之時，止宜桂枝湯辛甘溫之藥，助陽抑陰而發之。陰邪既散，表氣冲和而愈。經云辛甘發散爲陽者是也。不知用此而反以承氣湯苦寒之藥下之，表裏俱傷，不亡何待？

풍한(風寒)이 처음 피모(皮毛) 사이로 침입하면 음기(陰氣)가 왕성해져 주리(腠理)를 막고, 몸 속의 양기(陽氣)는 이미 허약해져 겉을 호위하지(禦衛) 못하여 마침내 오�풍(惡風)이나 오한(惡寒)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는 단지 맵고 달고 따뜻한 성질의 약인 계지탕(桂枝湯)으로 양(陽)을 돕고 음(陰)을 억눌러 발산시켜야 한다. 음사(陰邪)가 다 흩어지고 표기(表氣)가 조화를 이룬 뒤에 낫는다. 《소문(素問)》〈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 "맵고 단 성질의

약재가 발산시키며 양에 해당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반대로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운 승기탕(承氣湯)으로 사하시키면 표리(表裏)가 모두 손상될 것이니 어찌 살기를 기대하겠는가.

表邪既罷，寒作爲熱，陽陷入深而盛於裏，則津液消耗，腸胃燥澀，而臟腑之眞陰虛矣。陰氣既虛，卽譫妄狂燥，煩渴惡熱之病而作也。當此之時，宜用承氣湯苦寒之劑，扶陰抑陽而泄去熱氣，陽邪卽退，胃中眞陰來復，裏氣和平而愈。《內經》所謂酸苦湧泄爲陰者是也。不知用此，乃以桂枝辛熱之藥助邪伐正，安有不斃者乎？

겉의 사기(邪氣)가 다 풀어진 뒤에 한(寒)이 열(熱)로 변하여 양사(陽邪)가 깊이 침입하여 속(裏)에서 왕성해지면 진액(津液)이 소모되어 장위(腸胃)가 건조해지고 장부(臟腑)의 진음(眞陰)이 허하게 된다. 음기(陰氣)가 모두 허해지면 곧 섬망(譫妄)·광조(狂躁)·번갈(煩渴)·오열(惡熱)의 병이 생겨난다. 이때 쓰고 차가운 성질의 승기탕(承氣湯)으로 음(陰)을 거들고 양(陽)을 억눌러 열기(熱氣)를 내보내야 한다. 양사(陽邪)가 이미 물러나고 위(胃) 속의 진음(眞陰)이 회복되면 이기(裏氣)가 화평해지고 나서 낮는다. 《소문(素問)》〈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 "시고 쓴 성질의 약재가 토하거나 설사시키며 음에 해당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고 맵고 뜨거운 성질의 약인 계지탕(桂枝湯)으로 사기(邪氣)를 돕고 정기(正氣)를 공격한다면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所以仲景云，桂枝下咽，陽盛則斃，承氣入胃，陰盛乃亡，良以此夫。嗚呼，此論誠爲傷寒汗下之樞機乎。俗醫不能達此爲妙，昧于陰陽虛盛之道，悖逆此理而不殺人也，幾希。經云發表不遠熱，攻裏不遠寒，豈虛語哉！

중경이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할 때 양(陽)이 왕성하면 죽고, 승기탕(承氣湯)을 복용할 때 음(陰)이 왕성하면 죽는다."【상한례】라고 한 까닭이 바로 이 때 문이구나. 아! 이 설명이야말로 참으로 상한에서 한법과 하법을 쓰는 기준이구나. 세상의 의사들이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여 오묘함을 얻지 못하고 음양이 허

하고 성한 법도에 어두우니 이 이치를 거스르고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가 아주 적다. 《소문(素問)》〈육원정기대론(六元正紀大論)〉에서 "발표(發表)시킬 때 뜨거운 성질의 약을 멀리하지 말고, 공리(攻裏)시킬 때 차가운 성질의 약을 멀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어찌 허황된 말이겠는가.



三陰三陽脈證 삼음삼양의 맥증

經云，尺寸俱浮大¹者，陽²受病也。當一二日發，以其脈上連風府，故頭項痛，腰脊強。傷寒則發熱惡寒，傷風則鼻塞惡風，然傷風有汗，傷寒無汗。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부대(浮大)한 것은 태양에 병이 든 경우이다. 1 - 2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위로 풍부(風府)에 이어지므로 머리와 뒷목이 아프고 허리와 등줄기가 뻣뻣하다."【상한례】상한(傷寒)은 열이 나면서 오한이 들고, 상풍(傷風)은 코가 막히고 오풍이 든다. 그리고 상풍에는 땀이 나고 상한에는 땀이 나지 않는다.

尺寸俱長者，陽明受病也。當二三日發，以其脈夾鼻絡于目，故身熱目疼，鼻乾不得臥。又曰不惡寒而作渴，皆爲在經，不惡寒反惡熱，自汗出，大便難。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장(長)한 것은 양명이 병에 병이 든 경우이다. 2 - 3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코 옆을 지나 눈에 닿으므로 몸에서 열이 나고 눈이 아프며 코가 마르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오한이 들지 않고 갈증이 있는 경우는 모두 양명경증(陽明經症)이 되고, 오한이 들지 않고 도리어 오열이 들며 자한(自汗)이 나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두 양명부증(陽明腑證)³이라고 하였다.

尺寸俱弦者，少陽受病也。當三四日發，以其脈循脇絡於耳，故胸脇痛而耳聾。口苦咽乾，目眩，往來寒熱而嘔。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현(弦)한 것은 소양에 병이 든 경우이다. 3 - 4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옆구리를 지나 귀에 닿으므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 또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며 눈앞이 아득하고 한열이 왕래하며 구토를 한다.

此三經受病，未入于腑者，可汗而已。

이것은 삼양경(三陽經)에 병이 든 경우로 사기(邪氣)가 아직 부(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발한시켜야 할 따름이다.

尺寸俱沈細者，太陰受病也。當四五日發，以其脈布胃中絡于噎，故腹滿而咽乾。或腹痛手足溫，自利不渴。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현세(沈細)한 것은 태음에 병이 든 경우이다. 4 - 5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위 속에 퍼져 있고 목구멍에 닿아 있으므로 배가 그득하고 목구멍이 마른다. 또 더러 배가 아프고 손발이 뜨거우며 설사를 하나 갈증이 없다.

尺寸俱沈者，少陰受病也。當五六日發，以其脈貫腎絡于肺，繫舌本，故口燥舌乾而渴。惡寒，口中和，默默欲寐，時時腹痛，又咽痛三證⁴。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침(沈)한 것은 소음에 병이 든 경우이다. 5 - 6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신(腎)을 통과해 폐(肺)에 닿고 혀뿌리에 얹히므로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난다. 또 오한이 들고 입맛이 있으며 조용히 자려고만 하고 때때로 배가 아프며 2가지 인통(咽痛)도 나타난다.

尺寸俱微緩者，厥陰受病也。當六七日發，以其脈循陰器絡于肝，故煩滿而囊縮。唇青舌捲，筋急，或渴，不欲食，即吐蛔。

척(尺)과 촌(寸)의 맥이 모두 미완(微緩)한 것은厥음에 병이 든 경우이다. 6 - 7일째 나타나며, 그 맥이 음기(陰器)를 지나 간(肝)에 닿으므로 가슴이 답답하고 그득하며 음낭이 오그라든다. 또 입술이 푸른빛을 띄고 혀가 말리며 힘줄이 당기고, 더러 갈증이 나거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곧 회충을 토한다.

此三經皆受病也，已入於腑者，可下而已。此皆自陽經傳來者，故宜下而去之。非若陰經自中之寒，此則爲眞陰證矣，當用四逆湯輩溫之。

이것은 삼음경(三陰經)에 병이 든 경우로 사기(邪氣)가 이미 부(腑)에 들어갔으므로 공하시켜야 할 따름이다. 이들은 모두 양경(陽經)에서 사기(邪氣)를 전달 받은 것이므로 하법을 써서 사기(邪氣)를 제거해야 한다. 음경(陰經)에 직접 한사(寒邪)를 받은 것과 다르며, 이 경우는 진음증(眞陰證)으로 사역탕(四逆湯) 등으로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한다.

1. 浮大 : ㉞ 浮 ※《상한론》【상한례】↩

2. 陽 : ㉞ 太陽 ※《상한론》【상한례】↩

3. 모두 양명부증(陽明腑證) : 원서에는 누락되었으나 문맥에 맞게 역자가 추가하였다. ↩

4. 三證 : ㉞ 二證 ※《상한유서》↩

汗下溫正法 한법·하법·온법의 정석

太陽，傷風，自汗惡風，桂枝湯。傷寒，無汗惡寒，麻黃湯。

태양병에 상풍(傷風)으로 자한(自汗)이 나고 오향(惡風)이 들면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상한(傷寒)으로 땀이 나지 않고 오한(惡寒)이 들면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陽明，不惡寒反惡熱，自汗者，大便難，大柴胡湯、小承氣湯。汗不止者，胃汁乾，急下之，大承氣湯。無汗惡寒，升麻葛根湯。有汗脈遲，微惡寒，爲表未解，桂枝湯。無汗，脈浮而喘，麻黃湯。

양명병에 오한(惡寒)은 없으나 도리어 오열(惡熱)이 있고 자한(自汗)이 나는 경우는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니 대시호탕(大柴胡湯)·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땀이 멈추지 않고 나는 것은 위(胃)의 진액이 마른 경우로 급히 공하시켜야 하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땀이 나지 않고 오한(惡寒)이 들면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쓴다. 땀이 나고 맥이 지(遲)하며 조금 오한(惡寒)이 드는 것은 걸(表)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경우이니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땀이 나지 않고 맥이 부(浮)하며 숨이 차면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少陽證，病屬小柴胡湯。

소음증(少陽證)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太陰，自利不渴，爲臍寒，理中湯、四逆湯。胸中脹滿，枳實理中丸。脹滿脈浮，桂枝湯。脹滿時痛，桂枝加芍藥湯，痛甚，桂枝加大黃湯。

태음병에 설사를 하고 목이 마르지 않은 것은 장한(臍寒)이니 이중탕(理中湯)·사역탕(四逆湯)을 쓴다. 가슴 속이 그득할 때는 지실이중환(枳實理中丸)을 쓴다. 배가 창만(脹滿)하고 맥이 부(浮)하면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배가 창만

(脹滿)하고 때때로 아플 때는 계지가작약탕(桂枝加芍藥湯)을 쓰며, 통증이 심한 때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을 쓴다.【279】

少陰，脈沈，口不乾，舌不燥，皆惡寒，小便清白，四逆湯。始得病，脈沈，反發熱，麻黃附子細辛湯。口燥咽乾而渴，急下之，大承氣湯。六經中，惟此一經難治，大要以口燥而渴，知其熱，脈沈而遲，別其寒。

소음병에 맥이 침(沈)하며 입과 혀가 마르지 않고 오한이 들며 소변이 맑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처음 병이 들어 맥이 침(沈)한데 도리어 열이 날 때는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을 쓴다. 입과 목구멍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급히 공하시켜야 하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육경(六經) 가운데 오직 이 소음경이 치료하기 어렵다. 핵심은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것으로 열증을 알아내고, 맥이 침(沈)하고 지(遲)한 것으로 한증을 구분해 내는 것이다.

厥陰，脈微浮，爲欲愈，不浮，爲未愈，小建中湯。脈浮緩，如瘡狀，桂枝麻黃各半湯。脈沈短者，囊必縮，爲毒氣入臟，承氣湯下之。利不止者，四逆湯。

厥음병에 맥이 조금 부(浮)할 때는 나으려는 경우이고, 부(浮)하지 않을 때는 아직 낫지 않으려는 것이니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맥이 부완(浮緩)하고 증상이 학질처럼 나타날 때는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맥이 침(沈)·단(短)할 때 음낭이 반드시 오그라드는 것은 독기(毒氣)가 장(臟)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므로 승기탕(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傷風見寒傷寒見風脈證 상풍에 한이 드러나거나 상한에 풍이 드러날 때의 맥과 증

熱盛而煩，手足自溫，脈浮而緊，此傷風見寒脈也。不煩少熱，四肢微厥，脈浮而緩，此傷寒見風脈也。二者爲榮衛俱病，法用大青龍湯。然不可輕用，須風寒俱盛，又加煩燥，方可與之。一法以桂枝麻黃湯¹尤穩，今改羌活湯。

열(熱)이 왕성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손발이 절로 따뜻한데 맥이 부(浮)하며 긴(緊)한 것은 상풍(傷風)에 한(寒)의 맥이 드러난 경우이다. 가슴이 갑갑하지 않고 열도 조금만 나며 팔다리가 약간 차가운데 맥이 부(浮)하면서 완(緩)한 것은 상한(傷寒)에 풍(風)의 맥이 드러난 경우이다. 이 2가지는 영(榮)과 위(衛)가 모두 병든 것으로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써야 한다. 그러나 가볍게 쓸 수는 없으며, 반드시 풍(風)과 한(寒)이 모두 왕성한데다 번조(煩燥)까지 더 있을 때 비로소 이를 줄 수 있다. 어떤 곳에는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도 온당하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강활탕(羌活湯)으로 바꾸었다.

1. 桂枝麻黃湯：☞ 桂枝麻黃各半湯 ※문맥상 ➡

三陽合病 삼양합병

本太陽病，若汗，若下，若利小便，無津液，胃中燥，轉屬陽明，是爲脾約。若惡寒，用升麻葛根。不惡寒反惡熱，大便難，白虎湯。譫語者，調胃承氣湯下之。喘而胸滿者，不可下，麻黃湯。

태양양명합병(太陽陽明合病)은, 본래 태양병일 때에 한법이나 하법이나 소변을 내보내서 진액이 소모되고 위(胃) 속이 메말라 양명병으로 전경된 것이다. 이것이 비약(脾約)이다. 만약 오한이 있으면 승마갈근탕(升麻葛根)을 쓴다. 오한이 없고 도리어 오열이 들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섬어(譫語)가 있으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공하시키고,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할 때는 공하시켜서는 안되니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太陽少陽，頭項強急，脇下硬滿，目眩，往來寒熱，小柴胡湯。

태양소양합병(太陽少陽合病)에는 머리와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며,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눈 앞이 아득하고 한열이 왕래하니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少陽陽明，本少陽病，因爲發汗利小便後，胃中燥，大便難，屬調胃承氣湯。

소양양명합병(少陽陽明合病)은, 본래 소양병일 때 한법을 쓰거나 소변을 내보낸 뒤에 위(胃) 속이 메말라 대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써야 한다.

正陽陽明，乃本經風盛氣實也，大柴胡湯、大小承氣湯選用之。

정양양명합병(正陽陽明合病)은 양명경에 풍(風)이 왕성하고 사기(邪氣)가 실한 것으로 대시호탕(大柴胡湯)이나 대승기탕(大承氣湯) 혹은 소승기탕(小承氣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三陽合病，腹滿身重，譫語遺尿，口中不仁，屬白虎湯。口乾舌燥，不仁，背惡寒，[同](#)¹。太陽陽明、少陽陽明、正陽陽明無表證者，俱可下。惟惡寒者，爲太陽陽明合病，未過經，爲屬表，可發汗，桂枝麻黃各半湯。蓋在經則汗，過經則下也。

삼양합병(三陽合病)으로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우며 섬어(譫語)와 유뇨(遺尿)가 있고 음식맛을 느끼지 못할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한다. 입이 마르고 혀가 건조하며 불인(不仁)이 있고 등이 시릴 때도 아울러 사용한다. 태양양명(太陽陽明)、소양양명(少陽陽明)、정양양명(正陽陽明)에 표증이 없을 때는 모두 공하시킬 수 있다. 오직 오한이 있는 경우는 태양양명합병(太陽陽明合病)으로 아직 태양경을 지나지 않았을 때는 표증(表證)에 속하므로 발한시킬 수 있다.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사기(邪氣)가 태양경에 있을 때는 한법을 사용하고, 태양경을 지났을 때는 하법을 사용한다.

1. 同：☞通用 ※《상한유서》☞

太陽陽明併病 태양양명병병

本太陽病，發汗，則汗出不徹，因轉出¹陽明。續自微汗出²，不惡寒，是併歸陽明也。太陽證尙在，桂枝麻黃各半湯，太陽證也，大小承氣湯，陽明證也³。

태양양명병병(太陽陽明併病)은, 본래 태양병일 때 한법으로 충분히 땀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양명으로 전경된 것이다. 계속 조금씩 자한(自汗)이 나고 오한(惡寒)이 없으므로 또한 양명에 속한다. 태양증(太陽證)이 아직 있을 때는 게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쓰고, 태양증이 이미 물러나서 양명증만 있을 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1. 出：☞屬 ※《상한유서》☞

2. 自微汗出：☞微汗自出 ※《상한유서》☞

3. 太陽證也，大小承氣湯，陽明證也：☞太陽證已退，但有陽明者，大承氣湯下之 ※《상한유서》☞

春溫變熱¹ 봄의 온병(溫病)과 여름의 열병(熱病)

溫熱病者，冬時感寒，偶不即發，寒毒藏於肌膚，至春變爲溫病，夏變爲暑病。暑病者，熱又甚於溫也。溫病，發於春三月夏至前是也。發熱咳嗽，頭疼身痛，口燥渴，脈浮弦。熱甚者，小柴胡湯。熱微者，升麻葛根湯、解肌湯。微熱不渴，小柴胡加桂枝，渴²者，加五味，渴者，去半夏加栝藂、人參。脈實煩渴者，大柴胡湯微利之，以其脈實，必大便難也。虛煩者，竹葉石膏湯，然用羌活湯解之爲當，渴，加知母、石膏。

온열병(溫熱病)은 겨울에 한(寒)을 받아 마침 곧바로 병이 생기지 않고 한독(寒毒)이 피부(肌膚)에 숨어 있다가 봄이 되었을 때 변하여 온병(溫病)이 되거나 여름이 되었을 때 변하여 서병(暑病)이 된 것이다. 서병(暑病)은 열(熱)이 온병(溫病)보다 더욱 심하다. 온병(溫病)은 봄의 3개월, 하지(夏至) 이전에 생기는 병이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머리가 우리고 몸이 아프며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며 맥이 부(浮)、현(弦)하다. 열이 심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고, 미열이 날 때는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해기탕(解肌湯)을 쓴다. 미열이 나고 갈증이 없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쓰는데, 기침을 하면 오미자(五味子)를 더하고, 갈증이 나면 반하(半夏)를 빼고 과루인(瓜樓仁)과 인삼(人蔘)을 더한다. 맥이 실(實)하고 갈증이 심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약간 설사 시킨다. 맥이 실하면 분명 대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허번(虛煩)에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 뒤에 강활탕(羌活湯)으로 풀어주어야 하며,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모(知母)와 석고(石膏)를 더한다.

夏月熱病，發熱頭疼，身體痛重，不惡寒而惡熱，其脈洪，不可溫，宜羌活湯，渴，加知母、石膏。三月至夏，謂之晚發，梔子升麻湯，有少陽證者，小柴胡湯，更于前方內選用。若春夏有惡風惡寒，類傷寒證者，蓋當時暴中風寒之氣新病，即非冬時受寒，通用羌活湯治之。

여름철 열병(熱病)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우리하며 몸이 아프면서 무겁고 오한은 없으나 오열이 나며 맥이 홍(洪)할 때는 온법(溫法)을 써서는 안되며 강활탕(羌活湯)을 써야 한다. 갈증이 있으면 지모(知母)와 석고(石膏)를 더한다. 3월에서 하지(夏至) 사이에 생기는 것을 만발(晩發)이라고 하는데, 치자승마탕(梔子升麻湯)을 쓴다. 소양증이 있는 경우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고 다시 앞의 처방 안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만약 봄과 여름에 오펝이나 오한이 있어 상한(傷寒)의 증상과 유사한 경우는 대개 당시에 풍한(風寒)의 기운에 갑자기 적중되어 새롭게 병이 생긴 경우로 겨울에 한사(寒邪)를 받은 것이 아니다. 강활탕(羌活湯)을 두루 사용하여 치료한다.

1. 變熱 : ☞ 夏熱 ※《상한유서》↩

2. 渴 : ☞ 咳 ※문맥상 ↩

瘧 치

瘧者，先太陽中風，重感寒濕所致。經曰，身熱足寒，頸項強急，惡寒，時時頭熱，面赤目赤，獨頭面搖，卒口噤，背反張者，瘧病也，桂枝加栝蒌湯主之。傷風頭痛，常自汗出而嘔者，若汗之，必發瘧。大發濕家汗，亦作瘧。新產血虛，汗出傷風，亦作瘧。若其脈沈弦而遲，或帶緊，或散于指外，皆惡候也。

치(瘧)는 먼저 태양중풍(太陽中風)일 때 다시 한습(寒濕)에 손상되어 생긴 것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몸에서 열이 나고 발이 차가우며, 목이 뻣뻣하고 당기며, 오한이 들고, 때때로 머리에서 열이 나며 얼굴과 눈이 붉고, 머리와 얼굴만을 흔들며, 갑자기 입을 악다물고 등을 뒤로 젖히는 것은 치병(瘧病)이다."【변치습갈】 계지가과루탕(桂枝加栝蒌湯)으로 치료한다. 상풍(傷風)으로 머리가 아프고 항상 자한(自汗)이 나면서 구역질을 할 때 발한시키면 반드시 치(瘧)가 생긴다. 습(濕)이 많은 이가 땀을 흘릴 때 크게 발한 시켜도 치(瘧)가 생긴다. 막 출산을 하여 혈(血)이 허할 때 땀을 흘리고 풍(風)에 손상되어도 치(瘧)가 생긴다. 만약 환자의 맥이 침현(沈弦)하면서 지(遲)하거나, 긴맥(緊脈)을 끼고 있거나, 손가락 밖으로 흩어지는 것은 모두 예후가 좋지 않다.

發熱無汗，惡寒，爲剛瘧，葛根湯或麻黃葛根湯。發熱有汗，不惡寒，爲柔瘧，桂枝加葛根湯、桂枝栝蒌葛根湯。二瘧通用小續命湯，剛瘧爲陽，去附子，柔瘧爲陰，去麻黃。剛瘧，胸滿，口噤咬牙，脚攣，臥不着席，大承氣湯下之。柔瘧，桂心白朮湯、附子防風湯、**白朮散**¹、桂枝煑散選用。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오한이 드는 것은 강치(剛瘧)이니 갈근탕(葛根湯)이나 마황갈근탕(麻黃葛根湯)을 쓴다.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오한이 들지 않는 것은 유치(柔瘧)이니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계지가과루갈근탕(桂枝栝蒌葛根湯)을 쓴다. 2가지 치(瘧)에는 소속명탕(小續命湯)을 통용하는데, 강치(剛瘧)는 양(陽)에 해당하므로 부자(附子)를 빼고, 유치(柔瘧)는 음(陰)에 해당하므로 마황(麻黃)을 뺀다. 강치(剛瘧)로 가슴이 그득하고, 입을 악다물며 어

금니를 짊 물고, 다리가 당겨 누워도 몸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유치(柔瘰)에는 계심백출탕(桂心白朮湯)·부자방풍탕(附子防風湯)·백출산(白朮散)·계지자산(桂枝煮散) 가운데 선택하여 사용한다.

1. 白朮散 : 八物白朮散 ※《상한유서》↗



風溫、濕溫 풍온과 습온

風溫，尺寸俱浮，素傷於風，因而傷熱¹，風與熱搏，卽爲風溫。其外證四肢不收，身熱自汗，頭疼喘息，發渴昏睡，或體重不仁。慎勿發汗，汗之，則譫語煩躁，目無精彩。

풍온(風溫)은 척맥과 촌맥이 모두 부(浮)하다. 평소 풍(風)에 손상된 상태에서 열이 나면 풍(風)과 열(熱)이 다투어 곧 풍온(風溫)이 된다. 외증(外證)은,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자한(自汗)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숨이 차고 갈증이 나며 정신이 희미하고 더러 몸이 무겁고 불인(不仁)이 있다. 삼가 발한시켜서는 안된다. 발한시키면 섬어(譫語)와 번조(煩躁)가 생기고 눈에 정기가 없어진다.

病在少陰、厥陰二經，葳蕤湯、人參敗毒散。葛根龍膽湯、小柴胡湯選用。未醒者²，柴胡桂枝湯，發汗已³。身灼熱，知母葛根湯。渴甚，括蕤根湯。脈浮，身重，汗出，漢防己湯。誤汗風溫，防己黃耆湯。

병이 소음과 궤음 두 경(經)에 있으므로 위유탕(葳蕤湯)、인삼패독산(人參敗毒散)을 쓴다. 갈근용담탕(葛根龍膽湯)、소시호탕(小柴胡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미성탕(未醒湯)、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으로 땀을 내면 낫는다. 몸이 타는 듯 뜨거우면 지모갈근탕(知母葛根湯), 갈증이 심하면 과루근탕(括蕤根湯), 맥이 부(浮)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면 한방기탕(漢防己湯), 잘못 발한시켜 풍온(風溫)이 된 경우는 방기황기탕(防己黃耆湯)을 쓴다.

濕溫，寸濡而弱，尺小而急，素傷於濕，因而中暑，濕與熱搏，卽爲濕溫。其狀胸腹滿，目痛，壯熱妄言，自汗，兩脛逆冷攣急，惡寒。若發其汗，使人不能言，耳聾，不知痛處，其身青而色變，醫殺之耳。

습온(濕溫)은 촌맥이 유(濡)하며 약(弱)하고 척맥이 소(小)하며 급(急)하다. 평소 습(濕)에 손상된 상태에서 서사(暑邪)에 적중되면 습(濕)과 열(熱)이 다투어 곧 습온(濕溫)이 된다. 그 증상은 가슴과 배가 차오르고 눈이 아프며 열이 심하게 나고 헛소리를 하며 자한(自汗)이 나고, 양쪽 정강이가 거슬러 오르며 차갑고 당기며, 오한이 든다. 만약 발한시키면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으며 아픈 곳을 알지 못하게 되고, 환자의 몸이 푸르게 되며 안색도 변하게 되니, 의사가 환자를 죽인 것이다.

濕溫, 太陽經⁴, 用白虎蒼朮湯加桂枝。濕勝, 則一身盡痛, 發熱身黃, 小便不利, 大便反快, 五苓散加茵陳⁵。臟腑虛, 自利甚, 理中湯、朮附湯。

습온(濕溫)이 태음경에 있을 때는 백호창출탕(白虎蒼朮湯)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쓴다. 습(濕)이 많으면 온몸이 모두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누렇게 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나 대변은 도리어 시원하게 나오게 된다. 오령산(五苓散)에 인진(茵陳)을 더하여 쓴다. 장부(臟腑)가 허하여 설사가 심할 때는 이중탕(理中湯)、출부탕(朮附湯)을 쓴다.

1. 傷熱: 發熱 ※《상한유서》↩

2. 未醒者: 未醒湯 ※《상한유서》↩

3. 發汗已: 取微汗 ※《상한유서》↩

4. 太陽經: 在太陰經 ※《상한유서》↩

5. 五苓散加茵陳: 除濕湯、五苓散 ※《상한유서》↩

風濕、中濕 풍습과 중습

風濕，脈浮，先傷濕而後傷風也。其證肢體腫痛，不能轉側，額上微汗，惡寒不欲去衣，大便難，小便利，熱至日脯西而劇，治法但微解肌。若正發汗，則風去濕在，非徒無益，而又害之。

풍습(風濕)은 맥이 부(浮)한데, 먼저 습(濕)에 손상된 뒤에 풍(風)에 손상된 것이다. 그 증상은 사지와 몸통이 붓고 아파 뒤척일 수 없고, 이마에서 조금 땀이 나며, 오한이 나서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나 소변은 잘 나오고, 열이 해질 무렵에 심해진다. 치법은 다만 약하게 해기(解肌)시키는 것이다. 만약 보통의 한법을 사용하면 풍(風)은 제거되지만 습(濕)은 남겨지게 되어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

解肌，用麻黃杏子薏苡甘草湯¹、防己黃耆湯。不嘔不渴，脈浮虛²者，桂枝附子湯。濕多身痛，小便自利，甘草附子湯。煩渴，小便不利，五苓散。外不熱，內不渴，小便自利，朮附湯。緩若³昏迷，腹滿身重，自汗失音，下利不禁，白通湯加白朮去甘草⁴。身腫痛，微喘惡風，杏仁湯。人參敗毒散通用，熱而煩渴者，加括蕁。若誤下之，小便必不利，可五苓散。

해기(解肌)시키는 데는 마황행자의이감초탕(麻黃杏子薏苡甘草湯)에 백출(白朮)을 더하여 쓰거나 방기황기탕(白朮防己黃耆湯)을 쓴다. 구역질도 없고 갈증도 없으며 맥이 허(虛)한 경우는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쓴다. 습(濕)이 많으면 몸이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니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을 쓴다. 번갈(煩渴)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겉으로 열이 나지 않고 안으로 갈증이 나지 않으며 소변이 잘 나오면 출부탕(朮附湯)을 쓴다. 맥이 완(緩)·약(弱)하고 정신이 혼미하며 배가 차오르고 몸이 무거우며 자한(自汗)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설사가 그치지 않을 때는 백통탕(白通湯)에 많은 백출(白朮)과 약간의 감초(甘草)를 더하여 쓴다. 몸이 붓고 아프며 조금 숨이 차고 오한이 들면 행인탕(杏仁湯)을 쓴다. 인삼패독산(人參敗

毒散)을 두루 사용하고,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하면 여기에 과루인(瓜樓仁)을 더하여 쓴다. 만약 잘못 공하시키면 소변이 분명 잘 나오지 않으니 오령산(五苓散)을 써야 한다.

中濕，小便不利，大便自利，甘草附子湯、五苓散。大小便皆利，則與朮附湯。身體痛，或鼻塞，小建中湯加黃耆。

증습(中濕)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설사가 날 때는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오령산(五苓散)을 쓴다. 대변과 소변이 모두 모두 잘 나오면 출부탕(朮附湯)을 준다. 몸이 아프고 코가 막히기도 할 때에는 소건중탕(小建中湯)에 황기(黃芪)를 더하여 쓴다.

1. 白朮 : ㉔加白朮 ※《상한유서》↩

2. 浮虛 : 浮瀝 ※《상한유서》↩

3. 緩若 : ㉔緩弱 ※《상한유서》↩

4. 加白朮去甘草 : ㉔多加白朮少用甘草 ※《상한유서》↩

溫毒、中渴 온독과 중갈

溫毒者，冬月感寒毒異氣，至春始發也。表證未罷，毒氣不散，故有發斑之證，心下煩悶，嘔逆咳嗽，後必下利，寸脈洪數，尺脈實大，爲病則重¹，以陽氣盛故耳。

온독(溫毒)은 겨울철에 평소와 다른 한독(寒毒)을 받고 봄이 되어 나타난다. 표증(表證)이 아직 풀리지 않고 독기(毒氣)가 흩어지지 않으므로 발반(發斑)의 증상이 있고, 심하가 갑갑하여 괴로우며, 구역질을 하고 기침을 하며 후에 반드시 설사를 한다. 촌맥은 홍(洪)、삭(數)하고 척맥은 실(實)、대(大)하다. 병이 위중한 것은 양기(陽氣)가 왕성하기 때문일 뿐이다.

治法通用玄參升麻湯、黑膏主之。詳見發斑條中。

치법은, 현삼승마탕(玄參升麻湯)、흑고(黑膏)를 두루 사용하여 치료한다. 발반(發斑) 조문에 상세히 나온다.

中暑，脈虛而伏，身熱背惡寒，面垢自汗，煩燥大渴，毛聳惡寒，昏昏倦怠而身不痛，與傷寒諸證不同矣。

중서(中暑)는 맥이 허(虛)하면서 복(伏)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등이 시리고 얼굴에 때가 낀 듯하며 자한(自汗)이 나고, 번조(煩躁)와 심한 갈증이 있고, 오한이 들어 털이 곤두서며, 정신이 흐릿하고 노곤하다. 그러나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상한의 증상과 다르다.

內外俱熱，口燥煩渴，四肢微冷而身不痛，用白虎湯。痰逆惡寒，橘皮湯。熱悶不惡寒，竹葉石膏湯。頭痛，惡心煩燥，心下不快，小便不利，五苓散下消暑丸。中暑用小柴胡湯最良。脈芤遲，腠理開，洒然毛聳，口齒燥²，白虎加人參湯。霍亂，煩燥大渴，腹痛，四肢冷，脚轉筋，以黃連香薷湯。

안팎에서 모두 열이 나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심하게 나고, 팔다리가 조금 차가우며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가래가 끓어오르고 오한이 들면 귤피탕(橘皮湯)을 쓴다. 열이 나고 갑갑하나 오한이 들지 않을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머리가 아프고 오심(惡心)과 번조(煩躁)가 있으며, 심하가 불편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 달인 물로 소서환(消暑丸)을 삼킨다. 중서(中暑)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맥이 규(芤)·지(遲)하고 주리가 열려 오싹오싹 털이 곤두서고 입앞이 벌어지며 앞니가 마를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 객란(霍亂)이 있고, 번조(煩躁)와 심한 갈증이 있으며, 배가 아프고 팔다리가 차가우며, 다리에 경련이 생길 때는 황련향유탕(黃連香薷湯)을 쓴다.

1. 爲病則重 : 其爲病重 ※《상한유서》↩

2. 口齒燥 : 口前開而板齒燥 ※《상한유서》↩

發熱 발열

夫翕翕然而熱者，表熱也。有蒸蒸而熱者，裏熱也。其屬表者，風寒客於皮膚，邪氣怫鬱于外，表熱而裏不熱也。其屬裏者，陽氣下陷，入於陰中，裏熱甚而達表也。

후끈(翕翕) 나는 열은 겉〔表〕에서 나는 열이다. 찌는 듯(蒸蒸) 나는 열은 속〔裏〕에서 나는 열이다. 겉에서 나는 열은 풍한(風寒)이 피부에 침입하여 사기(邪氣)가 겉에 불을(怫鬱)된 경우로 겉〔表〕에는 열이 나지만 속〔裏〕에는 열이 나지는 않는다. 속에서 나는 열은 양기(陽氣)가 아래로 침범하여 음분(陰分)으로 들어간 경우로 속〔裏〕의 열이 겉〔表〕까지 이른 것이다.

其在半表半裏者，以表熱未罷，邪氣傳裏，裏未作實，則表裏俱熱，而但輕于純在裏也。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는 열은, 겉에서 나는 열이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사기(邪氣)가 속〔裏〕으로 전해졌지만 속〔裏〕에서 아직 실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표리(表裏)에서 모두 열이 나지만 속〔裏〕에만 있는 열보다는 가볍다.

太陽¹、厥陰皆不發熱。惟少陰反有發熱之證，或其脈沈，或下利，手足冷爲異耳。雖然，傷寒發熱，病之常也。脈陰陽俱虛，熱不止者，汗後復發熱，脈燥疾²，下利者，皆不易治，其可例視之乎？

태음·厥음에는 모두 열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음에만 도리어 발열(發熱)의 증상이 있으니 맥이 침(沈)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것이 다를 뿐이다. 비록 그렇지만 상한에서 열이 나는 것은 상한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음양(陰陽)의 맥이 모두 허하고 열이 그치지 않는 경우, 발한 시킨 뒤에 다시 열이 나고 맥이 빠르게 뛰는 경우, 설사를 하며 열이 나는 경우는 모두 쉽게 치료되지 않으니 보통의 경우로 보아서야 되겠는가.

太陽病，發熱頭疼，惡寒有汗，桂枝湯，惡寒無汗，麻黃湯。

태양병으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때, 오한이 들고 땀이 나면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오한이 들고 땀이 나지 않으면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傷寒六七日，目中不了了，無表裏證，大便難，身微熱，此爲實，急下之，大承氣湯，脈浮數者，大柴胡湯。

상한 6 - 7일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백백하며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없으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몸에서 미열이 나는 것은 실증(實證)으로 급히 하법을 써야 하니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252】맥이 부삭(浮數)하면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陽明病，發熱汗出，脈浮數實者，調胃承氣湯，脈浮，桂枝湯。汗多者，胃汁乾，急下，大承氣湯。

양명병으로 열이 나고 땀이 날 때, 맥이 부(浮)·삭(數)·실(實)하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쓰고, 맥이 부(浮)하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땀이 많은 것은 위(胃)의 진액이 마른 경우로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中風發熱，六七日不解而煩，有表裏證，渴欲飲水，水入即吐，名曰水逆，五苓散，脈浮而大，其人發熱煩渴，小便赤，表裏俱見，五苓散。

중풍(中風)으로 열이 나서 6 - 7일 동안 풀리지 않고 가슴이 갑갑할 때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있고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나 물이 들어가면 바로 토하는 것을 수역(水逆)이라고 한다.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맥이 부(浮)하고 대(大)하며, 환자에게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하며 소변이 붉고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이 모두 있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少陽，發熱，脈弦細而嘔，小柴胡湯。

소양병으로 열이 날 때 맥이 현(弦)·세(細)하며 구역질을 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少陰，反發熱，有二病，脈沈者，麻黃附子細辛湯。下利厥逆，裏寒外熱，脈不出者，通脈四逆湯。

소음병인데 도리어 열이 나는 증상은 2가지 병에서 나타난다. 맥이 침(沈)할 때는 마황부자세신탕(麻黃附子細辛湯)을 쓴다. 설사를 하고 궤역(厥逆)이 있으며 속에는 한(寒)이 있고 겉에는 열(熱)이 있으며 맥이 나오지 않을 때는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쓴다.

脈浮，熱甚，反灸之，因火而動，必咽燥吐血，四逆湯。脈浮大遲，表熱裏寒，下利清穀，四逆湯。發熱，口乾鼻燥，能食者，黃芩湯。脈浮，發熱，無汗而渴，表未解也，小柴胡湯加人參栝藂湯。壯熱，頭痛，心中煩者，梔子黃芩湯。

맥이 부(浮)하고 열이 심한데 도리어 땀을 뜨면 불기운으로 기운이 동요하여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피를 토하게 되니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맥이 부(浮)·대(大)·지(遲)하고, 겉에는 열이 나지만 속이 차서 설사로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나올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열이 나고 입과 코가 마르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황금탕(黃芩湯)을 쓴다. 맥이 부(浮)하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갈증이 있는 것은 겉(表)이 풀리지 않은 경우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인삼과루탕(人參栝藂湯)을 더하여 쓴다. 열이 심하게 나고 머리가 아프며 가슴 속이 답답할 때는 치자황금탕(梔子黃芩湯)을 쓴다.

汗下後有熱³。大汗則損氣，氣損則陽微，故脈虛而惡寒。大下則傷血，血傷則陰弱，故脈瀦而發熱。誤汗誤下，皆有此耳。且陰以陽爲主，陽以陰爲根。下之，亡陰⁴矣。陰無所主，邪氣搏之，血虛乃發熱也。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열이 나는 경우. 크게 한법을 쓰면 기(氣)가 소모되고, 기(氣)가 소모되면 양(陽)이 미미해지므로 맥이 허(虛)하고 오한이 든다. 크게 하법을 쓰면 혈(血)이 손상되고, 혈(血)이 손상되면 음(陰)이 약해지므로

맥이 색(濇)하고 열이 난다. 한법이나 하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경우일 뿐이다. 또 양(陽)은 음(陰)을 부리고, 음(陰)은 양(陽)의 뿌리가 된다. 하법을 써서 망양(亡陽)이 되면 음(陰)이 부림을 받지 못하고, 이때 사기(邪氣)가 침입하면 혈(血)마저 허하여 열이 난다.

太陽病，發汗，遂發熱惡寒，小柴胡湯，蒸蒸而熱者，屬胃，調胃承氣湯。

태양병에 한법을 사용한 뒤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찌는 듯(蒸蒸) 열이 나는 것은 위(胃)에 원인이 있으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下後，陰弱而發熱，是爲內熱，葶藶苦酒湯。

하법을 쓴 뒤에 음(陰)이 약하여 열이 나는 것은 내열(內熱)이니 정력고주탕(葶藶苦酒湯)을 쓴다.

若脈浮，則汗之，麻黃湯，脈實，則下之，大柴胡湯⁵。

병이 나은 뒤에 노복(勞復)으로 열이 날 때, 만약 맥이 부(浮)하면 땀을 내야 하므로 마황탕(麻黃湯)을 쓰고, 맥이 실(實)하면 공하시켜야 하므로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大下後，身熱不去，心中結痛者，未欲解，梔子豉湯。發汗，又復下之，惡寒發熱，無休止時，小建中湯。

크게 하법을 사용한 뒤에 몸에서 열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 속이 맷힌 듯 아픈 것은 병이 아직 풀리려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발한 시킨 뒤에 다시 공하 시켜서 오한과 발열이 설새 없이 나타날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傷寒，以圓藥下之，身熱不去，微煩者，梔子乾姜湯。下後，身熱不去，心中結痛者，梔子豉湯。

상한에 약으로 공하시켰으나 몸에서 열이 사라지지 않고 번(煩)이 조금 있을 때는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을 쓴다. 하법을 쓴 뒤에 몸에서 열이 사라지지 않고 가슴 속이 맷힌 듯 아플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瘥後勞復，發熱，小柴胡湯，脈浮者，當汗解，柴胡桂枝湯，脈沈者，當下解，調胃承氣湯。

나은 뒤에 노복(勞復)으로 열이 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맥이 부(浮)할 때는 땀을 내서 풀어야 하므로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맥이 침(沈)할 때는 공하시켜 풀어야 하므로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下利，腹反⁶痞滿者，生姜瀉心湯，小便不利，麥門冬湯。

설사 후에 배에서 꾸룩거리는 소리가 나고 속이 막히면서 그득하면 생강사심탕(生姜瀉心湯)을 쓰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맥문동탕(麥門冬湯)을 쓴다.

食復，發熱，梔子豉湯⁷加大黃。病後虛羸，微熱不去者，竹葉石膏湯。

식복(食復)으로 열이 날 때 지실치자시탕(枳實梔子豉湯)에 대황(大黃)을 더하여 쓴다. 병을 앓은 후에 허약하고 파리하며 미열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1. 太陽：☞太陰 ※《상한유서》↩

2. 燥疾：☞躁疾 ※《상한유서》↩

3. 汗下後有熱：《상한유서》에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

4. 亡陰：☞亡陽 ※《상한유서》↩

5. "差後勞復發熱"에 대한 설명이다. ※《상한유서》↩

6. 腹反 : 腹鳴 ※《상한유서》↩

7. 梔子豉湯 : 枳實梔子豉湯 ※《상한유서》↩



頭痛 두통

大凡頭痛屬三陽，乃邪氣上攻也。太陽專主頭痛，陽明、少陽亦有之。

두통은 삼양(三陽)에 속하며 사기(邪氣)가 위로 침입한 것이다. 태양병에는 항상 두통이 있고 양명병과 소양병에도 있다.

三陰絡¹上不過頭，惟厥陰循喉嚨之後，上連目，系頂顛，故有頭痛，乾嘔吐涎沫之證，却無身熱，亦與陽證不同。

삼음의 경락(經絡)은 위로 머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나 곁음만은 후릉(喉嚨) 뒤를 지나 위로 눈에 이어지고 정수리에 닿는다. 그러므로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을 하며 거품을 토하는 증상이 있다. 그러나 몸에 열이 나지 않는 것이 양증(陽證)과 다르다.

雖然，風濕²在少陰，濕溫在太陰，其經從足走至胸中而還，及頭痛³，過於陰毒，是又不可拘也。

비록 그러하나, 풍온(風溫)은 소음에 머물고, 습온(濕溫)은 태음에 머무른다. 소음과 태음의 경맥이 다리에서 가슴 속에 이르러 돌아가지만 이런 때는 도리어 두통이 있으며, 음독(陰毒)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경맥의 흐름에 얽매어서는 안된다.

若兩感于寒，太陽、少陰俱病，則頭痛口乾，煩滿而渴，與夫頭痛極甚，又連于胸，手足寒者，則爲眞頭痛，不可治矣。

만약 한사(寒邪)에 양감(兩感)되어 태양과 소음이 모두 병들면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가슴이 갑갑하고 그득하며 갈증이 난다. 두통이 매우 극심하여 통증이 가슴에 까지 미치고 손발이 차가운 것은 진두통(眞頭痛)이다. 이 두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太陽病，頭痛，發熱惡寒，無汗，麻黃湯，有汗，桂枝湯。已發汗，未發汗，頭痛如破者，葛根葱白湯。太陽病，下之，脈細數者，頭痛未止，連鬚葱白湯。

태양병의 두통에는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 이때 땀이 없으면 마황탕(麻黃湯)을 쓰고, 땀이 나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이미 발한시켰거나 아직 시키지 않았거나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면 갈근총백탕(葛根葱白湯)을 쓴다. 태양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맥이 세삭(細數)할 때 아직 두통이 멈추지 않았다면 연수총백탕(連鬚葱白湯)을 쓴다.

陽明頭痛，不惡寒反惡熱，六七日不大便，胃實，氣攻於上也，少與調胃承氣湯。

양명병의 두통에는 오한은 없으나 도리어 오열이 있으며 6-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위(胃)가 실(實)하여 사기(邪氣)가 위로 침입한 경우이니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조금 준다.

少陽頭痛，脈弦，發熱，小柴胡湯。

소양병의 두통에는 맥이 현(弦)하며 열이 난다. 이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濕家頭痛，鼻塞，瓜蒂末納鼻中，黃水出立愈。

평소 습(濕)이 많은 사람의 두통에는 코가 막힌다. 이때 과체(瓜蒂) 가루를 코 속에 넣어 주면 누런 콧물이 나오고 곧 낫는다.

痰涎頭痛，胸滿，寒熱，脈緊，瓜蒂散吐之。

담연(痰涎)으로 생긴 두통에는 가슴이 그득하고 오한과 발열이 있으며 맥이 긴(緊)하다. 이때는 과체산(瓜蒂散)으로 토하게 한다.

厥陰頭痛，乾嘔吐涎沫，吳茱萸湯。

궤음병의 두통에는 헛구역질을 하며 거품을 토해한다. 이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

頭痛，壯熱心煩，梔子黃芩湯。天行、勞復，頭痛，四肢痛，蔥頭湯。

머리가 아프고 열이 심하며 가슴이 갑갑할 때는 치자황금탕(梔子黃芩湯)을 쓴다. 천행(天行)이나 노복(勞復)으로 머리가 아프고 사지가 아플 때는 총두탕(蔥頭湯)을 쓴다.

1. 絡：經絡 ※《상한유서》↩
2. 風濕：風溫 ※《상한유서》↩
3. 及頭痛：反頭痛 ※《상한유서》↩

項强 항강

項背强者，太陽表邪也，發散則解。結胸項强，有下之證。寒濕項强，則成瘥。
見本條，臨病宜審。

뒷목과 등이 뻣뻣한 증상은 태양의 표사(表邪)이므로 발산시키면 증상이 풀어진다. 결흉(結胸)에서의 항강(項强)은 공하시켜야 하는 증상이다. 한습(寒濕)으로 항강(項强)이 있으면 치(瘥)가 된다. 해당 조문에 자세히 나오니, 병을 볼 때 살펴야만 한다.

太陽病，項强，無汗惡風，爲表實，葛根湯。項背强，發熱，汗者¹惡風，爲表虛，桂枝加葛根。

태양병에 뒷목이 뻣뻣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오풍(惡風)이 드는 것은 표실(表實)이니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뒷목과 등이 뻣뻣하고 열이 나며 땀이 나고 오풍이 드는 것은 표허(表虛)이니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을 쓴다.

誤下太陰²，結胸，項强，大陷胸丸。一法頻與理中丸。若損甚者，兼與四逆湯。

태양병에 잘못 하법을 사용하여 결흉(結胸)이 생겨 뒷목이 뻣뻣해졌을 때는 대함흉환(大陷胸丸)을 쓴다. 다른 방법으로, 이중환(理中丸)을 자주 쓴다. 만약 기운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면 아울러 사역탕(四逆湯)을 준다.

項强，脇下滿，身熱惡風，手足溫而渴，小柴胡湯。

뒷목이 뻣뻣하고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몸에서 열이 나고 오풍(惡風)이 들며 손발이 따뜻하고 갈증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陰毒，初得病，項背强，咽痛，心腹痛，短氣，厥逆吐利，身如被杖，附子湯、陰毒甘草湯、正陽湯。天行³復作熱，至晚則腰痛，頭項强，身重，葛根生姜豉湯。

음독(陰毒)으로 처음 병이 들어 뒷목과 등이 뻐뻐하고 목구멍이 아프며 가슴과 배에 통증이 있고 숨이 짧고 꺽역(厥逆)이 있으며 구토와 설사를 하고 몸이 두드러 맞은 것과 같을 때는 부자탕(附子湯)、음독감초탕(陰毒甘草湯)、정양탕(正陽湯)을 쓴다. 다음날 다시 열이 나고, 저녁이 되면 허리가 아프고 머리와 뒷목이 뻐뻐하며 몸이 무거울 때는 갈근생강시탕(葛根生薑豉湯)을 쓴다.

1. 汗者 : 汗出 ※《상한유서》↩

2. 太陰 : 太陽 ※《상한유서》↩

3. 天行 : 天明 ※《상한가비적본》↩

惡風 오풍

惡風者，見風則怯，密室之中，無所惡也。風傷衛氣，衛虛則腠理不密，由是而惡矣，悉屬於陽，非比惡寒，有陰陽之別。若無汗而惡寒者，爲傷寒，當發其汗。汗出而惡風者，則爲中風，當解其肌，不可更發汗。若裏證甚而惡風未罷者，尤當先解其表。三陽風濕，皆有此證，不可不辯。

오풍(惡風)은 바람이 닿으면 싫고 밀폐된 방 속에 있어야 싫은 것이 없는 증상이다. 풍(風)은 위기(衛氣)를 손상시키므로 위기가 허하면 주리(腠理)가 성글어지고 이로 인해 바람을 싫어하게 된다. 모두 양증(陽證)에 해당하며 오한(惡寒)과는 달라서 음양(陰陽)의 구분이 있다. 땀이 나지 않고 오한(惡寒)이 있는 것은 상한(傷寒)이므로 발한시켜야 한다. 땀이 나고 오풍(惡風)이 있는 것은 중풍(中風)이므로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만약 이증(裏證)이 심한데 오풍(惡風)이 풀리지 않은 것은 더욱 먼저 겉(表)를 풀어야 한다. 삼양(三陽)과 풍습(風濕)에 모두 이 증상이 있으니 구분해야 한다.

太陽中風，陽浮陰弱，惡風自汗，發熱鼻喝¹，乾嘔，桂枝湯。

태양병 중풍(中風)으로 양맥(陽脈)이 부(浮)하고 음맥(陰脈)이 약(弱)하며, 오풍(惡風)과 자한(自汗)이 있고, 열이 나고 코를 골며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012】

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疼，惡風，無汗而喘，麻黃湯。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우리하고 허리가 아프며 뼈마디가 쑤시고 오풍(惡風)이 들며 땀이 나지 않고 숨이 찰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發汗太過，衛虛亡陽，遂漏不止而惡風者，法當用溫，桂枝附子湯。

지나치게 한법을 사용하여 위기(衛氣)가 허약하고 망양(亡陽)이 되어 결국 땀이 그치지 않고 오풍(惡風)이 생긴 경우에는 온법(溫法)을 써야만 하므로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쓴다.

小便難，四肢微急，難以屈伸，治與上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사지가 조금 당겨 굽혔다 폈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쓴다.

若吐、若下後七八日不解，表裏俱熱，時惡風，大渴，舌乾燥而煩，白虎加人參湯。

토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7-8일이 되어도 병이 낫지 않고 표리(表裏)에서 모두 열이 나며 때때로 오풍(惡風)이 들고 갈증이 심하며 혀가 마르고 가슴이 갑갑하면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

汗不止，必惡風，煩燥不得臥，先防風白朮牡蠣湯，次小建中湯。

땀이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오풍(惡風)이 있으며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먼저 방풍백출모려탕(防風白朮牡蠣湯)을 쓰고 다음으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風濕惡風，不欲去衣，骨節煩疼，不得屈伸，汗出短氣，小便不利，或身微腫，甘草附子湯。

풍습(風濕)에 오풍(惡風)으로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 구부렸다 폈다 하지 못하며 땀이 나고 숨이 짧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몸이 조금 붓기도 하는 경우에는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을 쓴다.

脈浮，身重，汗出惡風，防己黃耆湯。

맥이 부(浮)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고 오풍(惡風)이 들 때는 방기황기탕(防己黃耆湯)을 쓴다.

1. 鼻喝 : 鼻鳴 ※《상한론》【012】↩



惡寒 오한

惡寒者, 不見風¹惡寒, 身雖熱亦不欲去衣被。其風寒客于榮衛, 陰氣上入陽中, 則洒淅而惡寒也。經曰, 發熱惡寒者, 發於陽也。無熱惡寒者, 發於陰也。謂如或已發熱, 或未發熱, 必先惡寒, 而繼之以發熱, 此則發於陽也。若初病惡寒而倦, 脈沈細而緊, 此則爲熱發於陰也。在陽則發汗, 在陰則溫裏。或下證悉具而微惡寒者, 是表猶未解, 當先解表, 而後攻裏。若少陰病, 惡寒而倦, 手足厥冷, 自利, 燥煩, 脈不至者, 又爲不治之證。

오한(惡寒)은 바람이 없을 때도 한기가 드는 것으로, 몸에서 열이 나더라도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으려한다. 풍한(風寒)이 영위(榮衛)에 침입하여 음기(陰氣)가 올라와 양(陽) 속으로 들어가면 오싹하면서 오한(惡寒)이 든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은 병이 삼양(三陽)에서 생겨난 경우이고, 열이 나지 않고 오한이 드는 것은 병이 삼음(三陰)에서 생겨난 경우이다."【007】 만약 이미 열이 났거나 아직 나지 않았거나 반드시 먼저 오한이 있고 이어서 열이 난다고 한다면 병이 삼양에서 생겨난 것이다. 만약 처음 병이 들었을 때 오한이 들고 몸을 웅크리며 맥이 침(沈)·세(細)하며 긴(緊)하면 병이 삼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병이 양분(陽分)에 있으면 땀을 내고, 음분(陰分)에 있으면 속을 덥힌다. 만약 공하시켜야 할 증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라도 조금 오한이 드는 것은 겉(表)이 여전히 모두 풀리지 않은 경우이므로 먼저 겉(表)을 푼 뒤에 속(裏)을 공하시켜야 한다. 만약 소음병에 "오한이 들고 웅크리며 손발이 차고 설사를 하는 경우"【295】, "번조(燥煩)가 있는 경우"【296】, "맥이 짙이지 않는 경우"【298】는 치료할 수 없는 증상이다.

太陽病, 發熱, 或未發熱, 惡寒²。有汗, 桂枝湯, 無汗, 麻黃湯。

태양병에는 열이 나거나 혹은 나지 않거나 모두 오한이 든다. 땀이 날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땀이 나지 않을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病發熱惡寒，熱多寒少，脈微弱者，無陽也，不可發汗，越婢湯³。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데 발열이 많고 오한이 적으며 맥이 미약할 때는 양기(陽氣)가 없는 것이니 한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월비탕(越婢湯)을 쓴다.

陽明病固宜下，微惡寒⁴者，係與太陽合病，在經，屬表，可發汗，麻黃湯。若脈遲汗多，微惡寒者，表未解也，雖陽明證，可桂枝湯。

양명병에는 하법을 써야 한다. 그러나 오한이 있을 때만은 태양과 합병(合病)이 된 상태로서 사기(邪氣)가 경맥에 있고 표증(表證)에 해당하여 한법을 써야 하므로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만약 맥이 지(遲)하고 땀이 많으며 조금 오한이 날 때는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비록 양명증이라도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한다.

少陽病，頭汗出，微惡寒，柴胡桂枝湯。

소음병에 머리에서 땀이 나고 조금 오한이 들 때는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發熱汗出，後惡寒而嘔⁵，但心下痞者，五苓散。發汗後惡寒者，虛也，芍藥附子甘草湯⁶。

열이 나고 땀이 났다가 그런 뒤에 오한이 들고 구역질을 하며 심하만 막혔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한법을 쓴 뒤에 오한이 드는 것은 허증이다. 작약감초부자탕(芍藥甘草附子湯)을 쓴다.

惡寒，脈微而復利，正亡血也，四逆湯加人參。汗後惡寒，脈細數浮遲，嘔不止，理中丸。

오한이 들고 맥이 미(微)한데 다시 설사를 하는 것은 바로 혈이 없어진 경우〔亡血〕이니 사역가인삼탕(四逆加人參湯)을 쓴다.【385】한법을 쓴 뒤에 오한이 들고 맥이 세(細)、삭(數)、부(浮)、지(遲)하며 구역질이 멈추지 않을 때는 이중환(理中丸)을 쓴다.

大下後復發汗，心下痞而惡寒，表未解也，當先解表，桂枝湯，後攻痞，三黃瀉心湯⁷。

크게 하법을 쓴 뒤에 다시 한법을 써서 심하가 막히고 오한이 들면 표증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먼저 계지탕으로 표증을 풀고 삼황사심탕으로 비증(痞)을 치료해야 한다.【164】

太陽病，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若微惡寒者，桂枝加芍藥附子湯⁸。

태양병에 하법을 쓰고 나서 맥이 축(促)하고 가슴이 그득할 때는 계지거작약탕(桂枝去芍藥湯)을 쓴다.【021】 만약 조금 오한이 들면 계지거작약가부자탕(桂枝去芍藥加附子湯)을 쓴다.【022】

少陰病，脈沈細，惡寒者，四逆湯。若下利，惡寒而倦，手足溫者，小建中湯。若惡寒而倦，時時自煩，不欲厚衣，大柴胡湯。

소음병에 맥이 침(沈)、세(細)하고 오한(惡寒)이 들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만약 설사를 하고 오한이 들며 몸을 웅크리고 손발이 따뜻할 때는【288】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만약 오한이 들고 웅크리며 때때로 이유 없이 번(煩)이 생겨 두터운 옷을 입으려 하지 않을 때는【289】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亡血家，不可發汗，汗之則寒慄而振，小柴胡湯、芍藥湯。

평소 출혈을 많이 한 사람(亡血家)에게는 한법을 써서는 안된다. 한법을 사용하면 오한이 들면서 몸을 덜덜 떨게 된다.【087】 소시호탕(小柴胡湯)이나 작약탕(芍藥湯)을 쓴다.

脈弱者，不可發汗，汗之則寒慄不能自還，當歸四逆湯。

맥이 약한 사람에게에는 한법을 써서는 안된다. 한법을 사용하면 오한으로 덜덜 떨며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1. 亦 : ㉾而 ※《상한유서》↩
2. 惡寒 : ㉾皆惡寒 ※《상한유서》↩
3. 越婢湯 : 桂枝二越婢一湯 ※《상한론》【027】↩
4. 微惡寒 : ㉾惟惡寒 ※《상한유서》↩
5. 嘔 : 不嘔 ※《상한론》【244】↩
6. 芍藥附子甘草湯 : 芍藥甘草附子湯 ※《상한론》【068】↩
7. 三黃瀉心湯 : 大黃黃連瀉心湯 ※《상한론》【164】↩
8. 桂枝加芍藥附子湯 : ㉾桂枝去芍藥加附子湯 ※《상한론》【022】↩

背惡寒 배오한

背爲陽，腹爲陰。背惡寒，陽不足也。陽不足，則陰氣盛。陰氣盛者，口中和。陽氣內陷者，口乾燥。附子、白虎。宜加詳審。

등은 양(陽)에 해당하고, 배는 음(陰)에 해당한다. 등이 시린 것은 양기(陽氣)가 부족한 경우이다. 양기가 부족하면 음기(陰氣)가 왕성하게 된다. 음기가 왕성하면 입이 촉촉하다. 양기가 안으로 무너지면 입이 마른다. 음기가 왕성하면 부자탕(附子湯)을 쓰고, 양기가 안으로 침범했을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더욱 자세히 살펴야 한다.

口中和，背惡寒者，屬少陰，附子湯及灸氣海。陽氣內陷，口乾燥，背惡寒，白虎湯¹。

입안이 촉촉하고 등이 시린 경우는 소음에 속하니 부자탕(附子湯)을 쓰고 기해(氣海)에 뜸을 뜬다.【304】양기가 안으로 침범해 입이 마르고 등이 시릴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169】

¹. 白虎湯：白虎加人蔘湯 ※《상한론》【169】↩

寒熱 한열

寒熱往來者，陰陽相勝，邪正相爭而作也。蓋陽不足，則陰邪出於表而與之爭，故陰勝而爲寒。陰不足，則陽邪入於裏而與之爭，故陽勝而爲熱。邪居表多，則多寒。邪居裏多，則多熱。邪在半表半裏，則寒熱相半，乍往乍來而問¹作也。小柴胡湯專主寒熱，寒多者加桂，熱多者加大黃，是大法也。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는 증상은 음양이 서로 경쟁하며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다투어 생겨난다. 양기(陽氣)가 부족하면 음사(陰邪)가 겉으로 나와 양기와 다투기 때문에 음사가 우세하여 오한이 나타난다. 음기(陰氣)가 부족하면 양사(陽邪)가 속으로 들어가 음기와 다투기 때문에 양사가 우세하여 발열이 나타난다. 사기(邪氣)가 겉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오한이 많이 나타나고, 사기(邪氣)가 속에 많이 머물러 있으면 발열이 많이 나타난다. 사기(邪氣)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으면 오한과 발열이 서로 절반씩 있어 잠깐 밀려왔다가 잠깐 물러갔다가 하며 번갈아 생겨난다. 소시호탕(小柴胡湯)은 주로 한열왕래를 치료한다. 오한이 더 많이 나타나면 계지(桂枝)를 더하고, 발열이 더 많이 나타나면 대황(大黃)을 더한다. 이것이 주된 방법이다.

太陽病八九日，如瘧狀，發熱惡寒，熱多寒少，不嘔，清便自可，一日二三度發，桂枝麻黃各半湯，脈微緩者，不可汗，宜越婢湯²。

태양병 8-9일에 학질과 같이 발열과 오한이 드는데, 발열이 길고 오한이 짧으며, 구역질을 하지 않고 대소변이 잘 나오며, 오한과 발열이 하루 2-3차례 생겨날 때는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023】 맥이 미(微)·완(緩)할 때는 한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계지이월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을 쓴다.【027】

病至十余日，熱結在裏，往來寒熱，大柴胡湯。心煩發嘔，胸膈滿，不欲食，寒熱往來，小柴胡湯。

발병한 지 10여일에 속(裏)에 열이 맺혀 한열왕래의 증상이 생겼을 때에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136】 가슴이 갑갑하고 구역질이 나며 흉격(胸膈)이 그득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한열왕래의 증상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096】

汗下後, 不嘔不渴³, 頭汗出, 胸膈滿, 小便不利, 寒熱往來, 柴胡桂姜湯.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구역질도 갈증도 없고, 머리에서 땀이 나며, 흉격(胸膈)이 그득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한열왕래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시호계강탕(柴胡桂薑湯)을 쓴다.【147】

熱多寒少, 尺脈遲者, 榮血不足, 黃耆建中湯. 脈浮大, 寒熱往來, 宜祛邪.

발열이 길고 오한이 짧을 때 척맥(尺脈)이 지(遲)한 것은 영혈(榮血)이 부족한 경우이다. 황기건중탕(黃耆建中湯)을 쓴다. 맥이 부(浮)·대(大)하고 한열왕래의 증상이 있으면 사기(邪氣)를 제거해야 한다.

凡婦人中風七八日, 續得寒熱, 發作有時, 經水適斷, 爲熱入血室, 小柴胡湯.

부인이 중풍(中風) 7 - 8일에 계속 오한과 발열이 생겨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마침 월경이 끝나는 경우는 열(熱)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것이다.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144】

1. 問 : 問 ※문맥상 ↩

2. 越婢湯 : 桂枝二越婢一湯 ※《상한론》【027】 ↩

3. 不嘔不渴 : 渴而不嘔 ※《상한론》【147】 ↩

潮熱 조열

潮熱，屬陽明，陽明旺於未申，一日一發，日晡而作也。邪入胃腑，爲可下之證。設或脈浮而緊，潮熱而利，或小便難，大便溏者，熱未入腑，猶帶表邪，先當和解其外。如小便利¹，大便硬，方可攻之。若潮熱於寅卯，寅卯則屬少陽，潮於巳午，則屬太陽，是又不可不辯。

조열(潮熱)은 양명(陽明)에 속한다. 양명의 기운은 미신시(未申時)에 왕성해 지므로 하루 한 번 해질 무렵에 나타난다. 사기(邪氣)가 위(胃)로 들어간 것으로 하법을 써야 하는 증상이다. 만약 맥이 부(浮)하고 긴(緊)하며, 조열(潮熱)이 나고 설사를 하며, 더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대변이 묽은 경우는 열이 아직 부(腑)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다만 여기에 표사(表邪)를 동반한 경우는 먼저 표증을 풀어야 한다. 만약 소변이 평소처럼 잘 나오고 대변이 단단하다면 하법을 쓸 수 있다. 조열(潮熱)이 인묘시(寅卯時)에 나타나는 경우는 인묘시가 소양에 속하고, 사오시(巳午時)에 나타나는 경우는 태양에 속한다. 이 또한 구분해야 한다.

病人煩熱，汗出則解，又如瘧狀，日晡潮熱，脈實，可下，小承氣湯，或大柴胡，脈虛者，不可下，桂枝湯。

환자가 번열(煩熱)이 있어 한법을 쓰고 나았는데 다시 학질(瘧)과 같이 해질 녘 열이 날 때, 맥이 실(實)하면 하법을 써야 하므로 소승기탕(小承氣湯)이나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쓰고, 맥이 허(虛)하면 하법을 써서는 안되므로 계지탕(桂枝湯)을 쓴다.【240】

陽明病，潮熱，大便微硬者，大承氣湯。陽明病，脈浮而緊，必潮熱，發作有時，但脈浮者，必盜汗出，柴胡桂枝湯。

양명병에 조열이 나타나고 대변이 조금 단단할 때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209】양명병에 맥이 부(浮)하고 긴(緊)하면 반드시 조열(潮熱)이 생겨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맥이 부(浮)할 때는 반드시 도한(盜汗)이 난다.【201】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腹滿，不大便，潮熱，小承氣湯微利之。

배가 그득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며 조열이 있을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약간 설사시킨다.

1. 小便利：☞小便如常 ※《상한유서》☞

似瘧 사학

似瘧，一名瘧狀，作止有時，非若寒熱往來無定也。

'학질과 같은 경우(似瘧)'를 '학질의 증상 같다고(瘧狀)'도 하는데, 규칙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한열왕래와는 다르다.

大陽似瘧，脈¹伏洪¹，桂枝湯，清便自可，不嘔，一日二三度發，桂枝麻黃各半湯。

태양병에 학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맥이 부(浮)·홍(洪)하면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대소변이 잘 나오고 구역질을 하지 않으며 하루에 2 - 3차례 증상이 나타나면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023】

陽明似瘧，煩熱汗出，日晡發熱，脈浮，桂枝湯，脈實，承氣湯。

양명병에 학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번열(煩熱)이 생겨 땀이 나고 해질 녘에 열이 난다. 맥이 부(浮)하면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맥이 실(實)하면 승기탕(承氣湯)을 쓴다.【240】

婦人熱入血室，其血必結，亦如瘧狀，小柴胡湯。

부인의 병에 열(熱)이 혈실(血室)로 침입하면 혈(血)이 멎히게 되고 또한 학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144】

熱多寒少，陽乘陰也。若尺脈遲，爲血少，先以黃耆建中湯養其榮衛。脈不遲，却以小柴胡湯、桂枝²越婢湯²選用之。

발열이 길고 오한이 짧은 것은 양(陽)이 음(陰)을 침범한 경우이다. 만약 척맥(尺脈)이 지(遲)하면 혈(血)이 적은 것이니 먼저 황기건중탕(黃耆建中湯)으로 영위(榮衛)를 기른다. 맥이 지(遲)하지 않으면 소시호탕(小柴胡湯)、계지이월

비일탕(桂枝二越婢一湯)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厥陰, 脈浮緩, 囊不縮, 必發熱惡寒, 似瘡, 爲欲愈, 桂枝麻黃各半湯。

겉음병에 맥이 부(浮)、완(緩)하고 음낭이 수축되지 않으면 분명 학질과 같이 발열과 오한이 나타난다. 이것은 병이 나으려는 것이다.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쓴다.

溫瘧, 其脈如平, 身無寒但熱, 骨節煩疼, 時嘔, 白虎湯加桂, 渴者, 柴胡加人參括藁湯。

온학(溫瘧)에 맥이 평소와 같고 몸에 오한이 없이 발열만 있으며 뼈마디가 매우 아프고 때때로 구역질을 할 때는 백호가계지탕(白虎湯加桂枝湯)을 쓴다. 갈증이 있을 때는 시호가인삼과루탕(柴胡加人參括藁湯)을 쓴다.

1. 伏洪 : ㉔浮洪 ※이존제각본 ㄱ

2. 桂枝二越婢湯 : ㉔桂枝二越婢一輩 ※《상한유서》 ㄱ

無汗 무한

無汗，寒邪中經，腠理閉密，津液內滲而無汗也。若風、暑、濕干之，則自汗出矣。當汗之證，與麻黃湯三劑而不得汗者，此又不可療也。

땀이 나지 않는 것은 한사(寒邪)가 경맥(經脈)에 침입하여 주리(腠理)가 닫힌 경우로 진액(津液)이 안으로 스며들어 땀이 나지 않는다. 만약 풍(風)·서(暑)·습(濕)이 침입하면 자한(自汗)이 나온다. 한법을 써야하는 증상에 마황탕(麻黃湯) 3제를 써도 땀이 나지 않을 때는 치료할 수 없다.

太陽，**當熱**¹，無汗，頭痛，麻黃湯。項背強兀兀，無汗，葛根湯。剛瘧，發熱惡寒，無汗，葛根湯或小續命湯。

태양병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머리가 아플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뒷목과 등이 매우 뻣뻣하고 땀이 나지 않을 때는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강치(剛瘧)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땀이 나지 않을 때는 갈근탕(葛根湯)이나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쓴다.

脈浮，發熱，無汗，表不解者，麻黃湯。汗不止，白虎湯。渴欲飲水，無表證者，白虎加人參。

맥이 부(浮)하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고 표증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땀이 멈추지 않을 때는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고 표증이 없을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

陽明，反無汗，脈浮而喘者，麻黃湯。若無汗，小便不利，心中懊憹，身必發黃，五苓散加茵陳。

양명병에 도리어 땀이 나지 않고 맥이 부(浮)하며 숨이 찰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만약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가슴 속이 괴로우면 몸이 분명 누렇게 된다.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쓴다.

1. 當熱 : 發熱 ※문맥상 ↩



自汗 자한

衛氣者，所以肥¹腠理而固津液者也。衛爲邪所干，不能衛護於外，由是而汗出焉。且自汗者，有表裏虛實之分。若自汗出，惡風寒，爲表未解，當解肌，以致汗泄惡風，與汗後惡寒，皆爲表虛，必用溫劑。若汗出，不惡風寒，則爲表解裏未和，從下之。設或汗出髮潤，如油如珠，凝而不流，皆不可治也。

위기(衛氣)는 주리(腠理)를 살지우고 진액(津液)을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 위기에 사기(邪氣)가 침범하면 겉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로 말미암아 땀이 나오게 된다. 또 자한(自汗)에는 표(表)、리(裏)、허(虛)、실(實)의 구분이 있다. 만약 자한이 날 때 오통이나 오한이 드는 것은 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경우이니 해기(解肌)시켜야 하며, 땀이 나면서 오통이 드는 것과 한법을 쓴 뒤에 오한이 드는 것은 모두 표허(表虛)이므로 반드시 따뜻한 성질의 처방을 써야 한다. 만약 땀이 날 때 오통이나 오한이 없는 것은 겉이 풀렸으나 속은 아직 낫지 않은 경우이니 하법을 사용한다. 만약 땀이 날 때 머리칼이 축축하거나, 기름이나 구슬처럼 땀이 응결되어 흐르지 않는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없다.

太陽中風，自汗，脈浮緩，桂枝湯。汗出而渴，小便難，五苓散，不渴者，茯苓甘草湯。自汗出，小便難²，而用³桂枝，惟加芍藥甘草⁴。自汗出，小便不數⁵，心煩，微惡寒，脚攣急，桂枝附子⁶。

태양병 증풍에 자한(自汗)이 나고 맥이 부(浮)、완(緩)할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땀이 나며 갈증이 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쓰고 갈증이 없을 때는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을 쓴다.【073】자한이 나며 소변이 잦을 때 계지탕(桂枝)을 써서는 안되며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을 써야 한다. 자한이 나고 소변이 잦지 않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 오한이 있으며 다리가 당길 때는【029】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에 인삼을 더하여 쓴다.

陽明，汗多而渴，發熱譫語，大便硬，調胃承氣湯。

양명병에 땀이 많이 나고 갈증이 있으며 열이 나고 섬어(譫語)가 있으며 대변이 단단할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太陽病，發汗，遂漏不止，惡風寒，桂枝附子湯。

태양병에 한법을 쓴 뒤에 땀이 멈추지 않고 오통과 오한이 들 때는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쓴다.

若小便自利而汗出，爲津液少，不可攻利，宜蜜導煎通之。若汗多者，胃汁乾，急下之，大承氣湯。

만약 소변이 잘 나오고 땀이 나면 진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공하시켜서는 안되며 밀도전(蜜導煎)으로 대변을 통하게 해야 한다. 만약 땀을 많이 흘리면 위(胃)의 진액(汁)이 메마르게 되므로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汗多而渴，勿用五苓散。

땀이 많이 나고 갈증이 있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써서는 안된다.

汗不止，無他證者，溫粉撲之。服桂枝湯，大汗出，煩渴不解，脈洪大者，白虎加人參。

땀이 멈추지 않고 다른 증상이 없을 때는 온분(溫粉)을 발라준다. 계지탕을 복용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심한 갈증이 풀리지 않고 맥이 홍대(洪大)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으로 치료한다.【026】

下後，不可更用桂枝湯。

하법을 쓴 뒤에 다시 계지탕(桂枝湯)을 써서는 안된다.

若汗而喘，無大熱者，麻黃杏仁甘草石膏湯。

만약 땀이 나고 숨이 차며 열이 심하지 않을 때는 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쓴다.

1. 肥 : 密 ※《상한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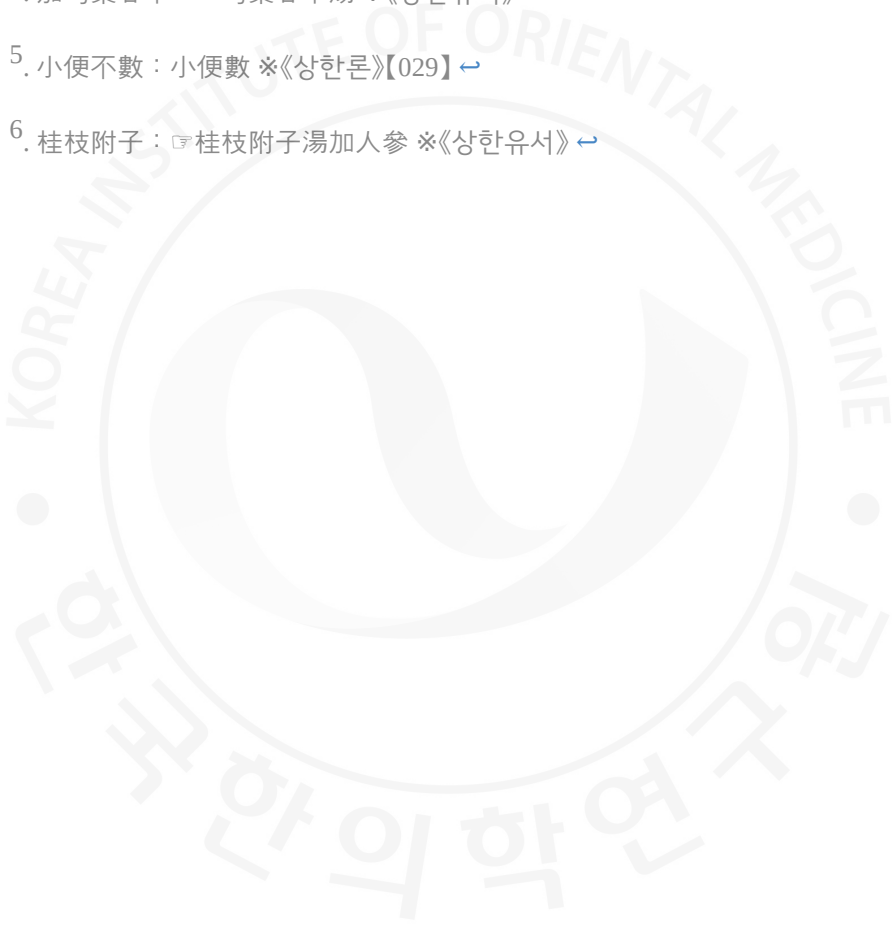
2. 難 : 𠄎數 ※《상한유서》↩

3. 而用 : 𠄎勿用 ※《상한유서》↩

4. 加芍藥甘草 : 𠄎芍藥甘草湯 ※《상한유서》↩

5. 小便不數 : 小便數 ※《상한론》【029】↩

6. 桂枝附子 : 𠄎桂枝附子湯加人參 ※《상한유서》↩



頭汗¹ 두한

諸陽經絡循於頭，三陰則至項而還。頭汗者，邪搏諸陽，則汗見於頭也。若遍身汗者，爲之熱越。令熱不得越而陽氣上騰，津液上腴，故但頭汗耳。夫表虛²則不可下，內溷則不宜汗。頭汗之證，更不可再汗也。其或瘀血在裏³，與夫熱入血室，虛煩水結，皆令頭汗。此爲熱鬱於內而上達，或吐或下，以去其邪。設或小便不利，內外關格而頭汗，則爲陽脫。誤下濕家，額上汗出而喘，小便難，小便利⁴，亦爲陽脫。二者皆不療矣。《百問》，表實裏虛。故頭汗不可下。

모든 삼양(三陽)의 경락(陽經絡)은 머리를 지나고, 삼음(三陰)의 경락은 목에서 되돌아 간다. 머리에서 나는 땀은 사기(邪氣)가 삼양(三陽)에 침입하여 머리에서 땀이 나타나는 것이다. 온몸에 두루 나는 땀은 열(熱)이 흠어지는(越) 것이다. 열이 흠어지지 않고 양기(陽氣)가 위로 솟으면 진액(津液)이 위쪽으로 몰리게 되므로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속이 허하면 하법을 쓸 수 없고, 내부가 메마르면 한법을 쓸 수 없다. 머리에서 땀이 나는 증상에는 다시 한법을 쓸 수 없다. 어열(瘀熱)이 속(裏)에 있는 경우【236】와 열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경우【216】, 그리고 허번(虛煩)과 수결흉(水結胸)【136】에도 모두 두한(頭汗)이 있다. 이는 속에서 울체된 열(熱)이 위로 도달한 것이니 토법이나 하법으로 사기(邪氣)를 제거한다. 만약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안팎이 막혔을 때 머리에서 땀이 나면 양기(陽氣)가 허탈된 것이다. 습(濕)이 많은 사람에게 잘못 하법을 사용하여 이마 위에서 땀이 나고 숨이 차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설사를 하는 것도 양기가 허탈된 경우이다. 이 2가지는 모두 치료할 수 없다. 《상한백문(傷寒百問)》에서 말하였다. "겉이 실(實)하고 속이 허(虛)하여 머리에서 땀이 난다. 그러므로 두한(頭汗)에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⁵

發黃，頭汗及項⁶而止，小便難，引水漿，此濕也，茵陳蒿、茵陳五苓散⁷。

발황(發黃)에 머리에서 목까지만 땀이 나며 소변이 잘 나오기 않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습사(濕邪)이다. 인진호탕(茵陳蒿湯)·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쓴다.

心結胸⁸, 心¹⁰忪滿, 無大熱, 頭汗出, 半夏茯苓湯⁹。

수결흉(水結胸)으로 심하까지 두근거리고 그득하며, 심한 열은 없으나 머리에 서 땀이 날 때는 소반하가복령탕(小半夏加茯苓湯)을 쓴다.

譫語, 頭汗, 是爲血熱, 屬陽明, 用承氣湯。若心中懊憹而頭汗者, 梔子豉湯。

섬어(譫語)를 하며 두한(頭汗)이 있는 것은 혈열(血熱) 때문으로 양명(陽明)에 속한다. 승기탕(承氣湯)을 쓴다. 만약 가슴 속이 괴롭고 머리에서 땀이 날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半表半裏, 有柴胡證, 並小柴胡湯。熱寒往來, 微惡寒, 爲表。脇下滿, 大便堅, 爲裏。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어 소시호탕(小柴胡湯)의 증상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준다.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거나 조금 오한이 드는 것은 표증(表證)이다.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고 대변이 단단한 것은 이증(裏證)이다.

1. 頭汗: 원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문맥상 추가하였다. ↩

2. 表虛: ㉠裏虛 ※《상한유서》↩

3. 瘀血在裏: ㉠瘀熱在裏 ※《상한론》【236】↩

4. 小便利: ㉠下利不止 ※《금궤요략》↩

5. "환자가 겉이 실하고 속이 허하여 땀구멍이 열리지 않으면 양기(陽氣)가 위로 올라 머리에서 땀이 난다. 두한(頭汗)은 오장이 속으로 메말랐거나 자궁 속이 공허하여 진액이 적어진 경우이니, 삼가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病人表實

裏虛，玄府不開，則陽氣上出，汗見於頭。凡頭汗出者，五內乾枯，胞中空虛，津液少也，慎不可下。) ※《활인서》 [↩](#)

6. 項：頸 ※《상한유서》 [↩](#)

7. 茵陳五苓散：五苓散 ※《상한유서》 [↩](#)

8. 心結胸：☞水結胸 ※《상한유서》 [↩](#)

10. 心：☞心下 ※《상한유서》 [↩](#)

9. 半夏茯苓湯：☞小半夏加茯苓湯 ※《상한유서》 [↩](#)

手足汗 수족한

四肢者，諸陽之本，熱聚於胃，則津液傍達于手足也。蘊熱，則燥煩譫語，挾寒，則水穀不分。是又承氣、理中之不同。

사지(四肢)는 모든 양기(陽氣)의 근본이다. 열(熱)이 위(胃)에 모이면 진액(津液)이 옆으로 손과 발까지 도달한다. 열이 쌓이면 번조(煩躁)와 섬어(譫語)가 있고, 한(寒)이 동반되면 수곡(水穀)의 청탁(淸濁)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 또한 승기탕(承氣湯)과 이중탕(理中湯)의 차이이다.

陽明病，手足皸皸汗出，譫語，大便難，與承氣湯。陽明中寒，不能食，小便不利，手足汗出，大便初硬後溏，**水穀不分**¹，與理中湯。一法用猪苓湯。

양명병에 손발에서 축축하게 땀이 나고 섬어(譫語)를 하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승기탕(承氣湯)을 쓴다.【220】양명병에 중한(中寒)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손발에서 땀이 나오고, 대변이 처음에는 단단하다 나중에는 설사를 하며 수곡(水穀)의 청탁(淸濁)이 나뉘어지지 않을 때는 이중탕(理中湯)을 쓴다.【191】다른 곳에는 저령탕(猪苓湯)을 쓴다고도 하였다.

¹. 水穀不分：水穀不別 ※《상한론》【191】↩

盜汗 도한

盜汗者，睡着則汗出，覺則便不出矣。雜病責於陽虛，傷寒責在半表半裏，故知膽有熱也。

도한(盜汗)은 잠을 잘 때 땀이 나고, 잠이 깨면 곧 땀이 나지 않는 것이다. 잡병에는 양허(陽虛) 때문이고, 상한에는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膽)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陽明病，脈浮緊，潮熱盜汗，柴胡桂枝湯。脈浮大，欲眠，目合則汗，小柴胡湯，又柴胡桂枝湯。

양명병에 맥이 부(浮)·긴(緊)하고 조열(潮熱)이 있으며 도한(盜汗)이 날 때는【201】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맥이 부(浮)·대(大)하고 잠을 자려고 하며 눈을 감으면 땀이 날 때는【268】소시호탕(小柴胡湯)이나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煩熱 번열

邪熱傳裏，不經發汗吐下則爲煩熱，與發熱似同而異。經曰，病人發熱¹，汗出則解。如未作膈熱²，但當和解微熱而已。若心下滿而煩，則有吐下之異，宜別其證之虛實而爲劑之輕重也。先煩而悸者，爲實。先悸而煩者，爲虛。虛煩而心中欲嘔吐鬱悶之狀。

사열(邪熱)이 속으로 전경(傳經)되어 한법·토법·하법을 겪지 않았으나 생겨난 번열(煩熱)은 발열(發熱)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환자에게 번열이 날 때 한법을 쓰면 풀어진다."【240】아직 흉격(胸膈)이 실하지 않으면 다만 미열을 화해시킨 뒤에 낫는다. 만약 심하가 그득하며 번(煩)이 날 때는 토법을 쓸 때와 하법을 쓸 때의 차이가 있으니, 증상의 허실을 구분하여 처방의 경중을 결정한다. 먼저 번(煩)이 난 뒤에 계(悸)가 있으면 실증(實證)이고, 먼저 계(悸)가 있는 뒤에 번(煩)이 나타나면 허증(虛證)이다. 허번은 가슴 속에서 구역질이 나며 갑갑한 증상이다.

太陽病，心煩，自汗，小便數者，不可與桂枝湯，宜芍藥甘草湯。服桂枝湯後，出汗後煩渴³者，脈洪大，白虎加人參湯。

태양병에 심번(心煩)과 자한(自汗)이 있고 소변이 잦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써서는 안되며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을 써야한다. 계지탕을 복용시켜 땀을 낸 다음 갈증이 심하고 맥이 홍(洪)·대(大)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

陽明病，心煩喜嘔，壯熱往來⁴，心下悸，小便不利，小柴胡湯加茯苓。傷寒二三日，心中悸而煩，小建中湯。

양명병에 심번(心煩)이 있고 쉽게 구역질을 하며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고 심하까지 두근거리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복령(茯苓)을 더하여 사용한다.【096】상한 2 - 3일에 가슴 속이 두근거린 뒤에 번

(煩)이 나타났을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發汗後解，半日許復煩，脈浮數者，可更發汗，桂枝湯。

땀을 낸 뒤에 병이 풀렸으나 반일 즈음 뒤에 다시 번(煩)이 나타나며 맥이 부(浮)·삭(數)할 때는 다시 발한시켜야 한다.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衄而煩渴者，飲則吐水，五苓散，不愈，竹葉石膏湯。

코피가 나고 갈증이 심한데 물을 마시면 토해낼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낮지 않으면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下後晝煩夜靜，不渴不嘔，無表證，脈微沈，乾姜附子湯。若懊憹，與梔子豉豉湯。

하법을 쓴 뒤에 낮에 번(煩)이 낮다가 밤에 안정되며, 갈증도 구역질도 없고, 표증도 없으며 맥이 미(微)·침(沈)할 때는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을 쓴다.
가슴 속이 괴롭우면(懊憹) 치자두시탕(梔子豉豉湯)을 쓴다.

若發汗，若下之，病仍不解而煩燥者，茯苓四逆。太下後六七日不大便，不解⁵，腹滿痛者，有燥屎，大承氣湯。吐汗下後虛煩，心下痞滿，氣上衝胸，頭眩，身爲振搖，茯苓桂枝白朮甘草湯。

만약 한법이나 하법을 썼으나 병이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번조(煩躁)가 있을 때는 복령사역탕(茯苓四逆湯)을 쓴다.【069】크게 하법을 쓴 뒤에 6 - 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고 번(煩)이 풀리지 않으며 배가 그득하고 아픈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이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241】토법이나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이 나타나고 심하가 막혀 그득하며 기운이 솟구쳐 가슴을 치받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몸이 떨릴 때는 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을 쓴다.【067】

腎傷寒，表裏無熱，但煩憤，不欲見光明，有時腹痛，其脈沈細，四逆湯。

신상한(腎傷寒)은 겉과 속에 열이 없으나 단지 번(煩)으로 괴롭고 밝은 빛을 보려고 하지 않으며 때때로 배가 아프다. 이때 맥이 침(沈)·세(細)하면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1. 發熱 : ㉔煩熱 ※《상한론》【240】↩

2. 膈熱 : ㉔膈實 ※《상한가비적본》↩

3. 煩渴 : 煩躁 ※《상한유서》↩

4. 壯熱往來 : ㉔往來寒熱 ※《상한론》【096】↩

5. 不解 : ㉔煩不解 ※《상한론》【241】↩

煩燥 번조

煩爲擾亂而燥爲憤怒，燥¹爲先煩而漸至躁也。傷寒煩燥，則有陰陽虛實之別。心熱則煩，陽實陰虛。腎熱則燥，陰實陽虛。煩則熱之輕，燥則熱之甚也。有邪在裏而煩燥者，有不煩便作燥悶者，此爲陽盛隔陰，欲於泥水中臥，飲水不得入口也。

번(煩)은 불안하여 혼란스러운 것이고, 조(躁)는 분노가 치미는 것이다. 번조(煩躁)는 먼저 번(煩)이 생겼다가 점차 조(躁)가 되는 것이다. 상한의 번조에는 음양허실의 구분이 있다. 심열(心熱)이 있으면 번이 생기는데, 양(陽)이 실(實)하고 음(陰)이 허(虛)한 것이다. 신열(腎熱)이 있으면 조(躁)가 생기는데, 음(陰)이 실(實)하고 양(陽)이 허(虛)한 것이다. 번은 열이 가벼운 것이고, 조는 열이 심한 것이다. 사기(邪氣)가 속에 있으면서 번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번(煩)이 없다가 바로 조(躁)가 생겨 갑갑한 경우도 있다. 후자는 양(陽)이 왕성하여 음(陰)을 가로막은 것으로, 진흙탕 속에 눕고자 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한다.

其或結胸證²而煩燥，吐利四逆而煩燥，下利，發熱，厥逆，煩燥不得眠，惡寒燥攣³，脈不出而燥者，皆爲不可治矣。

결흉증(結胸證)이 갖추어져 있고 번조가 있는 경우【133】, 구토와 설사를 하고 팔다리가 싸늘한데 번조가 있는 경우【298】, 설사를 하고 열이 나며 손발이 차가운데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344】, 오한이 들고 몸을 움크리며 맥이 짚히지 않고 조(躁)만 있는 경우【298】는 모두 치료할 수 없다.

太陽中風，脈浮緊，熱而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大青龍湯。得病二三日，脈弱，無太陽證、柴胡湯證，煩燥，心下硬，能食，小承氣湯微和之。心中悸而煩燥者，小建中湯。

태양병 증풍에 맥이 부(浮)·긴(緊)하고 열이 나며 오한이 들고 몸이 아픈데 땀이 나지 않고 번조(煩躁)가 나타날 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쓴다.【038】
병을 얻은지 2 - 3일 쯤에 맥이 약(弱)하고, 태양증이나 시호증은 없으나 번조(煩躁)가 있으며 심하(心下)가 단단하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조금씩 써서 위기(胃氣)를 약간 조화시킨다.【251】 가슴 속이 두근거리고 번조가 있을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102】

惡風自汗，脈濡弱而煩燥者，皆宜用此法。

오통이 들고 자한(自汗)이 나며 맥이 유(濡)·약(弱)하면서 번조가 있을 때는 모두 이 치법을 써야 한다.

但發熱六七日，渴欲飲水者，五苓散。無熱，但狂言煩燥者，五苓散，水調服，探吐之。

그러나 열이 난지 6 - 7일에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열이 나지 않고 단지 미친 듯 말하고 번조가 나타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물에 타서 복용시키고 목구멍을 자극해 구토시킨다.

陽明病，不大便，繞臍痛，煩燥，承氣湯下之。

양명병에 대변이 나오지 않고 배꼽 주변이 아프며 번조가 있을 때는 승기탕(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少陽，吐利厥逆，煩燥欲死，吳茱萸湯。

소양병에 구토와 설사를 하며 손발이 차갑고 번조로 죽을 것 같을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309】

厥逆，脈沈自利，煩燥不得眠，黃連雞子湯、黃連阿膠湯。

손발이 차갑고 맥이 침(沈)하며 설사를 하고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황련계자탕(黃連雞子湯)、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을 쓴다.

下後復發汗，晝則煩燥不得眠，夜而安靜，不嘔不渴，無表證，脈沈微，身無大熱，乾姜附子湯。發汗，若下之，病仍在不去，煩燥者，茯苓四逆湯。

하법을 쓴 뒤에 다시 한법을 사용하여, 낮에는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되어야 안정되며, 구토도 갈증도 없고 표증도 없으며 맥이 침(沈)·미(微)하고, 몸에 심한 열이 없을 때는 건강부자탕(乾姜附子湯)을 쓴다.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병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번조가 있을 때는 복령사역탕(茯苓四逆湯)을 쓴다.

陰極發燥，或陰毒火邪，投熱藥反劇者，不可用涼藥，燥甚仍與熱劑，用四逆湯輩。

음(陰)이 극성해서 조(躁)가 나타나거나, 음독(陰毒)이나 화사(火邪)에 뜨거운 성질의 약을 주어 도리어 심해졌을 때는 차가운 성질의 약을 써서는 안된다. 조(躁)가 심하여도 뜨거운 성질의 처방을 써야 한다. 사역탕(四逆湯) 부류의 처방을 쓴다.

1. 燥: 煩躁 ※《상한명리론》↩

2. 共: 器具 ※《상한가비적본》↩

3. 燥攣: 身蹠 ※《상한론》【298】↩

懊惱 오뇌

懊惱者，心中懊惱懣懣，鬱悶不舒之貌。蓋由表證誤下，正氣內虛，陽邪內陷，結於心胸之間，甚則爲結胸也。邪在心胸則宜吐，熱結胃腑則宜下，不可拘也。

오뇌(懊惱)는 가슴 속이 괴롭고 답답하여 편안하지 않은 모습이다. 표증일 때 하법을 잘못 사용하면 정기(正氣)가 안으로 허해지고 양사(陽邪)가 안으로 침범하여 심흉(心胸) 사이에 기운이 맺혀 생기는데, 심해지면 결흉(結胸)이 된다. 사기(邪氣)가 심흉에 있으면 토법을 써야 하고, 열(熱) 위(胃)에 맺히면 하법을 써야 하지만 이것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한다.

發汗吐下之後虛煩不得眠，甚則反覆顛倒，心中懊惱，梔子豉湯。舌上白胎，肌不能食，虛煩不眠，頭汗懊惱，上同。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하면 몸을 뒤척이며 가슴 속이 괴로울 때(心中懊惱)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076】허 위에 흰 설태가 끼고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허번(虛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에서 땀이 나며 오뇌(懊惱)가 있을 때【228】도 위와 같이 치료한다.

短氣，煩燥，咽硬¹，胸中懊惱，大陷胸湯。

단기(短氣)와 번조(煩躁)가 있고 심하가 단단하며 가슴 속이 괴로울(胸中懊惱) 때는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134】

陽明病，下之後，懊惱而煩，中有燥屎，宜承氣湯。

양명병에 하법을 쓴 뒤에 오뇌와 번(煩)이 생긴 것은 배속에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이니 승기탕(承氣湯)을 써야 한다.

陽明，無汗，小便不利，心中懊惱者，必發黃，宜茵陳蒿湯。

양명병에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가슴 속이 괴로우면〔胸中懊
惱〕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기게 된다. 인진호탕(茵陳蒿湯)을 써야 한다.

1. 咽硬 : 心下因硬 ※《상한론》【134】↩



身痛 몸의 통증

身痛，太陽表證也。雖曰表邪未解，而有發汗溫經先後之不同。自利脈沈，爲陰病。身痛，其身重者，屬乎陽明，爲有風也。又有陽邪內行，不榮於表，是又不可不知。

몸의 통증은 태양표증(太陽表證)이다. 그러나 표사(表邪)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한시켜야 하는 경우, 온경(溫經)시켜야 하는 경우, 먼저 써야 하는 약과 나중에 써야 하는 약의 차이가 있다. 설사를 하고 맥이 침(沈)한 것은 음병(陰病)이다. 몸이 아프고 몸이 무거운 것은 양명(陽明)에 속하고 풍(風)이 있는 것이다. 또 양사(陽邪)가 안으로 들어와 겉을 튼튼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는 안된다.

太陽身痛，脈浮緊，無汗，麻黃湯，或尺脈遲，爲無血，先用小建中湯，候尺脈浮，却用麻黃湯。

태양병으로 몸이 아플 때는 맥이 부(浮)·긴(緊)하며, 땀이 나지 않는다.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더러 척맥이 지(遲)한 것은 혈(血)이 없는 경우이니, 먼저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쓰고 척맥이 부(浮)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下利脈況¹，身痛，宜四逆湯輩。

설사를 하고 맥이 침(沈)하며 몸이 아플 때는 사역탕(四逆湯) 부류를 쓴다.

發汗後身痛，脈沈遲，桂枝芍藥人參湯²。

한법을 쓴 뒤에 몸이 아프고 맥이 침(沈)·지(遲)할 때는 계지가작약인삼탕(桂枝加芍藥人參湯)을 쓴다.【062】

一身盡痛，發熱面黃³，七八日後，結熱在裏⁴。乃攻其表⁵，溫裏，四逆湯，攻表，桂枝湯。

온몸이 모두 아프고 열이 나며 얼굴이 누렇다가 7 - 8일 후에 속에 열이 맺히는 것은 속에 어혈(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설사를 하고 배가 창만(脹滿)하며 몸이 쑤시고 아플 때는 먼저 환자의 속〔裏〕을 따뜻하게 한 다음 겉〔表〕의 사기(邪氣)를 공격해야 한다. 속을 따뜻하게 할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쓰고 겉의 사기를 공격할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372】

霍亂後身痛不休，桂枝湯。

곽란 후에 쉼 없이 몸이 아플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濕家身疼痛，不可發汗，發汗則成痙，葛根桂枝湯。

습(濕)이 많은 환자가 몸이 아플 때는 발한시켜서는 안된다. 발한시키면 치(痙)가 생겨난다. 갈근계지탕(葛根桂枝湯)을 쓴다.

凡中濕身痛，有本條。

습사(濕邪)에 적중되어 몸이 아픈 경우는 〈풍습과 중습(風濕、中濕)〉 조문에 나온다.

1. 況：㉾沈 ※《상한가비적본》↩

2. 桂枝芍藥人參湯：㉾桂枝加芍藥人參湯 ※《상한유서》↩

3. 面黃：而黃 ※대교본 ↩

4. 結熱在裏：㉾結熱在裏，有瘀血也，桃仁承氣湯下之 ※《상한가비적본》↩

5. 乃攻其表：㉾下利煩滿，身疼痛，先溫其裏，乃攻其表 ※《상한가비적본》↩



四肢拘急 사지구급

拘急者，手足不能自如，屈伸不便，如蹠臥惡風之貌。四肢者，諸陽之本。蓋因發汗，亡陽陽虛，是有其證也。

구급(拘急)은 팔다리를 평소처럼 움직일 수 없고 굽히거나 펴는 일이 편하지 않은 것으로 웅크리고 누워 바람을 싫어하는 모습과 같다. 팔다리는 모든 양기(陽氣)의 근본이다. 한법으로 양기가 없어지거나 양기가 허해지면 이 증상이 생긴다.

傷寒，脈¹，自汗出，小便數，心煩，惡寒，脚攣急，芍藥甘草湯。小便難者，桂枝加附子。

상한에 맥이 부(浮)하고 자한(自汗)이 나며 소변이 잦고 심번(心煩)이 있으며 오한이 들고 다리가 당길 때는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을 쓴다.【029】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계지가부자탕(桂枝加附子湯)을 쓴다.

太陽病，發汗，遂不止，惡風，小便難，四肢微急，難以屈伸，桂枝加附子湯。

태양병에 한법을 쓰고나서 땀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며 오풍이 들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팔다리가 약간 당겨서 구부리거나 펴기 어려울 때는 계지가부자탕(桂枝加附子湯)을 쓴다.

吐利，汗出，發熱惡寒，四肢拘急，手足厥冷，四逆湯。

구토나 설사를 하고 땀이 나며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팔다리가 뒤틀리고 손발이 차가울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1. 脈：☞脈浮 ※《상한론》【029】↩



咳嗽 해수

咳者，聲欬，俗謂之嗽。肺主氣，肺爲邪所乘，氣逆而不下也，故令咳嗽。有肺寒而咳者，有停飲而咳者，有邪在半表半裏而咳者，治各不同。其水咳三證，不可不辯，小青龍，太陽之表水也，十棗湯，太陽之裏水也，眞武湯，水證¹之水氣也。蓋水與表寒相合而咳，則小青龍，當汗之。水與裏寒相合而咳，則眞武湯，溫之。裏癖合水動肺而嗽，十棗湯，所以下之也。

해(咳)는 '소리 내어 기침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수(嗽)라고 말하는 것이다. 폐(肺)는 기(氣)를 주관하므로 폐(肺)가 사기(邪氣)의 침범을 받으면 기운이 거스러 올라 내려오지 않으므로 해수(咳嗽)가 나타난다. 폐가 한기(寒氣)를 받아 기침하는 경우, 음(飲)이 정체되어 기침하는 경우,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어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기침을 하게 하지만 치법은 각기 다르다. 또 수기(水氣)로 인한 기침 3가지 병증이 있으니 변별하지 않을 수 없다. 소청룡탕(小青龍湯)은 태양의 표수(表水)를 치료하고, 십조탕(十棗湯)은 태양의 이수(裏水)를 치료하며, 진무탕(眞武湯)은 음증의 수기(水氣)를 치료한다. 수(水)와 표한(表寒)이 서로 만나 기침을 하면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한법을 써야 하며, 수(水)와 이한(裏寒)이 서로 만나 기침을 하면 진무탕(眞武湯)으로 온법을 써야 한다. 속에서 벽(癖)이 수(水)와 결합해 폐를 요동시켜 나는 기침은 십조탕(十棗湯)으로 공하시켜야 할 것이다.

太陽病，身熱咳嗽，乾嘔，喘而利，小青龍湯，有加減法。惡寒身痛，只依本方。

태양병에 몸에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헛구역질을 할 때 숨이 차거나 설사를 하면 소청룡탕(小青龍湯)을 가감법에 따라 쓴다.【040】오한이 들고 몸이 아플 때는 가감하지 않고 쓴다.

身涼，咳嗽，乾嘔，爲利²，心下痞滿，引脇下痛，十棗湯。

몸이 차갑고 기침을 하며 헛구역질을 하고 약간 설사를 하며, 심하가 막혀 그득하고 옆구리 아래까지 아플 때는 십조탕(十棗湯)을 쓴다.

四肢痛重, 腹痛下利, 咳嗽, 或嘔, 眞武湯, 有加減之法³。

팔다리가 아프고 무거우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며, 기침을 하고 더러 헛구역질을 할 때는 진무탕(眞武湯)에 오미자(五味子)·건강(乾薑)·세신(細辛)을 더하여 쓴다.【316】

少陽病, 寒熱往來, 胸脇硬滿而痛, 咳嗽, 小柴胡湯。有加減之法。

소양병에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며, 가슴과 옆구리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아픈 데 기침을 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가감법에 따라 쓴다.【096】

少陽⁴咳嗽, 四逆湯⁵。

소음병으로 기침을 할 때에는 사역탕(四逆散)에 오미자(五味子)·건강(乾薑)을 더하여 쓴다.【318】

腹痛下利⁶, 咳嗽, 中滿而嘔, 大半夏湯。

기침을 하고 배속이 그득하며 구역질을 할 때는 대반하탕(大半夏湯)을 쓴다.

1. 水證 : ㉞陰證 ※《상한유서》↩

2. 爲利 : ㉞微利 ※《상한유서》↩

3. 有加減之法 : ㉞加五味子、乾薑、細辛 ※《상한유서》↩

4. 少陽 : ㉞少陰 ※《상한론》【318】↩

5. 四逆湯 : ㉞四逆散加五味子、乾薑 ※《상한유서》↩

6. 腹痛下利 : 《상한유서》를 근거로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喘 천

傷寒發喘，有邪在表者，有邪在裏者，有水氣者。在表者，心腹濡而不堅，外證無汗，法當汗之。在裏者，心復¹脹滿，外證有汗，法當下之。其水氣者，心下怔忡，是以有青龍湯之證。或注喘²，汗出而喘³，宜發之。雖然，喘特病之常也。其或直視譫語，汗出髮潤，身汗如油，皆不可治。

상한에 천(喘)이 생기는 것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는 경우, 사기(邪氣)가 속
에 있는 경우, 수기(水氣)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는 경우는,
가슴과 배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외증(外證)으로 땀이 나지 않는다. 치
료는 한법을 써야 한다. 사기(邪氣)가 속에 있는 경우는 가슴과 배가 창만하고,
외증(外證)으로 땀이 난다. 치료는 하법을 써야 한다. 수기(水氣)가 있는 경우
는, 심하까지 두근거린다. 이것은 소청룡탕(小青龍湯)의 증상이다. 땀이 나면
서 천(喘)이 있을 때는 설사시켜야 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서 천이 있을 때는
발산시켜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천(喘)은 다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눈을 곧추 뜨고 섬어(譫語)가 있는 경우, 땀이 나서 터력이 축축한 경우, 몸
에서 기름 같은 땀이 나는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없다.

太陽病，無汗而喘，麻黃湯。

태양병에 땀이 나지 않고 천(喘)이 있을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쓴다.

陽明病，汗出，不惡寒，短氣，腹滿，潮熱而喘，小承氣湯。

양명병에 땀이 나고 오한이 없으며 숨이 짧고 배가 그득하며 조열(潮熱)이 나
고 천(喘)이 있을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太陽陽明合病，喘而胸滿，不可下，宜麻黃湯。

태양양명합병에 천(喘)이 있고 가슴이 그득할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마
황탕(麻黃湯)을 써야 한다.

誤下大陽⁴，利不止，脈促，有汗而喘，葛根麻黃黃芩湯⁵。無汗而喘⁶，麻黃杏仁甘草石膏湯。

태양병에 하법을 잘못 사용하여 설사가 멈추지 않고 맥이 촉(促)하며 땀이 나고 천(喘)이 나타날 때는 갈근황금황련탕(葛根黃芩黃連湯)을 쓴다.【034】 땀이 나고 천(喘)이 나타나며 심한 열이 없을 때는 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쓴다.【063】

水氣喘咳，乃太陽汗後，飲水多而水停心下，小青龍湯去麻黃加杏仁，小腹痛⁷者，去麻黃，加茯苓。陰病喘促者，反陰丹。

수기(水氣)로 천(喘)이나 해(咳)가 있는 것은 태양병에 한법을 사용한 다음 물을 많이 마셔 심하에 수기(水氣)가 정체된 경우이니 소청룡탕(小青龍湯)에 마황을 빼고 행인을 더하여 쓴다. 아랫배가 그득할 때는 마황을 빼고 복령을 더하여 쓴다. 음병에 숨이 찰 때는 반음단(反陰丹)을 쓴다.

1. 心復：心腹 ※문맥상 ↩

2. 或注喘：☞汗出而喘，宜利之 ※《상한가비적본》↩

3. 汗出而喘：☞汗不出而喘 ※《상한가비적본》↩

4. 大陽：☞太陽 ※문맥상 ↩

5. 葛根麻黃黃芩湯：☞葛根黃芩黃連湯 ※《상한유서》↩

6. 無汗而喘：☞汗出而喘，無大熱 ※《상한유서》↩

7. 小腹痛：☞小腹滿 ※《상한유서》↩

氣逆 기역

氣逆者，氣自腹中時時上衝也。蓋因太陽病，下之，表邪乘虛傳裏，裏不受邪，則氣逆上行，仍在表也，當復汗之。厥陰客熱，氣上衝心，此熱在裏而氣上也。若病如虛羸少氣，氣逆欲吐者，又動氣發汗而氣上衝者，此正氣虛而氣逆也，當依法調治之。脈沈緊者，不可汗。

기역(氣逆)은 때때로 배속에서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이다. 태양병에 하법을 사용하면 표사(表邪)가 허한 틈으로 침입해 속으로 전해지는데, 속에서 사기를 받지 않으면 기운이 거슬러 위로 올라 사기(邪氣)가 여전히 겉에 있게 된다. 이때는 다시 한법을 써야 한다. 겉음에 침입한 열(熱)로 기운이 위로 올라 가슴을 치받는 것은 열(熱)이 속에 있어 기운이 오르는 경우이다. 만약 병자가 허약하고 초췌하며 숨이 얇은데 기운이 거슬러 올라 토하고자 하는 것과, 동기(動氣)에 한법을 써서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은 정기(正氣)가 허하여 기운이 거슬러 오르는 경우이다. 치료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맥이 침(沈)·긴(緊)할 때는 땀을 내서는 안된다.

太陽病，下之後，其氣上衝者，可與桂枝湯，不上衝者，不可與之。

태양병에 하법을 쓰고 나서 기운이 위로 치밀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치밀어 오르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病如桂枝證，頭不痛，項不强，寸脈浮微，胸中痞硬，氣上衝咽喉不得息，此爲胸中寒，瓜蒂散吐之。脈微者，不可吐，吐則心口¹逆滿，氣上衝胸，起則頭眩，脈沈緊，發汗則動經，身爲振搖，茯苓白朮桂枝甘草湯。

계지탕의 증상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아프지 않고 뒷덜미가 뻐뻐하지도 않으며 촌맥이 부(浮)·미(微)하고 가슴 속이 꽉 막히며 기운이 위로 목구멍을 치받아 숨을 쉴 수 없는 것은 가슴에 한(寒)이 적중된 경우이니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킨다.【166】맥이 미(微)할 때는 토법을 쓸 수 없다. 토법을 쓰면 심

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 그득하고 기운이 위로 가슴을 치받으며, 일어서면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침(沈)·긴(緊)한데, 이때 땀을 내면 경맥을 요동시켜 몸이 떨리게 된다. 복령백출계지감초탕(茯苓白朮桂枝甘草湯)을 쓴다.【067】

動氣，發汗，氣上衝者，李根湯。

동기(動氣)에 한법을 사용하여 기운이 위로 치솟을 때는 이근탕(李根湯)을 쓴다.

病後虛羸少氣，氣逆吐者，竹葉石膏湯。

병을 앓은 뒤에 허약하고 초췌하며 숨이 얇은데, 기운이 거슬러 오르고 구역질을 할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1. 心口：☞心下 ※《상한론》【067】↩

短氣 단기

短氣者，呼吸短促而不能相續也。〔《千金方》云〕少氣不足以息也。《金匱要略》曰，短氣不足以息者實。大抵心腹脹滿而短氣者，邪在裏而爲實。心腹滯滿而氣短者，邪在表而爲虛。又有停水心下，亦令短氣，隨證攻治，無不愈矣。

단기(短氣)는 호흡이 짧아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천금방》에서 말하였다.] "숨이 얇아 숨쉬기 어려운 것이다."《금궤요략》에서 말하였다. "단기(短氣)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은 실증이다." 가슴과 배가 창만하면서 단기가 있는 것은 사기(邪氣)가 속에 있고 실증이다. 가슴과 배가 부드럽고 그득하지만 단기가 있는 것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고 허증이다. 또 수(水)가 심하에 정체되어도 단기가 생긴다. 증상에 따라 치료하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短氣，潮熱，腹滿而喘，此爲外欲解而裏欲實，大柴胡湯，小承氣湯。

단기가 있고 조열이 나며 배가 그득하고 숨이 찬 것은, 겉은 풀리려고 하지만 속은 실한 경우이다. 대시호탕(大柴胡湯)이나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208】

風濕相搏，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衣，其邪在表，甘草附子湯。

풍(風)과 습(濕)이 서로 다투어 땀이 나고 단기가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오향이 들어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는 경우이다. 부자감초탕(甘草附子湯)을 쓴다.【157】

食少飲多，水停心下，短氣，小半夏湯。

밥은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셔서 수음(水飲)이 심하(心下)에 머물러 단기가 생겼을 때는【금궤요략】소반하탕(小半夏湯)을 쓴다.

身涼，乾嘔，短氣，汗出，不惡寒，此表解裏有水，十棗湯。

몸이 차고 헛구역질을 하며 단기가 있고 땀을 흘리지만 오한이 들지 않는 것은 겉(表)은 풀어졌으나 속(裏)은 조화롭지 못한 경우이다. 십조탕(十棗湯)을 쓴다.【152】

誤下太陽，短氣，煩燥，心中懊懣，便爲結胸，大陷胸湯及丸。

태양병에 하법을 잘못 사용하여 단기와 번조가 생기고 가슴 속에 괴로우면 곧 결흉(結胸)이 된다. 대함흉탕(大陷胸湯丸)이나 대함흉환(大陷胸丸)을 쓴다. 【134】



乾¹ 구조인건

邪熱聚於胃腑，消耗津液，故口乾熱而渴也。經曰，少陰病，故口燥咽乾者，急下之。若不口燥咽乾而渴，脈沈者，急溫之。又有漱水不下咽者，若見表證，必衄，爲邪熱在經也。以血氣俱多，經中熱甚、迫血妄行而作衄者，無表證，加之胸腹滿而如狂者，又爲畜血在內者。

사열(邪熱)이 위(胃)에 모이면 진액을 소모시키므로 입이 마르고 열이 나며 갈증이 생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소음병 때문에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건조할 때는 급히 하법을 쓴다."【320】"만약 입이 마르지 않고 갈증만 있으며 맥이 침(沈)할 때는 온법(溫法)을 쓴다."【323】또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하고 삼키려고 하지 않을 때 만약 표증이 나타나며 반드시 코피가 나는 것【202】은 사열(邪熱)이 경맥에 있는 경우이다. 혈(血)과 기(氣)가 모두 많을 때 경맥 중에 열(熱)이 심하여 혈(血)을 핍박해 멧대로 흘러서 코피가 나는 경우, 표증 없이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광증처럼 나타나는 경우, 또 속에 축혈(畜血)이 있는 경우가 있다.

陽明口燥咽乾，無大熱，背微惡寒，煩渴，白虎加人參湯。

양명병에 입과 목이 마를 때는 열이 심하지 않고 등에 약간 오한이 들며 갈증이 심하지 않으니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169】

少陽口燥咽乾，小柴胡湯。

소양병에 입과 목이 마를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少陰口燥咽乾而渴，急下之，用承氣湯。

소음병에 입과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는 급히 하법을 써야 하므로 승기탕(承氣湯)을 쓴다.【320】

陽明病，口燥欲漱水不嚥者，必衄，黃芩芍藥湯。漱水不咽，發狂，輕者犀角地黃湯，甚者抵當湯。

양명병에 입이 말라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고 삼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코피가 날 것이니【202】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을 쓴다. 입을 행구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며 광증이 나타날 때, 가벼우면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쓰고, 심하면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1. 乾 : 口燥咽乾 ※문맥상 ←

渴갈

渴者，裏有熱也。津液爲熱所耗，故令渴也。傷寒六七日，傳至厥陰，爲消渴者，渴飲水多而小便少，乃熱能消水也。朱氏曰，脈浮而渴，屬太陽，有汗而渴，屬陽明，自利而渴，屬少陰。至於厥陰，則又熱之極矣。太陽，無汗，若渴，忌白虎，宜柴胡湯。陽明，多汗而渴，戒五苓，宜竹葉石膏湯。若先嘔後渴，則爲欲解，當與之水。先渴後嘔，則爲水停¹，屬赤茯苓湯。當從此議，勿令悞也。

갈증은 속에 열(熱)이 있는 것이다. 진액(津液)이 열로 소모되므로 갈증이 생긴다. 상한 6 - 7일에 곁음으로 전경(轉經)되어 소갈(消渴)이 되면,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지만 소변양이 적게 된다. 열이 물을 말린 경우이다. 주공(朱肱)이 말하였다. "맥이 부(浮)하면서 갈증이 있으면 태양에 속하고, 땀이 나면서 갈증이 있으면 양명에 속하고, 설사를 하며 갈증이 있으면 소양에 속한다. 곁음의 경우에도 또한 열(熱)이 극심하다. 태양병에 땀이 나지 않을 때 만약 갈증이 있으면 백호탕(白虎湯)을 주어서는 안되며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써야 한다. 양명에 땀이 많고 갈증이 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주어서는 안되고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써야 한다." 만약 먼저 구역질한 뒤에 갈증이 나타나면 병이 풀리려는 것이니 물을 주어야 한다. 먼저 갈증이 있는 뒤에 구역질이 나타나면 수(水)가 심하에 정체된 것이므로 적복령탕(赤茯苓湯)을 써야 한다. 이러한 뜻을 좇아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太陽病，發渴，脈浮，表不解，心下水氣，小青龍湯大²半夏，加瓜蒌。

태양병에 갈증이 나고 맥이 부(浮)하며 겉이 풀리지 않고 심하에 수기(水氣)가 있을 때는 소청룡탕(小青龍湯)에 반하(半夏) 대신 과루(瓜蒌)를 쓴다.【040】

服桂枝湯，汗出後煩渴甚者，白虎加人參湯。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하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심한 번(煩)과 갈증이 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蔘湯)을 쓴다.【026】

小便不利而渴，五苓散。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갈증이 있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身熱惡風，手足溫，脇滿而渴，小柴胡去半夏，加瓜蒌。

몸에서 열이 나고 오풍이 들며 손발이 따뜻하고 옆구리가 그득하며 갈증이 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에 반하(半夏)를 빼고 과루(瓜蒌)를 넣는다.

陽明發渴，則有汗，脇下硬，不大便而嘔，舌上白胎，小柴胡湯，加減同用。若汗少，小便不利，脈浮而渴，五苓散，渴而飲水嘔者，同。

양명병의 갈증은, 땀이 나고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며, 혀 위에 백태가 있으니 소시호탕(小柴胡)에 반하(半夏)를 빼고 과루(瓜蒌)를 넣어 사용한다.【230】 만약 땀이 적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맥이 부(浮)하고 갈증이 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구역질을 할 때도 이 처방을 쓴다.

發黃，頭汗出，小便不利，渴飲水漿，茵陳蒿湯、茵陳五苓散。

발황(發黃)이 생겨 머리에서 땀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갈증으로 물을 마실 때는 인진호탕(茵陳蒿湯)、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쓴다.

少陽發汗³，則自利，咳而嘔，引水飲，猪苓湯。

소음병의 갈증은, 설사를 하고 기침과 구역질이 나며 물을 마시려고 한다. 저령탕(猪苓湯)을 쓴다.【319】

下利，渴欲飲水，白頭翁湯。

설사에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백두옹탕(白頭翁湯)을 쓴다.

下利，脈數而渴者，自愈，不愈，必下清血，宜黃芩散。

설사에 맥이 삭(數)하며 갈증이 있으면 절로 낫는다. 낫지 않으면 반드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것이니 황금산(黃芩散)을 써야 한다.

病人脈微細，欲吐不吐，心煩，但寐，小便白，下利而渴，四逆湯。

환자의 맥이 미세(微細)하고 토하고 싶으나 토하지 못하며 속이 갑갑하고 자려고만 하며 소변이 맑고 설사와 갈증이 있을 때는【282】사역탕(四逆湯)을 쓴다.

陽毒⁴，大熱大渴，黑奴丸。

양독으로 열과 갈증이 심할 때는 흑노환(黑奴丸)을 쓴다.

中暑發渴，白虎加人參湯。

중서(中暑)의 갈증에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을 쓴다.

1. 水停：『水停心下』※《상한유서》↩

2. 大：『代』※《상한유서》↩

3. 少陽發汗：『少陰發渴』※《상한유서》↩

4. 陽毒：원서에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으나, 《상한유서》를 근거로 〈갈(渴)〉의 본문으로 보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

胸脇滿痛 흉협만통

胸滿者，胸膈間氣塞閉也，非心下滿。者¹，脇肋下氣填脹滿也，非腹中滿。蓋邪自表傳裏，必先自胸脇以至心腹而入胃，是以胸滿多帶表證，宜發汗。脇滿者，多在半表半裏之間，宜和解。至於邪結胸中而爲實者，又須湧吐之也。

흉만(胸滿)은 흉격(胸膈) 사이에 기운이 막힌 것으로 심하만(心下滿)과는 다르다. 협만(脇滿)은 옆구리 아래에 기운이 그득하게 차오른 것으로 복만(腹滿)과는 다르다. 사기(邪氣)가 겉에서 속으로 전해질 때, 반드시 먼저 가슴과 옆구리(胸脇)로부터 심하와 배(心腹)를 거쳐 위(胃)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흉만(胸滿)은 대개 표증(表證)을 동반하므로 한법을 써야 한다. 협만(脇滿)은 대개 사기(邪氣)가 반표반리 사이에 있으므로 화해시켜야 한다.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맺혀 가득 찼을 때에는 또한 반드시 토법을 써야 한다.

太陽病，下後，脈促，胸滿，桂枝去芍藥湯。病在於胃氣²，芍藥入榮，故去之。

태양병에 하법을 사용한 뒤에 맥이 촉(促)하고 가슴이 그득할 때는 계지거작약탕(桂枝去芍藥湯)을 쓴다. 병이 위분(衛分)에 있으므로 영분(榮分)으로 들어가는 작약을 제거한 것이다.

陽明病，喘而胸滿，猶帶表證，不可下，與麻黃湯、麻黃杏仁甘草石膏湯。

양명병에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한데 더욱이 표증을 동반했을 때에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마황탕(麻黃湯)、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을 쓴다.

胸脇俱滿，或脇下硬痛，或嘔吐，舌上白胎，或不大便，並屬小柴胡湯。

가슴과 옆구리가 모두 그득할 때,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아프거나, 구토하고 혀 위에 백태가 끼거나,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한 경우에는 모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써야 한다.【230】

傷寒五七日，往來寒熱，胸脇若滿，默默不飲食，心煩喜嘔，或脇下痞硬，柴胡加牡蠣湯³。

상한 5 - 6일에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고 흉협이 그득하며 입을 다물고(嘿嘿)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가슴이 갑갑하고 쉽게 토하면서 더러 옆구리 아래가 막혀 단단할 때에는 시호가모려탕(柴胡加牡蠣湯)을 쓴다.【096】

傷寒七八日，下之，胸滿煩驚⁴，小便不利，譫語，一身盡痛，不可轉側，柴胡加龍骨牡蠣湯。

상한 7 - 8일에 하법을 사용한 뒤 가슴이 그득하고 극도로 두려워하며(煩驚),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헛소리(譫語)를 하며, 온몸이 다 무거워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때는 시호가용골모려탕(柴胡加龍骨牡蠣湯)을 쓴다.【107】

胸中痰實，瓜蒂散吐之。

가슴 속에 담(痰)이 가득찼을 때는 과채산(瓜蒂散)으로 구토시킨다.

胸膈不快，填滿閉塞，唇青手冷，脈細沈，少情緒，或腹痛，此名太陰。

흉격(胸膈)이 시원하지 않고, 차올라 그득하고 막히며, 입술이 푸르고 손이 차가우며, 맥이 세(細)、침(沈)하며 마음이 울적한데 배가 아프기도 한 것을 태음병이라고 한다.

1. 者：☞脇滿者 ※《상한유서》☞

2. 胃氣：☞衛氣 ※《상한유서》☞

3. 柴胡加牡蠣湯：小柴胡湯 ※《상한론》【096】☞

4. 煩驚：☞煩驚 ※《상한론》【107】☞



結胸 결흉

經曰，病發於陽而反下之，熱入因作結胸。註曰，發熱惡寒者，發於陽也。外證項強，心下滿硬而痛是也。此爲實邪在裏，法當下之。若脈浮大，若表證，若水氣壅，不可下。亦有不因下而心下硬滿者。經曰，病人手足厥，脈乍緊，邪結胸中，心滿而煩，飢不欲食，當吐之。是則病在胸中也。經曰，陽明病，心下硬滿，不可下，下之，利不止而死。是則邪氣自表傳裏，留於心下，未全爲實，法當吐之，故有此戒。其或結胸證具而煩燥者，不治。

경문(經文)에서 "양(陽)에서 병이 발생하였을 때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면 열(熱)이 침입하여 결흉(結胸)이 생긴다."【131】라고 하였고, 《주해상한론》에서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것이 양(陽)에서 발병한 경우"라고 주석하였다. 외증으로 뒷목이 뻣뻣하며, 심하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아픈 것이다. 이것은 실사(實邪)가 속에 있는 것이니 하법을 써야 한다. 만약 맥이 부(浮)·대(大)하거나, 만약 표증이 있거나, 만약 수기(水氣)로 막혔을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또 하법과 상관 없이 심하가 단단하고 그득한 경우도 있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환자의 손과 발이 차갑고 맥이 갑자기 긴(緊)한 것은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응결되어 있는 경우로,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여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할 때에는 토법을 써야 한다."【355】이것은 병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양명병에 명치가 단단하고 그득할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하법을 쓰면 설사가 멈추지 않아 죽게 된다."【205】이것은 사기(邪氣)가 겉에서 속으로 전경되어 심하에 머물러 있으나 아직 완전히 덩어리지지 않은 경우이니 치법에 따라 토법을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경계를 두었다. 결흉증이 모두 있고 번조(煩燥)가 있다면 치료할 수 없다.

結胸，寸脈浮，關尺皆沈緊，宜下。若脈浮大，或有表證，先用小柴胡湯，表已解，下之。

결흉(結胸)에 촌구맥이 부(浮)하고 관맥과 척맥이 모두 침(沈)·긴(緊)할 때는 하법을 써야 한다. 만약 맥이 부(浮)·대(大)하고 표증이 있기도 할 때는 먼저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고, 표증이 이미 풀렸을 때 하법을 쓴다.

大結胸，不按而痛，連臍腹痛硬不可¹，大陷胸湯，或太峻，用丸。

대결흉(大結胸)은 누르지 않아도 통증이 배꼽과 복부에 미치고 아프고 단단해 손을 대지도 못하는 것이니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쓴다. 약성이 너무 강하면 대함흉환(大陷胸丸)을 쓴다.

小結胸，按之而痛，心下硬，小陷胸湯。

소결흉(小結胸)은 눌렀을 때 아프고 심하만 단단한 것이니 소함흉탕(小陷胸湯)을 쓴다.

熱實結胸，懊憹，煩渴，心下痛，少與大陷胸湯。

열실결흉(熱實結胸)은 마음이 괴롭고 심한 갈증이 나며 심하가 아픈 것이니 대함흉탕(大陷胸湯)을 조금 준다.

寒實結胸，無熱證，三物白散、枳實理中丸。

한실결흉(寒實結胸)은 열증(熱證)이 없는 것이니 삼물백산(三物白散)·지실이중환(枳實理中丸)을 쓴다.

1. 不可：不可近 ※《상한유서》↩

痞 比

經曰，病發於陰而反下之，因作痞。註云，無熱惡寒者，發於陰也。輕於結胸者，心下滿而不痛，按之則濡，是其虛邪留滯，故但滿而不痛也，惟枳、桔最良。欲攻之，只從表證解而後可。

경문(經文)에서 "병이 삼음(三陰)에서 발생하였을 때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면 이것으로 비증(痞證)이 생긴다."【131】고 하였고, 《주해상한론》에서 "열이 나지 않고 오한이 있는 것이 병이 삼음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주석하였다. 결흉(結胸)보다 가벼운 증상으로, 심하가 그득하나 아프지 않고 눌렀을 때 부드럽다. 이것은 허사(虛邪)가 머물러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득하기만 하고 아프지 않다. 지각(枳殼)·길경(桔梗)이 가장 좋다. 공하시키고자 한다면 표증이 풀리고 나서야 그렇게 할 수 있다.

痞者，關脈多沈，枳實理中丸、半夏瀉心湯。關脈沈者，三黃湯瀉其肝。若惡寒者，附子瀉心湯。服此湯痞不去，煩渴，小便不利，五苓散。

비증(痞證)은 관맥이 대개 침(沈)한데, 지실이중환(枳實理中丸)·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을 쓴다. 관맥이 침(沈)할 때는 삼황탕(三黃湯)으로 간(肝)을 사해준다. 오한이 들 때는 부자사심탕(附子瀉心湯)을 쓴다. 이 약을 복용하고도 비증(痞證)이 제거되지 않고 번갈아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下後復汗，心下痞而惡寒，表不解，不可攻痞，先與桂枝湯，表解，乃攻痞，三黃湯。

하법을 쓴 뒤에 다시 한법을 써서 심하가 답답하고〔痞〕오한이 드는 경우는 겹이 풀어지지 않은 것이니 비증(痞證)을 공하시켜서는 안된다. 먼저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겹이 풀어진 뒤에 삼황탕(三黃湯)으로 비증을 공하시킨다.

表未解而心下妨悶，曰支結，柴胡桂枝湯，胸脇滿而微結，小柴胡湯加乾姜、牡蠣。表證未罷，因攻之，脇熱¹而利，心下硬，爲表裏俱病，桂枝人參湯。

겉이 풀어지지 않고 심하가 답답한 것을 지결(支結)이라고 하니,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146】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조금 마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건薑(乾薑)、모려(牡蠣)를 더하여 쓴다. 표증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을 때 공하시켜서 열을 동반하고 설사를 하며 심하가 단단한 것은 겉과 속이 모두 병든 경우이니 계지인삼탕(桂枝人參湯)을 쓴다.

下利，心下痞硬，乾噎食臭，腹鳴，甘草瀉心湯、生薑瀉心湯。治法通用桂枝人參湯。若下利不止，則治下焦，赤石脂禹餘糧湯。又不止，只利小便，五苓散。

설사를 하며, 심하가 답답하고 단단하며, 음식 냄새 나는 트림을 하고, 뱃속이 꾸룩거릴 때는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생薑사심탕(生薑瀉心湯)을 쓴다.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통 계지인삼탕(桂枝人參湯)을 쓴다. 만약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하초(下焦)를 치료한다.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을 쓴다. 그래도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소변만 내보낸다.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發熱不解，嘔吐不利²，心下痞硬，大柴胡湯。吐汗下後，噎氣痞硬，旋覆代赭湯。

열이 풀리지 않고 구토와 설사를 하며 심하가 답답하고 단단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토법、한법、하법을 쓴 뒤에 트림을 하고 심하가 답답하며 단단할 때는 선복대자탕(旋覆代赭湯)을 쓴다.

若咳逆氣虛，用四逆湯。

해역(咳逆)을 하고 기(氣)가 허할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胃寒，先宜理中丸，後用旋覆代赭湯。

위(胃)가 차가울 때는 먼저 이중환(理中丸)을 쓰고 다음으로 선복대자탕(旋覆代赭湯)을 써야 한다.

1. 脇熱 : ㉮協熱 ※문맥상 ↩

2. 不利 : ㉮下利 ※《상한유서》↩



腹滿 복만

脾爲中央之土，所以腹滿多屬太陰也。常病者，爲裏實，從下之。時減者，爲裏虛，當溫之。若解表，內不消非大滿，尤生寒熱，**朱可下**¹，是邪全未入腑。若大滿大實，兼有燥屎，雖得之四五日，亦爲可下，謂邪已入腑也。大抵陽熱爲邪，則腹滿而咽乾，**陰邪爲寒**²，則腹滿而吐利，食不下。若雖經吐下後而腹滿者，治法又各不同，是又不可不知也。

비(脾)는 중앙을 상징하는 토(土)에 해당하므로 배가 그득한 것은 대개 태음에 속한다. 복만이 항상 있는 경우는 속이 실한 것이니 곧 속을 공하시키고, 때때로 감소되는 경우는 속이 허한 것이니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표증이 풀린 뒤에도 매우 그득하지는 않지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오한과 발열이 생겼을 때는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기(邪氣)가 완전히 부(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만약 매우 그득하고 매우 차 있으며 아울러 조시(燥屎)가 있을 때는 비록 4 - 5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법을 쓸 수 있으니, 사기(邪氣)가 이미 부(腑)에 들어간 경우라고 말한다. 대개 양열(陽熱)이 병사(病邪)가 되면 배가 그득하고 목구멍이 마르며, 음한(陰寒)이 병사(病邪)가 되면 배가 그득하고 구토와 설사를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만약 토법, 하법을 쓴 뒤에 복만이 있는 경우는 치법이 또한 각기 같지 않으니 이 역시 몰라서는 안된다.

太陽，誤下，因時腹滿而痛，**桂枝加附子湯**³，痛甚，桂枝加大黃湯。

태양병에 하법을 잘못 사용하여 이로 인해 때때로 배가 그득하고 아플 때는 계지가작약탕(桂枝加芍藥湯)을 쓴다. 통증이 심할 때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을 쓴다.【279】

陽明，發熱，腹滿微喘，口苦咽乾，或不大便，譫語者，並小柴胡湯，噦而小便利，加茯苓。

양명병에 열이 나고 배가 그득하며 조금 숨이 차고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하며 더러 대변을 보지 못하고 섬어가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이때 딸꾹질(噦)을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소시호탕에 복령(茯苓)을 더하여 쓴다.

三陽合病腹滿，身重難以轉側，譫語，口中不仁，小柴胡湯，有汗，白虎湯⁴。

삼양합병으로 배가 그득할 때는 몸이 무거워 몸을 뒤척이기 어렵고,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음식 맛을 모른다. 백호탕(白虎湯)을 약간 쓴다.【219】

大陰腹滿，吐食，不下，枳桔理中丸⁵。

태음병으로 배가 그득할 때는 음식을 토하는데,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지실이 중환(枳實理中丸)을 쓴다.

少陰病六七日，腹脹滿，不大便，急下之，大承氣湯。

소음병 6 - 7일에 배가 창만하고 대변을 보지 못할 때는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腹滿痛⁶者，脾不勝水，水與氣搏皮肉之間，腸中漉漉有聲，小半夏茯苓湯加桂枝。

복피(腹皮)가 아픈 것은 비(脾)가 수(水)를 억제하지 못하여 수(水)와 사기(邪氣)가 피부 사이에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장(腸) 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소반하복령탕(小半夏茯苓湯)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쓴다.

下利腹滿，身疼痛，先溫其裏，四逆湯，後攻其表，桂枝湯。

설사를 하고 배가 그득하며 몸이 아플 때는, 먼저 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역탕(四逆湯)을 쓰고, 그런 뒤에 표사(表邪)를 치료하기 위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發汗後腹滿，當溫，**厚朴半夏生姜人參湯**⁷。吐後腹滿，當下，少與調胃承氣湯。
下後腹滿，宜梔子厚朴湯。腹脹滿者，陰陽不和，桔梗半夏湯。

한법을 쓴 뒤에 배가 그득할 때는 온법(溫法)을 써야 하므로 후박생강반하인 삼감초탕(厚朴生薑半夏人參甘草湯)을 쓴다. 토법을 쓴 뒤에 배가 그득할 때는 하법을 써야 하므로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조금 쓴다. 하법을 쓴 뒤에 배가 그득할 때는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을 쓴다. 배가 창만한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이니 길경반하탕(桔梗半夏湯)을 쓴다.

1. 朱可下：☞未可下 ※《상한가비적본》↩
2. 陰邪爲寒：☞陰寒爲邪 ※《상한가비적본》↩
3. 桂枝加附子湯：☞桂枝加芍藥湯 ※《상한론》【279】↩
4. 小柴胡湯，有汗，白虎湯：☞少與白虎湯 ※《상한유서》↩
5. 枳桔理中丸：☞枳實理中丸 ※《상한유서》↩
6. 腹滿痛：☞腹皮痛 ※《상한유서》↩
7. 厚朴半夏生姜人參湯：☞厚朴生薑半夏人參甘草湯 ※《상한유서》↩

腹痛 복통

邪氣入裏，與正氣相搏，則爲腹痛。蓋陽邪傳裏而痛者，其痛不常，當以辛溫之劑和之。陰寒在內而痛者，則痛無休時，欲作利也，當以熱劑溫之。有燥屎宿食爲痛者，則煩而不大便，腹滿而痛也，則後¹用下。經曰，諸痛爲實，痛隨利減。此皆爲裏證，而所治各不同矣，又當隨證施治。

사기(邪氣)가 속으로 들어가 정기(正氣)와 서로 다투면 복통이 생긴다. 양사(陽邪)가 속으로 전해져 배가 아픈 경우는 통증이 계속되지 않는다. 이때는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기운을 조화시켜야 한다. 음한(陰寒)이 안에 머물러 배가 아픈 경우는 통증이 쉽 없이 나타나고 설사가 나려고 한다. 이때는 뜨거운 성질의 약재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조시(燥屎)나 숙식(宿食)으로 배가 아픈 경우에는 번(煩)이 나타나고 대변을 보지 못하며 배가 그득하면서 아프다. 이때는 반드시 하법을 써야 한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모든 통증은 실증(實證)으로 소통(利)시키면 통증이 감소한다." 배가 아픈 것은 모두 이증(裏證)이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증상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

傷寒四五日，腹中痛，若轉氣不²趣小腹者，此欲自利也，四逆湯。

상한 4 - 5일에 배 속이 아픈데 기운이 움직여 아랫배로 들어가는 것은 설사를 하려는 경우이다.【358】사역탕(四逆湯)을 쓴다.

少陰腹痛，四逆，或咳或悸，或小便不利，或瀉利下重，并四逆散。

소음병으로 배가 아플 때는 팔다리가 차가운데,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설사를 하고 뒤가 무겁거나 한다. 사역산(四逆散)을 쓴다.

下利青穀，脈微欲絕，通脈四逆湯

설사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오고 맥이 미약하여 끊어지려고 할 때는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쓴다.

腹痛，小便不利，眞武湯。

배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胸中熱，胃中有邪氣，腹痛，欲嘔吐者，黃連湯。

가슴 속에는 열사(熱邪)가 있고 위(胃) 속에는 사기(邪氣)가 있어 배가 아프며 구토하고자 할 때는 황련탕(黃連湯)을 쓴다.

大便實痛³者，關脈實，腹滿，不大便，桂枝加大黃湯、大小承氣湯選用之。

배가 가득차 아플 때는 관맥이 실(實)하고 배가 그득하며 대변을 보지 못한다.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대승기탕(大小承氣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1. 後：㉔須 ※문맥상 ⇐

2. 不：㉔下 ※《상한론》【358】 ⇐

3. 大便實痛：㉔實痛 ※《상한유서》 ⇐

小腹滿 소복만

小腹滿者，臍下滿是也。若胸滿、心下滿、腹滿，皆爲邪氣而非物。今小腹滿，皆爲有物而非氣。小便利者，則爲畜血之形。小便不利者，乃是溺瀦之證。滲利之劑，宜分兩途。經曰，病人素有痞氣，連在臍傍，痛引小腹，入陰筋者，名臟結也，死。

소복만(小腹滿)은 배꼽 아래가 그득한 것이다. 흉만(胸滿)、심하만(心下滿)、복만(腹滿)은 모두 사기(邪氣) 때문이고 유형의 물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복만(小腹滿)은 모두 유형의 물체가 있기 때문이고 사기(邪氣) 때문이 아니다.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은 축혈(畜血)의 증상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소변이 잘 흐르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때는 소변을 나오게 하는 약으로 청탁(淸濁)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환자가 평소 비기(痞氣)가 있어 배꼽 옆까지 미치고 통증이 아랫배로 이르러 성기(性器)까지 침입하는 것을 장결(臟結)이라고 한다. 이때는 죽게된다."【167】

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小腹急結，桃仁承氣湯。

태양병이 풀어지지 않고 방광에 열이 맺혔을 때, 이 환자가 광증(狂證)과 비슷하나 아랫배가 당기고 마친 증상이 있다면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써야 한다.

太陽病六七日，表證在，脈微沈，不結胸，發狂，小腹硬滿，小便自利，抵當湯。

태양병 6 - 7일에 표증이 있으나 맥이 미(微)、침(沈)하고, 결흉이 생기지 않았으나 광증(狂證)처럼 보이고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하지만 소변이 잘 나올 때는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太陽病，日黃，脈沈結，小腹硬，小便不利者，五苓散。

태양병에 눈이 누르고 맥이 침(沈)·결(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陰陽易，小腹痛，燒裊散。

음양역(陰陽易)으로 아랫배가 아플 때는 소곤산(燒裊散)을 쓴다.

病者手足厥冷，眞武湯。

환자가 손발이 차가울 때는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不結胸，小腹滿，按之痛者，此冷結在膀胱關元，宜灸關元穴。

결흉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랫배가 그득하며 만지면 아픈 것은 방광(膀胱)의 모혈(募穴)인 관원(關元)에 냉기(冷氣)가 맺힌 것이니 관원혈에 뜸을 떼야 한다.

嘔吐 구토

嘔者, 聲物俱出者也。吐者, 無聲而但出物者也。故仲景復言乾以別之, 則嘔爲有物明矣。乾, 猶空也, 但空嘔而無所出耳。然嘔吐俱有物出, 較之輕重, 則嘔甚於吐。蓋表邪傳裏, 裏氣上逆, 故嘔吐而水穀不下也。有胃熱, 脈弦數, 口舌¹煩渴。有胃寒, 脈弦遲, 逆冷, 不食, 小便利。有水氣, 先渴後嘔, 膈間²怔忡。有懷血³, 喉中腥, 奔逆上衝, 不須治之, 嘔膿盡自愈。是四者, 不可不辯。大抵邪半在表半在裏, 則多嘔吐。及其裏熱而嘔吐者, 亦有之。故經曰, 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之, 爲其氣逆未收斂爲實也。設或嘔而脈弱, 小便復利, 身惟熱而見厥者, 難治, 以其虛寒甚也。

구(嘔)는 소리와 음식물이 모두 나오는 것이다. 토(吐)는 소리는 나지 않고 음식물만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경(仲景)이 다시 '헛구역질(乾嘔)'라고 구분하였으니, 구(嘔)에는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 헛(乾)은 공허하다는 뜻이니, 헛구역질(乾嘔)은 공허하게 구역질만 하고 음식물은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다. 구(嘔)와 토(吐)를 할 때는 모두 음식물이 나오지만 경중의 차이가 있으니, 구(嘔)가 토(吐)보다 심하다. 표사(表邪)가 속으로 전해지면 속의 기운이 위로 거슬러 오르므로 구토(嘔吐)가 생기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다. 위(胃)가 뜨거운 경우는 맥이 현(弦)·삭(數)하고 입이 쓰며 혀가 마르고 갈증이 심하다. 위(胃)가 차가운 경우는 맥이 현(弦)·지(遲)하고 찬 기운이 거슬러 올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변이 잘 나온다. 수기(水氣)가 있는 경우는 먼저 갈증이 있다가 구역질을 하며 흉격이 그득하고 정충(怔忡)이 있다. 농혈(膿血)이 있는 경우는 목구멍에서 비린내가 올라오고 기운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데, 치료할 필요가 없다. 고름을 모두 토하고 나면 절로 낫는다. 이 4가지를 구분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대개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으면 구토(嘔吐)하는 경우가 많다. 또 속이 뜨거워 구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구(嘔)가 많을 때는 비록 양명증이 있다 해도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다."【204】 이것은 기운이 거슬러 올라 수렴되지 못하여 실증(實證)이 된 경우이다. 만약 "구(嘔)가 있고 맥이 약(弱)하며 소변이 다시 잘 나오고 몸에 미열이 있으며 곁(厥)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치료하기 어렵다." 이것은 허한(虛寒)이 심한 경우이다.

太陽少陽合病，自利而嘔，黃芩加半夏生姜湯。

태양과 소양의 합병에 설사를 하고 구역질을 할 때는 황금가반하생강탕(黃芩加半夏生姜湯)을 쓴다.

太陽陽明合病，當自利，若不利，但嘔，葛根加半夏湯。

태양과 양명의 합병에 설사를 하기 마련이다. 만약 설사를 하지 않고 구역질만 날 때는 갈근가반하탕(葛根加半夏湯)을 쓴다.

傷寒，胸中熱，胃中有邪氣，腹痛，氣逆欲嘔吐者，黃連湯。

상한에 가슴 속에는 열사(熱邪)가 있고 위(胃) 속에는 사기(邪氣)가 있어서 배속이 아프며 기운이 거슬러 올라 구토하고자 할 때는 황련탕(黃連湯)을 쓴다.

太陽病，發熱汗出，心下煩鬱痞硬，不利⁴，嘔吐，大柴胡湯。

태양병에 열이 나고 땀이 날 때, 심하가 갑갑하고 단단하며 설사와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三陽，發熱而嘔逆，小柴胡湯，嘔而渴者，猪苓湯、五苓散。

삼양병에 열이 나고 구역질을 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고, 구역질을 하며 갈증이 있을 때는 저령탕(猪苓湯)과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先嘔後渴，此爲欲解，宜與水解。先渴後嘔而水停心下，赤茯苓湯。

먼저 구역질이 난 뒤에 갈증이 있으면 이것은 병이 풀리려는 경우이니 물을 주어 풀어지게 해야 한다. 먼저 갈증이 난 뒤에 구역질이 나면 심하에 수(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니 적복령탕(赤茯苓湯)을 쓴다.

少陰病，又吐，但欲寐，五六日，自利而渴，小便色白，四逆湯加生姜。

소양병에 토(吐)하고 자려고만 하며, 5 - 6일에 설사를 하고 갈증이 나며 소변 색이 맑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에 생강을 더하여 쓴다.

少氣⁵，或咳或悸，身痛，自利，眞武湯去附子加生姜。膈上寒飲，乾嘔，吐涎沫，四逆湯。

수기(水氣)로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하며, 몸이 아프고 설사를 할 때는 진무탕(眞武湯)에 부자(附子)를 빼고 생강을 더하여 쓴다. 흉격 위에 한음(寒飲)이 있어 헛구역질을 하며 거품 섞인 침만 토해낼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若吐利，手足厥冷，煩燥甚者，吳茱萸湯。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번조(煩躁)가 심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

食穀欲嘔者，屬陽明也，上同。得湯反劇者，屬上焦，橘皮湯，小柴胡湯。似嘔，似噦，似喘，心下憤憤，大橘皮湯。

음식을 먹고 구역질이 나면 양명(陽明)에 속한 병이니 치료법은 앞과 같다. 약을 복용하고 도리어 더 심해지면 상초(上焦)에 속한 병이니 귤피탕(橘皮湯)이나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구역질이나 트림이나 숨참 같기도 하고 심하가 답답(憤憤)할 때는 대귤피탕(大橘皮湯)을 쓴다.

汗下後，關脈遲緩而吐，爲胃寒，理中丸。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관맥이 지(遲)·완(緩)하고 토하는 것은 위(胃)가 차가운 경우이니 이중환(理中丸)을 쓴다.

瘥後虛煩嘔吐，竹葉石膏湯加生姜汁。

병이 나은 뒤에 허번(虛煩)과 구토(嘔吐)가 생겼을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에 생강즙을 더하여 쓴다.

屢經汗下⁶, 食氣⁷膈塞, 食入即吐, 乾姜黃芩黃連人參湯。

토법이나 하법을 여러차례 사용한 뒤에 한기(寒氣)가 흉격을 막아서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할 때는 건강황금황련인삼탕(乾姜黃芩黃連人參湯)을 쓴다.

【359】

汗後, 水藥不入口者, 四逆⁸・半夏茯苓湯。

한법을 쓴 뒤에 약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역증(逆證)이다. 반하복령탕(半夏茯苓湯)을 쓴다.

《金匱要略》曰, 諸嘔吐, 穀不下, 半夏湯⁹。

《금궤요략》에서 말하였다. "구토로 음식을 넘기지 못할 때 소반하탕(小半夏湯)을 쓴다."

嘔吐, 脈滑數, 或洪, 發熱, 茅根湯。

구토를 할 때 맥이 활(滑)·삭(數)하거나 홍(洪)하며, 열이 나는 경우에는 모근탕(茅根湯)을 쓴다.

1. 口舌: 口苦舌乾 ※《상한유서》↩

2. 膈間: 膈滿 ※《상한유서》↩

3. 懷血: 胃脘膿血 ※《상한유서》↩

4. 不利: 下利 ※《상한유서》↩

5. 少氣: 水氣 ※《상한유서》↩

6. 汗下: 吐下 ※《상한유서》↩

7. 食氣 : ㉾ 寒氣 ※이존제각본 ↩

8. 四逆 : ㉾ 逆 ※《상한유서》 ↩

9. 半夏湯 : ㉾ 小半夏湯 ※《상한유서》 ↩



乾嘔 건구

乾嘔者，嘔而無物出也。大抵熱在胃脘，與穀氣并，熱氣上薰，心下痞結，則有此證。太陽，汗出乾嘔，桂枝湯，主自汗也。少陰，下利乾嘔，姜附湯，主下利也。厥陰，吐沫乾嘔，吳茱萸湯，主涎沫也。邪去，則吐自止矣。若有水氣二證，又當以表裏別之。

건구(乾嘔)는 구역질이 나지만 음식물은 나오지는 않는 것이다. 대개 위완(胃脘)에 있는 열(熱)이 곡기(穀氣)와 만나 열기(熱氣)가 위로 훈증되어 심하에서 막히고 맺히면 이 증상이 생긴다. 태양병에 땀이 나고 헛구역질을 할 때는 계지탕(桂枝湯)으로 자한(自汗)을 치료한다. 소음병에 설사를 하고 헛구역질을 할 때는 강부탕(姜附湯)으로 설사를 치료한다. 궤음에 침거품을 토하고 헛구역질을 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침거품을 치료한다. 사기(邪氣)가 제거되면 헛구역질이 절로 멈춘다. 수기(水氣)로 인한 2가지 병증이 있으니 또한 표증(表證)과 이증(裏證)으로 구분해야 한다.

傷寒，表不解，而心下有水氣，乾嘔，身熱微喘，或自利，小青龍湯主之。

상한에 표증이 풀리지 않았을 때 심하에 수기(水氣)가 있어 헛구역질을 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조금 숨이 차고 더러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청룡탕(小青龍湯)을 쓴다.

不發熱，不惡寒，**肋痛**¹，欬而利，乾嘔者，十棗湯下之。

열이 나지 않고 오한도 없으나 옆구리가 아프고 기침을 하며 설사를 하고 헛구역질을 할 때는 십조탕(十棗湯)으로 공하시킨다.

自汗，頭痛，乾嘔，桂枝湯。

자한과 두통이 있으며 헛구역질을 할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少陰，下利，乾嘔，脈微，白通湯。下利不止，乾嘔而煩，厥逆無脈，白通加豬膽汁湯。

소음병에 설사를 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맥이 미(微)할 때는 백통탕(白通湯)을 쓴다. 설사가 멈추지 않으며 헛구역질을 하고 가슴이 갑갑하며(煩) 손발이 차고(厥逆) 맥이 짙이지 않을 때는 백통가저담즙탕(白通加豬膽汁湯)을 쓴다.

惡寒外熱，脈微欲絕，乾嘔，通脈四逆湯。

오한이 들고 밖으로 열이 나며 맥이 미(微)하여 끊어질 듯한데 헛구역질을 할 때는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쓴다.

膈上有寒飲，乾嘔，亦屬少陰，四逆湯。

흉격 위에 한음(寒飲)이 있어 헛구역질을 하는 것도 소음에 속하는 병이니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乾嘔，吐痰沫，頭痛，吳茱萸湯。得此湯反劇者，與小柴胡湯。

헛구역질을 하다 거품 낀 가래를 토하고, 머리가 아플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쓴다. 이 처방을 복용하고 더 심해졌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乾嘔，自利，黃芩湯半夏生姜湯²。

헛구역질과 함께 설사를 할 때는 황금가반하생강탕(黃芩加半夏生薑湯)을 쓴다.

太陽中風，陽浮陰弱，自汗惡風寒，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

태양중풍에 양맥이 부(浮)하고 음맥이 약(弱)하며 자한과 오통한이 있고 열이 나고 코막힌 소리가 나며 헛구역질을 할 때는 계지탕(桂枝湯)으로 치료한다.

乾嘔，噦，若手足厥者，橘皮湯。

헛구역질과 딸꾹질〔噦〕을 하는데 손발이 차가울 때는 귤피탕(橘皮湯)을 쓴다.

1. 肋痛 : 〔脇痛〕※《상한유서》↩

2. 黃芩湯半夏生薑湯 : 〔黃芩半夏生薑湯〕※《상한유서》↩



欬逆、噦 해역과 열

夫咳逆者，俗謂之吃忒是也。纔發聲於喉間則遽止，然連續數聲，然而短促不長。古人謂之噦者，非也。噦與乾嘔無異，但其聲濁惡而長，然皆有聲而無物。病至於噦，則危，難治矣。大抵餉近於噦。餉者，但胸間氣塞不得下通，噦則惡濁之聲達於外矣。蓋因胃氣本虛，汗下太過，或腹飲水，水寒相搏，**虛逆**¹而成。經曰，陽脈浮，則爲氣餉。又曰，脈滑，則爲噦。此爲醫咎，責虛取實之過也。又有熱氣擁鬱，上下氣不得通而噦者，輕則和解之通利之，甚則溫散之。設若不尿，腹滿而噦者，咳逆，脈散而無倫者，雖神醫不能措手，與傷寒咳而氣逆者又不同也。若將**喫忒**²紊於噦與咳而氣逆，則誤人多矣。臨病之際，宜明辯之。

해역(咳逆)은 세상 사람들이 흘뜡(吃忒)이라고 하는 것이다. 목구멍 속에서 잠깐 소리가 났다가 갑자기 멈추고, 억억하고 계속 연달아 여러번 소리가 나지만 길지 않고 짧은 시간동안 난다. 옛 사람들이 열(噦)이라고 한 것은 다르다. 열(噦)은 건구(乾嘔)와 다름 없으나 소리가 지저분하고 불쾌하며 길다. 둘 다 소리는 나지만 구토물은 없다. 병이 들어 열(噦)까지 생긴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치료하기 어렵다. 대개 열(餉)은 열(噦)과 유사하다. 열(餉)은 단지 가슴 속에 기운이 막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것이고, 열(噦)은 불쾌하고 지저분한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위기(胃氣)가 본래 허한데 한법이나 토법을 지나치게 사용하였거나, 마신 물이 배속에서 한(寒)과 서로 다투어 위기(胃氣)가 거슬러 올라 생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부양맥(趺陽脈)이 부(浮)하면 기열(氣餉)이다."【변맥법】 또 말하였다. "맥(脈)이 활(滑)하면 열(噦)이다. 이것은 의사의 잘못으로 허증을 실증처럼 치료한 잘못이다."【변맥법】 또 열기(熱氣)가 막혀 기운이 위아래로 통하지 못하여 열(噦)이 생겼을 때, 가벼운 경우에는 조화시키거나 소통시키고, 심한 경우는 따뜻하게 하여 흩어준다. 만약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그득하면서 열(噦)이 있을 경우, 해역(咳逆)이 있으며 맥이 산(散)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는 비록 신의(神醫)라도 손을 쓸 수

없으니 상한에서 기침 후 기역(氣逆)과도 다르다. 흘뜡(吃忒)을 열(噦)이나 기침 후 기역(氣逆)과 혼동하여 잘못 치료하기 쉽다. 임상에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欬嗽，大便少，與大承氣湯下之，蓋由熱氣衝膈肝肺故耳。若便軟，瀉心湯，胃氣虛而衝脈逆也。若脈散者，不治。咳逆潮熱，小柴胡加橘皮生姜湯。

해수(欬嗽)가 있을 때 대변이 적다면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공하시키는데, 열기(熱氣)가 흉격과 간(肝)·폐(肺)를 치받아 생겨났기 때문이다. 만약 대변이 무르다면 사심탕(瀉心湯)을 쓰는데, 위기(胃氣)가 허하여 충맥(衝脈)으로 기운이 거스른 경우이다. 맥이 산(散)하면 치료할 수 없다. 해수(咳逆)와 조열(潮熱)이 있을 때는 소시호가굴피생강탕(小柴胡加橘皮生姜湯)을 쓴다.

厥逆不止，烏苓湯，有寒者，羌活附子散。

궤역(厥逆)이 그치지 않을 때는 오령탕(烏苓湯)을 쓴다. 오한이 있을 때는 강활부자산(羌活附子散)을 쓴다.

傷寒，表不解，心下有水氣，乾嘔，發熱而咳，或餉，小青龍湯去麻黃，加附子。

상한에 겹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심하에 수기(水氣)가 있어 헛구역질을 하고,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며, 더러 열(餉)이 있는 경우에는 소청룡탕(小青龍湯)에 마황(麻黃)을 빼고 부자(附子)를 더하여 쓴다.【040】

寸口脈浮大，醫反下之，爲逆，又飲冷水，令汗大出，水得寒氣，冷必相搏，其人即餉，荳蔻湯。

촌구맥이 부대(浮大)한데 의원이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고 땀을 많이 내면 수(水)가 한기(寒氣)를 얻게 되어 차가운 기운과 반드시 다투게 되므로 환자에게 곧 열(餉)이 생기게 된다.【변맥법】두구탕(荳蔻湯)을 쓴다.

嘔而腹滿，大便不利，先宜半夏生姜湯，次用承氣湯，小便不利，猪苓湯。

열(嘔)이 있으면서 배가 그득하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먼저 반하생강탕(半夏生姜湯)을 쓰고 이어서 승기탕(承氣湯)을 써야 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저령탕(猪苓湯)을 쓴다.

陽明中風，脈浮弦，小便難，潮熱而嘔，小柴胡湯加茯苓。

양명중풍에 맥이 부(浮)·현(弦)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조열(潮熱)이 나고 열(嘔)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복령(茯苓)을 더하여 쓴다.

嘔嘔，手足冷逆，小橘皮湯。若胸滿虛煩，大橘皮湯，胃氣寒者，吳茱萸理中湯、溫中湯。

구(嘔)와 열(嘔)이 있고 손발이 차가울 때는 소귤피탕(小橘皮湯)을 쓴다. 만약 가슴이 그득하고 허번(虛煩)이 있을 때는 대귤피탕(大橘皮湯)을 쓴다. 위(胃)의 기운이 차가울 때는 오수유이중탕(吳茱萸理中湯)·온중탕(溫中湯)을 쓴다.

《金匱要略》曰，嘔逆者，橘皮竹茹湯主之。嘔不止者，橘皮乾姜湯、半夏生姜湯、退陰散子，宜消息用之。

《금궐요략》에서 말하였다. "열역(嘔逆)은 귤피죽여탕(橘皮竹茹湯)으로 치료한다." 열(嘔)이 멈추지 않을 때는 귤피건강탕(橘皮乾姜湯)·반하생강탕(半夏生姜湯)·퇴음산자(退陰散子)를 증상에 따라 바꿔가며 쓴다.

溫病熱未除，重被暴寒入胃，蘊結不散，變嘔，梓皮飲子。

온병(溫病)에 열이 내리지 않았는데 다시 갑작스럽게 얼은 한기(寒氣)가 위(胃)로 들어가 응결되어 흠어지지 않고 열(嘔)로 변하였을 때는 재피음자(梓皮飲子)를 쓴다.

溫病有熱，飲水暴冷，作嘔，茅根葛根湯。

온병에 열이 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셔서 열(嘔)이 생겼을 때는 모근갈근탕(茅根葛根湯)을 쓴다.

溫病胃冷，變嘔，茅根橘皮湯。

온병에 위(胃)가 차가워 열(嘔)로 변하였을 때는 모근귤피탕(茅根橘皮湯)을 쓴다.

溫病有熱，飲水暴冷，枇杷茅根湯。

온병에 열이 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는 비파모근탕(枇杷茅根湯)을 쓴다.

1. 虛逆：☞胃氣逆 ※《주해상한론》↩

2. 喫忒：☞吃忒 ※문맥상 ↩

下利 하리

傷寒表邪傳裏，裏虛助熱，則自下利。又有不應下而便攻之，內虛協熱，亦爲下利，要當別其陰陽。三陽下利，自¹，太陽²下利，手足溫，少陰、厥陰下利，身涼無熱，此大槩也。自利清穀，不渴，小便色白，微寒³，厥冷，惡寒，凡此皆寒。渴欲飲水，溺色如常，泄下赤黃，發熱後重，凡此皆熱。蓋因風邪入胃，水來侮土，故令暴下。或溫或攻，或清⁴下焦，或利小便，隨證施治，但不宜發汗耳。邪氣內攻，復泄其津液，胃氣轉虛，必成脹滿。若夫下利，譫語而目直視，下利，厥⁵不得眠，下利，發熱，厥而自汗，下利，厥冷無脈，灸之不溫⁶而脈不出，下利日數十行，其脈反實，皆爲不治之證，五者最忌者也⁷。

상한에 겹에 있던 사기(邪氣)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속이 허하여 열을 조장하면 절로 설사가 난다. 또 하법이 적당하지 않을 때 공하시키면 안이 허한데 열(熱)이 겹해져 또한 설사를 한다. 요컨대, 증상의 음양을 구분해야한다. 삼양병(三陽病)의 하리는 몸에서 열이 나고, 태음병의 하리는 손발이 따뜻하며, 소음병과厥음병의 하리는 몸이 차갑고 열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큰 기준이다. 설사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오는 경우, 갈증이 없는 경우, 소변색이 맑은 경우, 맥이 미(微)한 경우, 손발이 차가운 경우, 오한이 드는 경우는 모두 한증(寒證)이다.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는 경우, 소변 색이 평소와 같은 경우, 설사로 나온 변의 색이 붉거나 누런 경우, 열이 나는 경우, 뒤가 무거운 경우는 모두 열증(熱證)이다. 풍사(風邪)가 위(胃)로 들어가면 수(水)가 토(土)를 업신여기므로 갑자기 설사를 하게 한다. 온법이나 하법이나 하초(下焦)를 건고히 하거나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등 증상에 따라 치료하지만 한법만은 써서는 안된다. 한법을 쓰면 사기(邪氣)가 속으로 공격하여 더욱 진액을 배출시키고 위기(胃氣)를 허하게 만들므로 반드시 창만이 생기게 된다. 설사를 하며 헛소리를 하고 눈을 곧추뜨는 경우, 설사를 하며 손발이 차고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설사를 하며 열이 나고 손발이 차며 자한이 있는 경우, 설사를 하

며 손발이 차고 맥이 짚이지 않는데 땀을 떠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고 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설사를 하루 수십번 하지만 환자의 맥이 도리어 실(實)한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없는 증상으로, 오탈(五奪)⁸ 가운데 가장 위급한 경우이다.

太陽陽明合病下利，頭目痛，鼻乾，脈浮，葛根湯。

태양양명합병으로 설사를 할 때는 머리와 눈이 아프며 코가 건조하고 맥이 부(浮)하다. 갈근탕(葛根湯)을 쓴다.

太陽少陽合病下利，頭痛，胸滿，乾嘔，脈浮弦，黃芩湯，嘔甚，加半夏、生姜。

태양소양합병으로 설사를 할 때는 머리가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맥이 부(浮)·현(弦)하다. 황금탕(黃芩湯)을 쓴다. 구토가 심할 때는 반하(半夏)와 생강(生姜)을 더하여 쓴다.

少陽陽明合病下利，身熱，胸脇滿，乾嘔，往來寒熱，脈長大而弦，弦而爲負，負者死，長大不弦爲順，大承氣湯下之。滑而數，爲有宿食，亦從下之。

소양양명합병으로 설사를 할 때는 몸에서 열이 나며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오한과 발열이 왕래한다. 맥이 장(長)·대(大)하며 현(弦)한 것은 서로 어긋난 경우(負)이니 어긋나면 죽게되고, 맥이 장(長)·대(大)하며 현(弦)하지 않은 것은 순증(順證)이니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활(滑)하면서 삭(數)한 것은 숙식(宿食)이 있는 경우이니 또한 앞의 방법과 같이 공하시킨다.【256】

太陽病，未解而欲下之，遂熱⁹而利，心下痞硬，表裏不解者，桂枝人參湯。

태양병에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하법을 시도하여 열을 동반하고 설사를 하며 심하가 답답하고 표리(表裏)의 증상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계지인삼탕(桂枝人參湯)을 쓴다.【163】

太陰自利，不渴，四逆湯、理中湯、朮附湯。

태음병으로 설사를 할 때는 갈증이 나지 않는다. 사역탕(四逆湯)、이중탕(理中湯)、출부탕(朮附湯)을 쓴다.

少陰下利，不渴¹⁰，腎虛，飲水自救，脈微者，白通湯，厥逆無脈者，白通加豬膽汁湯、四逆湯¹¹。少陰下利，渴而嘔，止煩¹²不得眠者，豬苓湯。少陰下利，咽痛胸滿，心煩者，豬膚湯。

소음병으로 설사를 할 때는 갈증이 있는데, 이것은 신(腎)이 허하여 스스로 물을 찾는 것이다. 맥이 미(微)하면 백통탕(白通湯)을 쓴다. 손발이 차고 맥이 짙히 않으면 백통가저담즙탕(白通加猪膽汁湯)、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을 쓴다. 소음병으로 설사를 하고 갈증이 나며 구역질을 하고 심번(心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저령탕(猪苓湯)을 쓴다.【319】소음병으로 설사를 할 때 목구멍이 아프며 가슴이 그득하고 심번(心煩)이 있으면 저부탕(猪膚湯)을 쓴다.【310】

自利清水，心下必痛，口中乾燥，此不可溫，宜用下，大承氣湯。

맑은 물을 설사하고 심하가 확실히 아프며 입 속이 마를 때는 온법(溫法)을 써서는 안되며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321】

傷寒，醫下之，續得下利清穀，身痛者，急當救裏，宜四逆湯，清便自調，急當救表，宜桂枝湯。

상한(傷寒)에 의원이 하법을 사용하고 나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고 몸이 아플 때는 급히 속을 치료해야 하므로 사역탕(四逆湯)을 써야 한다. 설사가 조절된 뒤에는 급히 겉을 치료해야 하므로 계지탕(桂枝湯)을 쓴다.【091】

胃熱利白腹垢¹³，臍下必熱，便下垢膩赤黃，或渴，黃芩湯、白頭翁、柏皮湯¹⁴通用之，白虎湯。

열을 끼고 나타나는 설사(協熱利)를 장구(腸垢)라고 하는데, 아랫배가 분명 뜨겁고, 대변으로 떼나 기름기 같은 것이 붉거나 누렇게 나오며, 더러 갈증이 나기도 한다. 황금탕(黃芩湯)·백두옹탕(白頭翁湯)·백피탕(柏皮湯)을 두루 사용한다. 백호탕(白虎湯)을 쓰기도 한다.

胃寒利白鴨瀉¹⁵, 濟下¹⁶必冷, 腹脹滿, 便中清白¹⁷, 或清穀, 四逆湯、理中湯。寒毒下利, 面帶陽¹⁸者, 下虛也。

위(胃)에 한(寒)이 있어 나타나는 설사를 압당(鴨瀉)이라고 하는데, 아랫배가 분명히 차며 배가 창만하고, 대변 색이 누렇거나 희거나 푸르거나 검으며, 더러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섞여 나온다. 사역탕(四逆湯)·이중탕(理中湯)을 쓴다. 한독(寒毒)으로 설사를 할 때 얼굴에 양기(陽氣)가 떠오르는 것은 아래가 허하기 때문이다.

下利譫語, 有燥屎也, 脈不微細, 小承氣湯。

설사를 할 때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이다. 맥이 미세(微細)하지 않다면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尺脈弦, 腸鳴泄利, 腹痛者, 冷痛也, 小建中湯。三部平, 心¹⁹硬而下利者, 腸胃積結也, 宜下之, 大承氣湯。

척맥이 현(弦)하고 장명(腸鳴)과 함께 설사가 나며 배가 아픈 것은 차가워서 생긴 통증이다.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삼부맥(三部脈)이 고르고 심하가 단단하며 설사를 하는 것은 장위(腸胃)에 숙식(宿食)이 쌓이고 맺힌 경우이니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下利, 脈滑, 當有所去, 下之乃愈, 大承氣湯。下利, 脈大者, 虛也, 以其強下之故也。設脈浮革, 因爾腸鳴者, 當歸四逆湯。

설사를 할 때 맥이 활(滑)하면 제거해야할 것이 있는 경우이니 공하시키면 곧 낫는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설사를 할 때 맥이 대(太)한 것은 허증이다. 억지로 하법을 썼기 때문이다. 만약 맥이 부(浮)·혁(革)하고 설사에 장명(腸鳴)이 동반될 때는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下利瘥後至其年月復發者，以痛²⁰不盡故也，宜下之，大承氣湯。

설사가 낫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한 것은 병이 다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법을 써야 하므로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변가하병】

1. 自：☞身熱 ※《상한가비적본》↩

2. 太陽：☞太陰 ※《상한가비적본》↩

3. 微寒：☞脈微 ※《상한유서》↩

4. 清：☞固 ※《상한유서》↩

5. 厥躁：☞厥躁 ※《상한유서》↩

6. 不溫：☞身不溫 ※《상한유서》↩

7. 五者最忌者也：☞五奪之最急者 ※《상한유서》↩

8. 오탈(五奪)：원기(元氣)가 허손되어 사법(瀉法)을 쓸 수 없는 5가지 증상으로, 《영추(靈樞)》〈오금(五禁)〉에 보인다. ↩

9. 遂熱：☞遂協熱 ※《상한론》【163】↩

10. 不渴：☞而渴 ※《활인서》↩

11. 四逆湯：☞通脈四逆湯 ※《상한유서》↩

12. 止煩：☞心煩 ※《상한론》【319】↩

13. 胃熱利白腹垢 : ㉞協熱利者曰腸垢 ※《상한유서》↩

14. 柏皮湯 : 薛翁湯 ※《상한유서》↩

15. 胃寒利白鴨溏 : ㉞胃寒利者曰鴨溏 ※《상한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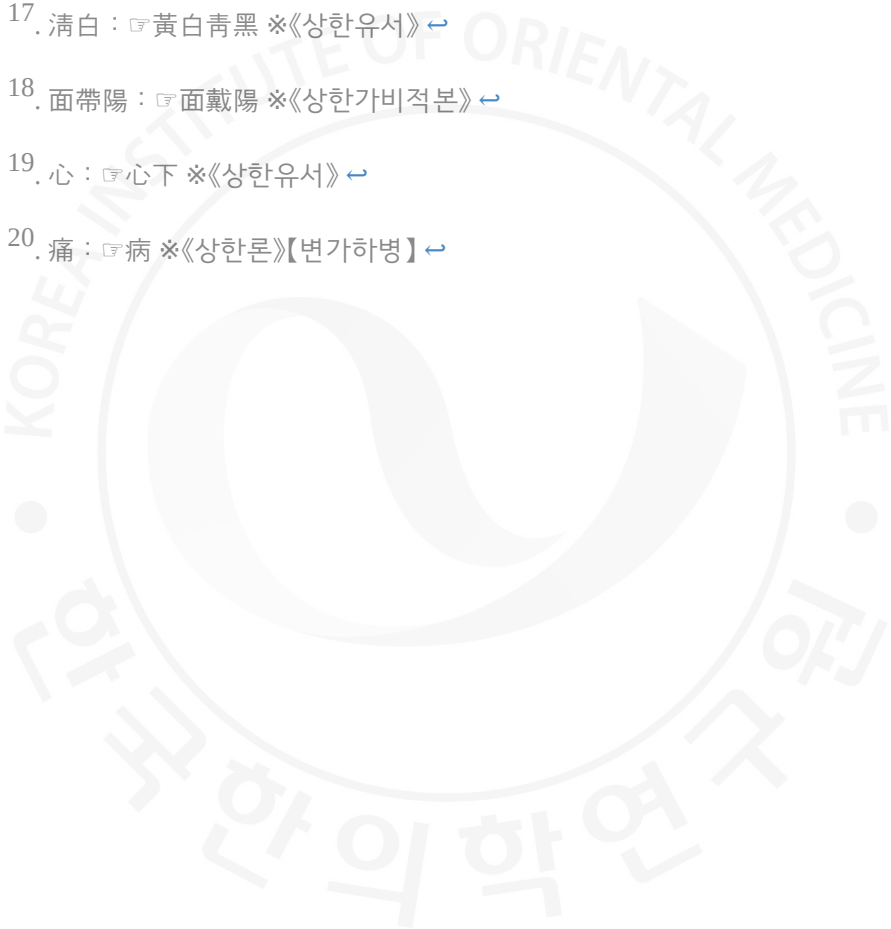
16. 濟下 : ㉞臍下 ※《상한유서》↩

17. 清白 : ㉞黃白青黑 ※《상한유서》↩

18. 面帶陽 : ㉞面戴陽 ※《상한가비적본》↩

19. 心 : ㉞心下 ※《상한유서》↩

20. 痛 : ㉞病 ※《상한론》【변가하병】↩



便膿血 변농혈

衝脈爲血之海，卽血室也。男女均有此血氣，均有此衝脈。衝之得熱，血必妄行。在男子，則爲下血譫語，在婦人，則爲寒熱似瘧，皆爲熱入血室。逼血下行，則血熱而利也。挾血之脈，乍澁乍數，或伏或沈。血熱交併¹，則脈洪盛。大抵男多於左手，女多於右手見之。又有陰寒爲病，下利便膿血者，乃下焦虛寒，腸胃堅固，清濁不分而利下膿血也。二者一爲挾血，一爲陰寒，臨病宜精別焉。

충맥(衝脈)은 혈(血)이 바다와 같이 모이는 곳으로 곧 혈실(血室)이다.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이 혈기(血氣)가 있고, 모두 이 충맥(衝脈)이 있다. 충맥이 열(熱)을 받으면 혈(血)이 반드시 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남자는 혈변(血便)을 보고 섬어(譫語)를 하며, 부인(婦人)에게는 학질과 같이 오한과 발열이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열(熱)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것이다. 혈(血)이 압박 받아 아래로 움직이면 혈이 뜨거워져 나오게 된다. 혈(血)을 끼고 있으면 맥이 째깍 삼(澁)하기도 하고 삭(數)하기도 하며, 더러 복(伏)하기도 하고 침(沈)하기도 한다. 혈(血)과 열(熱)이 서로 공격하면 맥이 홍성(洪盛)하다. 대개 남자는 주로 왼손에, 여자는 주로 오른손에 이러한 맥이 나타난다. 또 음한(陰寒)이 병이 되어 설사를 하며 대변에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하초(下焦)가 허한(虛寒)하고 장위(腸胃)가 견고(堅固)하여 청기(清氣)와 탁기(濁氣)가 나뉘지 않고 피고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다. 이 2가지에서 1가지는 협혈(挾血) 때문이고 다른 1가지는 음한(陰寒) 때문이니 병을 대할 때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而血自下者，愈，不愈，用桂枝湯，《明理論》抵當湯。

태양병이 풀리지 않았는데 열(熱)이 방광(膀胱)에 맺히면 환자가 미친 듯하다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나서 낫는다. 낫지 않으면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에는 저당탕(抵當湯)을 쓴다고 하였다.

陽明病，下血譫語，胸脇滿如結胸，夜則見鬼，此爲熱入血室，小柴胡湯。

양명병에 하혈과 섬어(譫語)가 있고 결흉과 같이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며 밤에 귀신을 본 듯한 것은 열(熱)이 혈실(血室)로 들어간 경우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少陰病，下利便膿血者，桃花湯。

소음병에 설사로 피고름이 나올 때는 도화탕(桃花湯)을 쓴다.

腹滿²，身熱，下³如魚腦，曰濕毒，桃花湯、地榆散、黃連阿膠湯。

배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며 물고기 뇌와 같은 고름이 대변으로 나오는 것을 습독(濕毒)이라고 한다. 도화탕(桃花湯)、지유산(地榆散)、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을 쓴다.

下後無表裏證，脈數不解散⁴，消穀易飢，多日不大便，此爲瘀血，桃仁承氣湯、抵當湯，或小柴胡湯加桃仁、大黃。

설사 후에 표증이냐 이증이 없으나 맥이 삭(數)하고 병이 풀리지 않으며, 소화 가 잘 되어 쉽게 배가 고프고, 여러날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혈(瘀血) 때 문이다.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저당탕(抵當湯) 또는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도인(桃仁)과 대황(大黃)을 더하여 쓴다.

下焦畜血，其人如狂，小腹急結，小便必利，抵當丸。

하초(下焦)에 축혈(畜血)이 있을 때는 환자가 미친 듯하며, 아랫배가 당기고 마치지만 소변이 분명 많이 나온다. 저당환(抵當丸)을 쓴다.

1. 併：㉔攻 ※《상한유서》↩

2. 腹滿：㉔腹痛 ※《상한유서》↩

3. 下 : 下膿血 ※《상한유서》↩

4. 不解散 : 不解 ※《상한유서》↩



四逆 사역

手足不溫，謂之四逆。邪在表，則手足熱，邪在表裏之間，則手足溫。至於邪傳少陰，則手足有逆冷¹之證，與厥陰²又相遠也。然自熱而至溫，自溫而至厥³，乃傳經之邪，輕則四逆散，重則承氣湯下之。非若得病⁴，手足便逆而不溫者，四逆湯溫之，則爲陰經受邪，而陽氣不足也。其或吐利煩燥，厥逆踈臥，皆屬少陰，又爲不治之證。

손발이 따뜻하지 않은 것을 사역(四逆)이라고 한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손발에서 열이 나고, 사기가 겉과 속 사이에 있으면 손발이 따뜻하다. 사기가 소음으로 전경되면 손발에 사역(四逆)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궤냉(厥冷)과 상당히 다르다. 손발이 뜨거웠다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졌다 사역(四逆)이 되는 것은 전경(傳經)된 사기(邪氣) 때문이니, 가벼운 경우에는 사역산(四逆散)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승기탕(承氣湯)으로 공하시킨다. 만약 병이 생긴 이래로 손발이 바로 차가워 따뜻하지 않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이것은 음경(陰經)이 사기(邪氣)를 받아 양기(陽氣)가 부족한 경우이다. 또한 구토와 설사를 하고 번조(煩躁)가 있으며 손발이 차갑고 몸을 웅크리려 하는 것은 모두 소음(少陰)에 속하는 병증으로, 치료할 수 없는 증상이다.

少陰病四逆，其人或咳或悸，或小便不利，或腹中痛滿，或利下重，並四逆散。初病以來，厥冷四逆，卽四逆湯。

소음병에 손발이 차가운데,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배 속이 아프고 그득하거나, 설사를 하며 뒤가 무겁거나 할 때는 모두 사역산(四逆散)을 쓴다. 처음 병이 생겨 손발이 차가울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手足逆冷，大便閉，小便赤，或大便黑色，脈沈而滑，此爲陽證，以白虎湯，甚者，大承氣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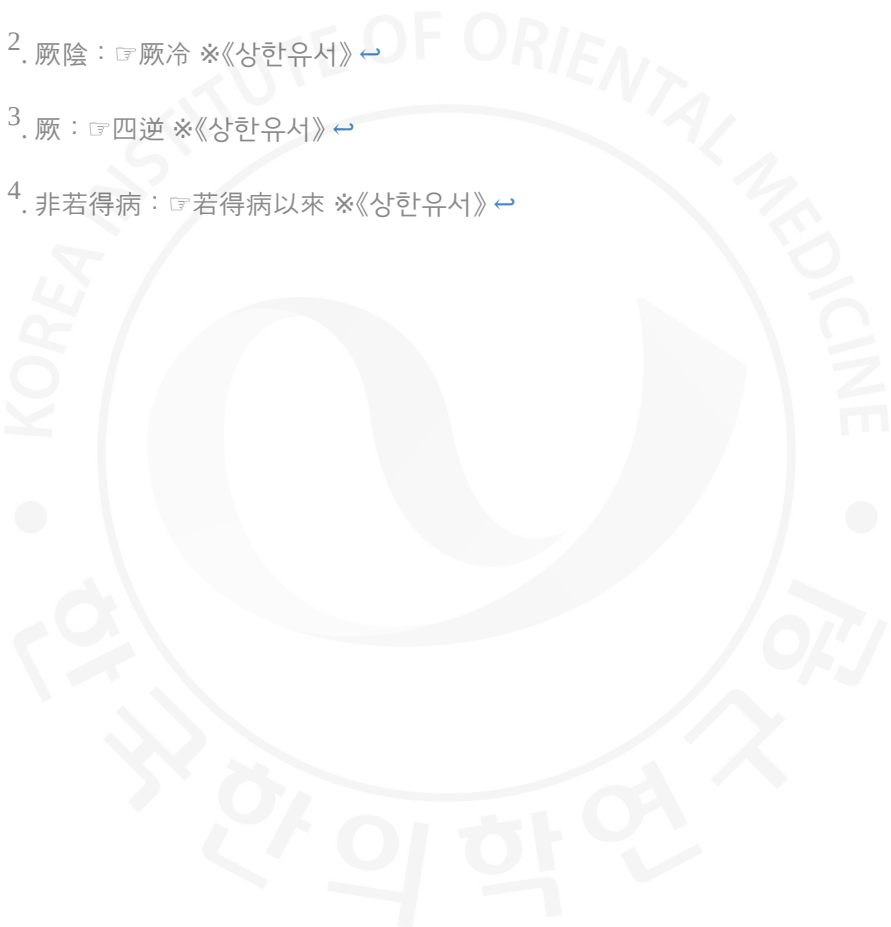
손발이 차갑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소변이 붉으며 더러 대변이 검기도 하고 맥이 침(沈)하고 활(滑)한 것은 양증(陽證)이다.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심한 경우에는 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1. 手足有逆冷 : 有手足四逆 ※《상한유서》↩

2. 厥陰 : 厥冷 ※《상한유서》↩

3. 厥 : 四逆 ※《상한유서》↩

4. 非若得病 : 若得病以來 ※《상한유서》↩



厥逆 결역

陽氣伏藏，陰氣越出，陰陽不相順接，所以厥也。若先熱而後厥者，乃熱邪伏於內也。先厥而後熱者，乃陰退而陽得復也。若始得病便厥者¹，是陽不足而陰勝也。熱浮於內者²，其脈沈而數，狂言發渴，露手揚衣，燥³不得眠，或大便閉。初便厥者⁴，其脈沈遲而弱，醒醒而靜，惡寒引衣，或下利清穀也。其或惡寒踰臥，煩躁下利，不知人，皆爲惡候，故曰逆也。

양기(陽氣)는 잠복하고 음기(陰氣)는 퍼져나오면 음양이 서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아 결(厥)이 생기게 된다. 먼저 열이 난 뒤에 결(厥)이 생기는 것은 열사(熱邪)가 안에 잠복한 경우이다. 먼저 결(厥)이 생긴 뒤에 열(熱)이 나는 것은 음(陰)이 물러나 양(陽)이 회복된 경우이다. 모든 양이 팔다리에 모이므로, 양(陽)이 부족하고 음(陰)이 우세하면 결역이 생긴다. 열(熱)이 안에서 잠복하여 먼저 뜨거웠다가 나중에 결(厥)이 생긴 경우는 열결(熱厥)이다. 맥(脈)이 침(沈)하고 삭(數)하며, 미친 듯 말하고 갈증이 나며 팔을 걷고 옷을 벗으며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변을 보지 못하기도 한다. 처음 병을 얻자마자 결(厥)이 생긴 경우는 냉결(冷厥)이다. 맥이 침(沈)·지(遲)하고 약(弱)하며, 정신이 또렷하고, 오한이 들어 옷을 입으려 하며, 설사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오한이 들고 몸을 웅크리거나, 번조(煩躁)가 있고 설사를 하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거스르는 증상(逆)'이라고 하였다.

先發熱而後厥者，揚手擲足，煩躁飲水，畏熱，頭汗，大便閉，小便赤，怫鬱昏悸⁵，當下失下，血氣不通，所以謂熱深則厥⁶者，此也，大柴胡湯、小承氣選而用之。

먼저 열이 난 뒤에 결(厥)이 있는 경우는,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번조(煩躁)가 생겨 물을 마시려고 하며 더운 것을 싫어하고 머리에서 땀이 나며 대변이 나오지 않고 소변이 붉으며 불울(怫鬱)이 생기고 정신이 흐리다. 하법을

써야 할 때 하법을 쓰지 못하여 혈기(血氣)가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열이 깊어지면 궐이 된다고 한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대서호탕(大柴胡湯)이나 대승기탕(小承氣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初病便厥，足攣，惡寒引衣自蓋，不渴，大小便自利，默默而惶惶⁷，諸四逆選用之。

처음 병이 들어 바로 궐(厥)이 나타나고 다리가 당기며 오한이 들어 옷이나 이불을 덮으려 하고 갈증은 없으며 대소변이 잘 나오고 말 없이 무언가 두려워할 때는 사역탕(四逆湯) 부류의 처방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傷寒，厥而心下悸者，宜先治悸，茯苓桂甘湯，後治厥，四逆湯。

상한에 궐(厥)이 있으면서 심하까지 두근거릴 때는 먼저 복령계감탕(茯苓桂甘湯)으로 두근거림을 치료하고, 그런 뒤에 사역탕(四逆湯)으로 궐(厥)을 치료한다.

吐利厥逆，煩燥欲死者，吳茱萸湯、當歸四逆湯，仍灸太谿。

구토와 설사를 하며 궐역(厥逆)이 있고 번조(煩躁)로 죽을 듯할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 다음 태계(太谿)에 뜸을 뜬다.

1. 若始得病便厥者：☞蓋諸陽會於四末 ※《상한유서》↩

2. 熱浮於內者：☞熱伏於內，先熱而後厥者，是爲熱厥 ※《상한유서》↩

3. 燥：☞躁 ※《상한유서》↩

4. 初便厥者：初病便厥者，是爲冷厥 ※《상한유서》↩

5. 昏悸：☞昏憤 ※《상한유서》↩

6. 厥：☞厥深 ※이존제각본 ↩

7. 惶惶 : 醒醒 ※《상한유서》↩



不大便 불대변

不大便, 謂大便難也。皆因發汗, 利小便, 耗其津液, 以致腸胃乾燥, 而轉屬陽明裏者多矣。其小便自數者, 則爲津液偏勝, 故使大便亦難也。若下, 若發汗, 小便數, 大便硬者, 與承氣湯和之, 謂津液內竭也。又有不宜便下者, 至於脈浮, 脈虛, 惡寒, 此尤帶表邪, 乃不可下。其嘔吐, 爲邪未入腑, 雖有陽明證, 不可攻之。小便清者, 知邪不在裏, 仍在表也。大便難, 小便少, 不轉失氣, 此內無燥屎也, 但初硬後溏爾。陽明脈浮, 或經發汗, 小便自利, 不大便者, 亦津液內竭, 宜蜜導煎通之。經曰, 其脈浮而數, 能食, 不大便, 此爲實, 名曰陽結也, 宜大柴胡湯。若不了了, 得屎而解。其脈沈而遲, 不能食, 身體重, 大便反難, 名曰陰結也, 宜金液丹。

불대변(不大便)은 대변 보기 힘들다는 말이다. 모두 한법이나 소변을 내보냈거나 하여 진액이 소모되어 장위(腸胃)가 메말라 양명 이증(裏證)으로 전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 없이 소변이 잦으면 진액(津液)이 한쪽으로 치우치므로 대변도 잘 나오지 않는다. 하법이나 한법을 쓴 뒤에 소변이 잦고 대변이 단단할 때 승기탕(承氣湯)을 주어 풀라는 것은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었다는 말이다. 또 하법을 써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맥이 부(浮)하거나 맥이 허(虛)하고 오한이 드는 경우, 이것은 표사(表邪)가 있는 경우이니 하법을 쓸 수 없다. 구토를 하는 것은 사기(邪氣)가 부(腑)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이니 비록 양명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하시켜서는 안된다. 소변이 많으면 사기(邪氣)가 속에 있지 않고 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변도 적으나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안에 조시(燥屎)가 없는 것이다. 먼저 처음에는 단단하지만 나중에는 무를 것이다. 양명병에 맥이 부(浮)하거나 이미 한법을 사용하여 소변은 잘 나오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진액이 안에서 고갈된 경우이니 밀도전(蜜導煎)으로 소통시켜야 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맥이 부(浮)하며 삭(數)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

은 실증(實證)으로 양결(陽結)이라고 한다.【변맥법】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 만약 좋아지지 않으면 대변을 본 뒤에 풀린다.【148】맥이 침(沈)하고 지(遲)하며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몸이 무거운데 대변이 도리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음결(陰結)이라고 한다. 금액단(金液丹)을 써야 한다.

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者，小承氣湯。

상한에 6 - 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여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날 때에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病人不大便六七日，**繞臍**¹，煩燥，發作有時者，此爲屎硬不得大便，小承氣湯。

환자가 6 - 7일 동안 대변을 보지 못하여 배꼽 주변이 아프며 번조(煩躁)가 있어 정해진 때에 발작하는 경우는 조시(燥屎)가 있어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239】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

夫病陽明者，下之則硬，汗多極，發其汗則亦硬，並小柴胡湯。

양명병에 하법을 쓰면 대변이 단단해지고, 땀을 매우 많이 흘릴 때도 하법을 쓰면 대변이 단단해 진다. 모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陽明病，脇下硬滿，不大便而嘔，舌上白胎，小柴胡湯。

양명병에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며 혀 위에 백태가 끼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230】

少陰病六七日，腹脹不大便，急下之，大承氣湯。

소음병 6 - 7일에 배가 창만하고 대변을 보지 못할 때는 급히 하법을 써야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쓴다.

若發汗，若利小便，津液內竭，大便自難者，不可攻之。無陰陽，強大便者，下之，必清穀脹滿，並用蜜導煎。

만약 한법이나 소변을 내보내는 치법으로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공하시켜서는 안된다. 음증과 양증이 없고 억지로 대변을 보아야 할 때 하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고 창만이 생기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밀도전(蜜導煎)을 쓴다.

1. 繞臍 : ㉠繞臍痛 ※《상한론》【239】↩



譫語 [鄭聲附] 섬어 [정성]

經曰，邪氣盛則實，精氣奪則虛。故實則譫語，虛則鄭聲。傷寒，胃中熱盛，上乘於心，心爲熱冒，則神識昏迷，妄有所見而言也，輕者睡中呢喃，重者不睡亦語。亦有譫語者，有獨語者，有語言不休者，有言亂者，凡此見其熱之輕重也。大抵熱入于胃，水涸屎燥，必發譫語。又有被火劫者，有亡陽者，名各不同。但氣短者死，脈自和則愈。或喘滿，氣逆而上奔，自利，柔脫而奪下¹，皆爲逆也。

《소문(素問)》에서 "사기(邪氣)가 왕성하면 실증(實證)이 되고, 정기(精氣)가 소진되면 허증(虛證)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경문(經文)에서 "실증에는 섬어(譫語)가 생기고, 허증에는 정성(鄭聲)이 생긴다."【210】라고 하였다. 상한으로 위(胃) 속에서 왕성해진 열(熱)이 위로 심(心)에 침입하여 심(心)이 열로 둘러 쌓이면 정신이 흐릿하게 되어 헛것을 보고 말하게 된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면서 중얼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지 않아도 말을 한다. 또 섬어(譫語)、혼잣말(獨語)、쉼 없이 말하기(語言不休)、두서없이 말하기(言亂)가 있으니, 모두 그 열(熱)의 경중을 나타낸다. 대개 열이 위(胃)로 들어가면 진액이 마르고 대변이 딱딱해지며 반드시 섬어(譫語)를 하게 된다. 또 화법(火法)을 받은 경우, 망양(亡陽)이 된 경우도 있으니 각기 다르다. 그러나 숨이 짧으면 죽고 맥이 조화로우면 낫는다. 혹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하며 섬어를 하는 것은 기운이 거슬러 위로 솟구친 경우이고, 설사를 하며 섬어를 하는 것은 기운이 모두 소진되어 아래로 빠져나간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역증(逆證)이다.

譫語者，脈洪數，大便閉，小便赤，手足溫，與調胃承氣湯。胃實譫語，身熱汗多，便難，或潮熱，諸承氣湯選用之。

섬어(譫語)가 있을 때, 맥이 홍(洪)、삭(數)하며 대변이 나오지 않고 소변이 붉으며 손발이 따뜻할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위(胃)가 실(實)하고 섬어(譫語)가 있으며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더러 조열(潮熱)이 있을 때는 여러 승기탕(承氣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發汗多，亡陽，譫語，身自和，不可下，柴胡桂枝湯。下利譫語，爲有燥屎，脈不微細，小承氣湯。利不止者，不治。

한법으로 땀을 많이 내서 망양(亡陽)이 되어 섬어(譫語)가 생긴 경우는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하법을 써서는 안되고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쓴다. 설사를 하며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기 때문이니, 맥이 미세(微細)하지 않으면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쓴다.【374】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三陽合病譫語者，脈滑石²，身重難以轉側，口中不仁，面垢遺尿，不可汗下，與白虎湯。

삼양합병으로 생긴 섬어(譫語)에는, 맥이 활(滑)·실(實)하고 몸이 무거워 뒤척이기 어려우며 입맛이 없고 얼굴에 때가 낀 듯하고 소변을 지린다. 한법이나 하법을 써서는 안되고 백호탕(白虎湯)을 써야 한다.【219】

傷寒，大熱乾嘔，呻吟錯語，不得眠，犀角解毒湯。

상한에 열이 심하게 나고 헛구역질을 하며 앓는 소리를 내고 두서 없이 말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서각해독탕(犀角解毒湯)을 쓴다.

得病無熱，但狂言，煩燥不安，精采不與人相當，與五苓散二錢，以新汲水吐之則愈。一法用猪苓湯。

병을 얻어 열은 없으나 광언(狂言)을 해대며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여 타인과 서로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오령산(五苓散) 2돈을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먹이고 구토시키면 낫는다. 다른 곳에는 저령탕(猪苓湯)을 쓴다고 하였다.

瘀血狂言譫語，漱水，大便黑色，小便多，身黃，腹滿，此爲當汗不汗，皆熱³在裏，輕者犀角地黃湯，甚者桃仁承氣湯、抵當丸。

어혈(瘀血)로 광언(狂言)이나 섬어(譫語)를 할 때는,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며 대변 색이 검고 소변이 많이 나오며 몸이 누르고 배가 그득하다. 이것은 한법을 써야 할 때 한법을 쓰지 않아 쌓인 열(蓄熱)이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가벼운 경우에는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 심한 경우에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저당환(抵當丸)을 쓴다.

婦人熱入血室，晝靜夜譫，如見鬼狀，小柴胡湯。

부인이 열입혈실(熱入血室)로 낮에 고요하나 밤에 귀신을 본 듯이 섬어(譫語)를 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陽明病，其人喜忘，必有瘀血，抵當丸。

양명병에 환자가 무엇이든 잘 잊는 것은 분명 어혈(瘀血)이 있는 경우이니, 저당환(抵當丸)을 쓴다.

鄭聲者，重語也，又爲不正之音也。傷寒鄭聲，如鄭衛之音，不正也。蓋因後汗⁴，若病人本音失而正氣虛，則鄭重，語不知高下，乃精氣奪之候也。其脈微細，二便利，用白虎湯⁵。

정성(鄭聲)은 중탁한 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또 올곧지 못한 소리라고도 한다. 상한의 정성(鄭聲)은 정(鄭)나라나 위(衛)나라의 음악과 같이 올곧지 못한 것이다. 대개 한법을 쓴 뒤 환자가 본래 목소리를 잃고 정기(正氣) 허해지면 음색이 중탁하여 목소리에 높낮이가 없어지니 정기(精氣)가 빠져나간 증후이다. 이때 맥이 미세(微細)하고 대변과 소변이 잘 나오면 백호탕(白虎湯)을 쓴다.

1. 柔脫而奪下：☞氣脫而下奪 ※《상한유서》☞

2. 滑石：☞滑實 ※《상한가비적본》☞

3. 皆熱：☞蓄熱 ※《상한유서》☞

4. 後汗 : 汗後 ※《상한가비적본》↩

5. 白虎湯 : 小柴胡湯 ※《상한가비적본》↩



小便不利 [小便難附] 소변불리 [소변난]

邪氣聚於下焦，結而不散，甚則小腹硬滿而痛，此小便所以不通。大抵有所不利者行之，**所以滲泄¹**也。若飲水過多，下焦**畜熱²**，或中濕發黃，水飲停留，皆以利小便爲先。惟汗後亡津液，**胃汁乾³**，與陽明汗多者，則以利小便爲戒。設或小便不利而見頭汗者，乃爲陽脫關格之**疾⁴**矣。

사기(邪氣)가 하초에 모여 맺혀서 흩어지지 않은 경우, 심하면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하면서 아픈데 이것이 소변이 소통되지 않는 원인이다. 잘 흐르지 않는 것은 움직이게 해주어야 하므로 소변을 내 보낸다. 만약 지나치게 물을 마신데다 하초에 열이 쌓였거나, 습(濕)에 적중되어 발황(發黃)이 생기고 수음(水飲)이 정체되었을 때는 모두 우선 소변을 내보내 준다. 한법을 쓴 뒤에 진액(津液)이 소진되어 위(胃)의 진액이 마른 경우와, 양명병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변을 내보내는 치법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양기(陽氣)가 탈진되어 관격(關格)의 병이 생긴 경우이다.

飲水過多，下焦**畜血熱⁵**，小便不利，脈浮者，用五苓散，脈沈者，猪苓湯。

물을 지나치게 마신데다 하초에 열이 쌓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맥이 부(浮)하면 오령산(五苓散)을 쓰고 맥이 침(沈)하면 저령탕(猪苓湯)을 쓴다.

太陽病，身黃，脈沈者，猪苓湯。太陽病，身黃，脈沈結，小腹硬，小便不利者，爲亡血也，五苓加茵陳。嘔而發熱，胸滿，心下怔忡，小便不利者，爲亡血也，五苓加茵陳、茯苓。

태양병에 몸에 발황(發黃)이 있고 맥이 침(沈)할 때는 저령탕(猪苓湯)을 쓴다. 태양병에 몸에 발황(發黃)이 있고 맥이 침(沈)·결(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망혈(亡血)이다. 오령산에 인진을 더하여 사용

한다. 구역질을 하고 열이 나며 가슴이 그득하고 심하까지 심하게 두근거리며〔心下怔忡〕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망혈(亡血)이다. 오령산에 인진과 복령을 더하여 쓴다.

少陰病，四逆，或小便不利，四逆散加茯苓。

소음병에 팔다리가 싸늘하고 더러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사역산(四逆散)에 복령을 더하여 쓴다.

陽明病，無汗，小便不利，心下懊憹⁶者，身必發黃，五苓散加茵陳。

양명병에 땀이 나지 않고 소변도 잘 나오지 않으며 가슴 속이 괴로우면 몸에 분명 발황(發黃)이 생길 것이다. 오령산(五苓散)에 인진(茵陳)을 더하여 쓴다.

經曰，虛則小便難⁷。陰虛者，陽必湊之，由膀胱受熱，致小便赤澀而不流利也。又曰，雖不大便也，六七日而小便少者，但初硬後溏，未定或硬⁸，攻之必溏。縱⁹小便多，尿定硬，方可攻之。乃胃中水穀不別，雖通而不能¹⁰也。

경문에서 말하였다. "음(陰)이 허(虛)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111】음이 허(虛)하면 반드시 양(陽)이 모여 들기 때문에 방광(膀胱)에 열이 몰려서 소변이 붉고 갈갈하며 시원하지 않다. 또 말하였다. "대변을 보지 못한지 6-7일에 소변 양이 적은 경우에는 대변이 처음에는 단단하지만 나중에는 풀어져 나올 것이다. 아직 단단해 지지 않은 상태를 잘못 공하시키면 분명 설사를 하게 된다. 소변이 많고 대변이 단단해야 비로소 공하시킬 수 있다."【251】위(胃) 속의 수곡(水穀)이 분별되지 않으면 비록 소변이 나오더라도 양이 적다.

陽明中風，脈浮弦大，身黃，鼻乾，氣短，腹滿，潮熱，時噦，心脇¹¹痛，小便難，小柴胡茯苓¹²。

양명 중풍에 맥이 부(浮)、현(弦)、대(大)하며 몸이 누렇게 되고 코가 건조하며 숨이 짧고 배가 그득하며 조열(潮熱)이 나타나고 때때로 딸꾹질(噦)을 하며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

에 복령을 더하여 쓴다.【231】

太陽病，小便利者，以飲水多，必有心下悸，茯苓白朮甘草湯，小便少者，必裏急，猪苓湯。

태양병에 소변이 잘 나올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치까지 두근거릴 것이니 복령백출감초탕(茯苓白朮甘草湯)을 쓴다. 소변이 적은 경우는 반드시 속이 당길 것이니 저령탕(猪苓湯)을 쓴다.

1. 所以滲泄：取其滲利 ※《상한가비적본》↔
2. 蓄熱：多熱 ※《상한가비적본》↔
3. 胃汁乾：胃中乾 ※《상한가비적본》↔
4. 疾：病篤 ※《상한가비적본》↔
5. 畜血熱：有熱 ※《상한유서》↔
6. 心下懊憹：心中懊憹 ※《상한가비적본》↔
7. 虛則小便難：陰虛小便難 ※《상한론》【111】↔
8. 或硬：成硬 ※《상한론》【251】↔
9. 縱：須 ※《상한론》【251】↔
10. 不能：不多 ※《상한가비적본》↔
11. 心脇：胸脇 ※이존제각본↔
12. 茯苓：加茯苓 ※《상한유서》↔



小便自利 [小便數、遺溺附] 소변자리 [소변삭·유뇨]

小便自利者，爲津液漏滲¹，大便必硬，宜以藥微下之。其陽明自汗者，復發其汗，使津液內竭，屎雖硬，尤不可攻，縱使大便難，蜜導煎導之。太陰當發身黃，其小便自利者，則濕熱內泄，不能發黃。惟血證，則腹²急而如狂。腎與膀胱虛，則不能約制水液，二者皆小便自利。若腎與膀胱虛而挾熱，熱則水道溢，則小便不快，故溢淋而數起也。若自汗而小便數者，雖有表證，又不可用桂枝，謂亡走津液也。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진액(津液)이 스며나오는 경우로 대변이 분명 단단할 것이니 약으로 조금 공하시켜야 한다. 양명병에 자한(自汗)이 날 때 거듭 한법을 사용하면 진액을 안에서 고갈시키게 되므로 대변이 비록 단단하더라도 공하시킬 수 없으며 만약 대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밀도전(蜜導煎)으로 대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태음병에 마땅히 몸에 발황(發黃)이 생겨야 하는데, 소변이 잘 나오면 습열(濕熱)이 안에서 빠져나와 발황이 생기지 않게 된다. 혈증(血證)에는 아랫배가 당기고 광증(狂證)처럼 증상이 나타난다. 신(腎)과 방광(膀胱)이 허하면 수액을 묶어두지 못한다. 이 2가지 경우 모두 소변이 절로 나온다. 만약 신(腎)과 방광(膀胱)이 허한데 열(熱)까지 끼고 있으면, 열 때문에 요도(尿道)가 꺼끌거리고,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게 되므로 소변을 깔깔하게 보고 자주 보게 된다. 만약 자한(自汗)이 있고 소변이 잦으면 비록 표증(表證)이 있다 하더라도 계지탕(桂枝湯)을 써서는 안된다. 진액을 고갈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太陽病，小便自利，以飲水多，心下悸，茯苓桂枝・茯苓甘草湯。

태양병에 소변이 많이 나오고 물을 많이 마셔서 심하까지 두근거릴 때는 복령계지탕(茯苓桂枝湯)・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을 쓴다.

太陽，自汗，四肢拘急，心煩，微惡寒，脚攣急，小便數，誤服桂枝湯，得之便厥，與甘草乾姜湯、甘草芍藥湯。

태양병에 자한(自汗)이 나며 팔다리가 뒤틀리고 심번(心煩)이 있으며 조금 오한이 들고 다리가 당기며 소변이 잦을 때 잘못 계지탕(桂枝湯)을 사용하여 바로 궤(厥)이 생긴 경우에는 감초건강탕(甘草乾姜湯)、감초작약탕(甘草芍藥湯)을 사용한다.【029】

脈浮，自汗，小便數，胃不和，譫語者，少與調胃承氣湯。

맥이 부(浮)하고 자한이 나며 소변이 잦고 위(胃)가 편안하지 않으며 섬어(譫語)를 할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조금 준다.

陽明脈³浮而澁，浮則胃氣強，澁則小便數，浮澁相搏，大便則難，其脾爲約，宜麻仁湯。

부양맥이 부(浮)하고 삼(澁)한 경우, 부맥(浮脈)은 위기(胃氣)가 강한 것이고 삼맥(澁脈)은 소변이 잦은 것이며, 부맥과 삼맥이 서로 함께 나타나면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비(脾)가 묶인 것이니 마자인환(麻子仁丸)을 쓴다.

【247】

少陰，四逆，小便自利，或色白⁴，爲虛寒，四逆湯，或眞武湯去茯苓。既吐且利，小便復利而大汗出，下利清穀，內寒外熱，脈浮欲絕者，四逆湯。

소음병에 팔다리가 차고 소변이 많이 나오며 더러 소변 색이 맑은 것은 허한(虛寒)이다. 사물탕(四逆湯)을 쓰거나 진무탕(眞武湯)에서 복령(茯苓)을 빼고 쓴다. 이미 토하거나 설사한 뒤에 소변이 다시 잘 나오고 땀을 많이 흘리며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것은 안에 한(寒)이 있고 밖에 열(熱)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맥이 부(浮)하며 끊어지려고 하면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太陽，身黃，小便當不利，今反自利，其人如狂，血證也，抵當湯。⁵

태양병에 몸이 누를 때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잘 나오며 환자가 광증(狂證)처럼 보이는 것은 혈증(血證)이다. 저당탕(抵當湯)을 쓴다.

傷寒，有熱，小腹滿，應小便不利，今反自利，爲有血也，抵當丸下之。尿血，延胡索湯，延胡索、朴硝二兩，爲末，每服四錢，水一盞，煎八分，溫服。

상한에 열이 있고 아랫배가 그득할 때는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잘 나오는 것은 혈(血) 때문이다. 저당환(抵當丸)으로 공하시킨다. 요혈(尿血)에는 연호색탕(延胡索湯)을 쓴다. 연호색(延胡索)、박초(朴硝) 2냥을 가루 내어 복용할 때마다 4돈을 물 1잔에 넣고 8할이 될 때까지 달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陽明，自汗，應小便不利而反自利，津液內竭也。屎雖硬，不可攻，宜蜜導煎、猪膽汁法。

양명병에 자한(自汗)이 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도리어 잘 나오게 되면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게 된다. 대변이 비록 단단하여도 공하시켜서는 안되며 밀도전(蜜導煎)이나 저담즙(猪膽汁)의 방법을 사용한다.

少陰，四逆，小便自利，虛寒也，四逆湯及眞武湯去茯苓，小便秘或赤，知內有熱也，小便自利，其人如狂，小腹滿，知不爲熱，乃畜血也。若陽明津竭自利，與夫少陰自利，乃胞寒不禁，可不溫⁶乎？

소음병에 팔다리가 차갑고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은 허한(虛寒)한 때문이다. 사역탕(四逆湯)을 쓰거나 진무탕(眞武湯)에서 복령(茯苓)을 빼고 쓴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붉게 나오면 속에 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변이 잘 나오고 환자가 광증(狂證)처럼 보이며 아랫배가 그득하면 열(熱)이 아니라 축혈(畜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양명병에 진액이 고갈되어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와 소음병에 오줌통이 차가워 소변을 참지 못하여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 漏滲 : 偏滲 ※《상한가비적본》↩

2. 腹 : 小腹 ※《상한가비적본》↩

3. 陽明脈 : 趺陽脈 ※《상한론》【247】↩

4. 色白 : 小便白 ※《상한유서》↩

5. 이하 내용은 원문에 〈열입혈실(熱入血室)〉 조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나, 의미를 좇아 이곳으로 옮겨 번역하였다. ↩

6. 溫 : 辨 ※문맥상 ↩

舌上白胎 [臟結附] 설상백태 [장결]

經曰, 舌上如胎者, 以丹田有熱, 胃¹中有寒, 謂寒氣初傳入裏也. 舌乃心之宮², 法應南方火, 色本紅. 乃邪氣在表, 舌則無胎. 又邪氣在裏, 津液結搏, 則舌上生胎而滑. 熱氣漸深, 其舌胎燥而澀. 熱聚於胃, 其舌胎爲之黃矣. 若間黑色, 則熱已深, 病已極篤. 經曰, 舌³熱病, 口乾舌黑者死, 乃腎水刑於心火也.

경문에서 말하였다. "허 위에 태가 낀 것은 단전(丹田)에 열(熱)이 있고 가슴 속에 한(寒)이 있는 경우로, 한기(寒氣)가 처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번치 습갈】허는 심(心)이 부리는 부위로 이치에 따라 남방(南方) 화(火)에 대응하여 색이 본래 붉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허에는 태가 없다. 그러나 사기(邪氣)가 속에 있어 진액이 응결되면 허 위에 태가 생겨 맨들맨들하게 된다. 열기(熱氣)가 점차 깊어지면 허 위의 태가 마르고 거칠어진다. 열이 위(胃)에 모이면 설태가 누렇게 된다. 만약 검은 색이 섞여 있으면 열이 이미 깊어지고 병이 이미 매우 위독한 경우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열병(熱病)에 입이 마르고 혀가 검은 색을 띠면 죽는다." 이것은 신수(腎水)가 심화(心火)를 형벌한 경우이다.

脈陰陽俱緊, 口中氣出, 唇口乾燥, 蹠臥足冷, 鼻中涕出, 舌上滑胎者, 勿妄治也. 到七八日以來, 其人微發熱, 手足溫者, 此爲欲解. 或七八日以上, 反大發熱者, 此爲難治. 設使惡寒者, 必欲嘔也, 小柴胡湯加生姜. 腹內痛者, 必欲利也, 理中湯.

음맥과 양맥이 모두 긴(緊)하고 입 속에서 냄새가 나며 입술과 입이 마르고 몸을 웅크리며 누고 발이 차며 코 속에서 콧물이 나오고 혀 위에 활태(滑胎)가 있을 때는 함부로 치료하지 말라. 7 - 8일이 지난 뒤에 환자에게 조금 열이 나고 손발이 따뜻하면 이것은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만약 7 - 8일 이상 되어 도리어

열이 심하게 나면 이것은 치료하기 어렵다. 만약 오한이 들면 반드시 구역질을 하려고 할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생강을 더하여 쓴다. 배 속이 아프면 반드시 설사를 하려고 할 것이니 이중탕(理中湯)을 쓴다.

太陽，誤下，胃中空虛，客熱動膈，懊懣，舌胎，梔子豉湯。

태양병에 잘못 하법을 사용하여 위(胃) 속이 공허해졌을 때, 침입한 열사(熱邪)가 흉격을 요동시켜 가슴 속이 괴롭고 설태가 생긴 경우에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少陽病⁴，脇下硬滿，不大便而嘔，舌上白胎，小柴胡湯。

양명병에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며 혀 위에 백태가 생겼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230】

陽明病，舌上生胎，五苓散，舌黃者，當下之。《金匱要略》曰，舌黃者未可下黃自去也⁵。

양명병에 혀 위에 설태가 생겼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누런 설태가 있을 때는 하법을 써야 한다. 《금궤요략》에서 말하였다. "아직 하법을 쓰지 않았을 때 누런 설태가 있는 경우 하법을 사용하면 누런 설태가 절로 사라진다."

臟結者，臟氣秘結⁶而不流布也。一息不運，機緘窮，一毫不續，穹壤判，臟其可結乎？外證如結胸狀，但欲食如故，時時下利爲異耳。其脈寸浮關沈而緊，陰筋引臍腹俱痛是也。病人脇下素有痞，連臟結⁷。無陽證，不往來寒熱，其人反靜，舌上胎滑者，不可攻也。刺關元⁸，灸之亦可，仍與小柴胡湯加生姜。

장결(臟結)은 장기(臟氣)가 막혀 퍼지지 못하는 것이다. 잠시라도 운행되지 않으면 기운이 원활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어지지 않으면 천지와 단절된다. 그러므로 장기(臟氣)가 맺혀져야 되겠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결흉(結胸)과 유사하나 평소처럼 음식을 먹고 때때로 설사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촌맥이 부(浮)하고 관맥이 침(沈)하면서 긴(緊)하며, 음근(陰筋)에서 배꼽 주

변의 배까지 모두 아픈 것이 장결이다. 환자의 옆구리 아래가 평소 막혀 있다가 배꼽 주변까지 이어진다. 장결은 양증(陽證)이 없고 왕래한열의 증상도 없으며 환자가 도리어 안정된 듯하나 허 위에 활태(滑胎)가 있으니 공하시켜서는 안된다. 표한(表寒)의 증상이 동반될 때는 관원(關元)에 자침하는데, 땀을 떠도 좋다. 이어서 소시호탕(小柴胡湯)에 생강을 더하여 쓴다.

1. 胃 : 胃胸 ※《상한론》【변치습갈】↩

2. 官 : 苗 ※《상한가비적본》↩

3. 舌 : 凡 ※이존제각본 ↩

4. 少陽病 : 陽明病 ※《상한유서》↩

5. 舌黃者未可下黃自去也 : 舌黃未下者, 下之黃自去也 ※《금궤요략》↩

6. 秘結 : 閉結 ※《상한유서》↩

7. 臟結 : 臍旁 ※《상한유서》↩

8. 刺關元 : 猶帶表寒, 刺關元 ※《상한유서》↩

咽痛 인통

咽喉不利，或痛或癢¹，不可納食，皆毒氣上衝所致。經曰，太陽病，下之，脈緊者，必咽痛，以太陽之邪搏於少陰也。少陰之脈循喉嚨，挾舌本。

목이 불편하고 더러 아프거나 창(癢)이 생겨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것은 모두 독기(毒氣)가 위로 치받았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태양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맥이 긴(緊)하면 반드시 목구멍이 아프다."【140】이것은 태양(太陽)의 사기가 소음에 침입하였기 때문이다. 소음의 맥은 후릉(喉嚨)을 따라 허뿌리를 끼고 유주한다.

少陰咽痛，脈浮遲，厥冷，或吐利。亦屬少陰，並不可汗下²。用桔梗湯、豬膚湯，甚者，半夏散、通脈四逆湯去芍藥，加桔梗。汗不止，藁本、溫粉撲之³。咽中生瘡，不能言語，聲不出者，苦酒湯。

소음병 인통은 맥이 부(浮)·지(遲)하고 손발이 차며 더러 구토와 설사를 한다. 또 음양의 맥이 모두 긴(緊)한데 도리어 자한(自汗)이 나는 것은 양기(陽氣)가 없는 경우로, 분명 인통(咽痛)이 생긴 뒤에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된다. 이 역시 소음(少陰)에 속한다. 이 2가지 경우 모두 한법이나 하법을 써서는 안되며, 훈증시키거나 찜질하여 땀을 내고 고본(稿本) 가루를 발라준다. 인통에는 길경탕(桔梗湯)·저부탕(豬膚湯)을 쓰는데, 심한 경우에는 반하산(半夏散)을 쓰거나 통맥사역탕(通脈四逆湯)에서 작약을 빼고 길경을 넣어 쓴다. 목구멍에 창(癢)이 생겨 말을 할 수 없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고주탕(苦酒湯)을 쓴다.

若傷寒六七日，大下後寸脈沈遲，尺脈不至，咽喉不利，唾血膿，手足厥，利不止者，難治，宜麻黃升麻湯。

상한 6 - 7일에 하법을 크게 사용한 뒤에 촌맥(寸脈)이 침(沈)·지(遲)하고 척맥(尺脈)이 잡히지 않으며 목구멍이 불편하고 피고름 섞인 침을 뱉으며 손발이 차갑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을 써야 한다.

腎傷寒一證，乃非時暴寒⁴，伏於少陽⁵之經，頭痛腰痛，脈微弱，初咽痛以⁶傷寒，後必下利。咽痛，半夏桂枝湯，即半夏散。利，四逆湯。

신상한(腎傷寒) 한 가지 증상은 계절에 맞지 않는 사나운 한사(寒邪)가 환자에게 적중하여 소음경에 잠복한 것이다. 머리와 허리가 아프고 맥이 미약(微弱)하다. 처음에는 상한과 같이 목구멍이 아프지만 나중에 반드시 설사를 한다. 목이 아플 때는 반하계지탕(半夏桂枝湯), 즉 반하산(半夏散)을 쓴다. 설사에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陽毒咽痛，見發斑條。咽中閉塞，烏扇湯。口瘡赤爛，蜜浸黃栢噉。咽痛甚者，升麻六物湯。

양독(陽毒)으로 목구멍이 아픈 경우는 〈발반(發斑)〉 조문에 있다. 목구멍이 막혔을 때는 오선탕(烏扇湯)을 쓴다. 입이 헐어 붉게 짓물렀을 때는 황백(黃栢)을 꿀에 담갔다가 머금는다. 목구멍이 심하게 아플 때는 승마육물탕(升麻六物湯)을 쓴다.

1. 瘡：瘡 *《상한유서》↩

2. 亦屬少陰，並不可汗下：又陰陽脈俱緊，反自汗，爲無陽，法當咽痛，而後吐利，亦屬少陰。並不可汗下，熏熨汗出，以稿本粉傳之 *《상한유서》↩

3. 汗不止，藁本、溫粉撲之：《상한유서》에 따르면 "亦屬少陰，並不可汗下" 뒤에 "熏熨汗出，以稿本粉傳之"로 이어진다. 번역은 이를 따랐다. ↩

4. 暴寒 : ㄱ 暴寒中人 ※《상한유서》↩

5. 少陽 : ㄱ 少陰 ※《상한유서》↩

6. 以 : ㄱ 似 ※《활인서》↩



頭眩 두현

少陽居表裏之間，表邪傳裏，表中陽虛，故頭眩也。又有發汗吐下後而眩者，亦陽虛所致也。若少陰病，下利止而頭眩，時自冒者，此虛極而脫。而風家亦有眩者，風主運動故也。其或諸逆，發汗劇者，言亂目眩而死也。

소양은 표리 사이에 있는데, 표사(表邪)가 속으로 움직이면 겉의 양기(陽氣)가 허해지므로 머리가 어지럽다. 또 한법、토법、하법을 사용한 뒤에 어지러운 것도 양허(陽虛) 때문이다. 만약 소음병에 설사가 멈추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때때로 이유 없이 무언가로 머리를 감싼듯 한 것은 허증이 심해져 양기(陽氣)가 탈진된 경우이다. 또 풍사(風邪)가 많은 사람에게도 어지러움이 있는 것은, 풍(風)이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역증(逆證)에 한법을 심하게 사용하면 말을 두서없이 하고 눈 앞이 어지럽고 나서 죽는다.

太陽病，若下之¹，因復發汗，以此表裏俱虛，其人必眩冒，冒家汗自出而愈。

태양병에 하법을 써도 낫지 않아서 다시 한법을 쓰면 이로 인해 겉과 속이 모두 허해지므로 환자가 반드시 어지럽고 무언가로 머리를 감싼 듯하다. 머리를 감싼 듯한 환자는 땀을 내고 나서 낫는다.

陽明病，但頭眩，不惡寒，故能食而咳，茯苓白朮甘草桂枝湯。

양명병에 머리가 어지럽기만 하고 오한은 없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기침을 하는 경우는 복령백출감초계지탕(茯苓白朮甘草桂枝湯)을 쓴다.

少陽之爲病，口苦，咽乾，目眩，小柴胡湯。

소양으로 병이 들어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며 눈 앞이 어지러울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太陽病，發汗，汗出不解，其人仍發熱，心下悸，頭眩，身瞤動，振振欲擗地，眞武湯。

태양병에 한법을 썼으나 땀이 나고도 병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 환자에게 여전히 열이 나고 심하까지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푸들거리며 몸이 흔들려 넘어질 것만 같은 경우는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한다.

吐汗下後，虛煩，脈微沈緊，心下²癖³，氣⁴咽喉，眩冒身搖，筋脈動惕，久而成痿，茯苓桂枝白朮甘草湯，痿，用括蕒湯。

토법、한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이 생기고, 맥이 매우 미(微)、침(沈)、긴(緊)하며, 심하가 답답하고 단단하며, 옆구리 아래가 아프고, 기운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며, 머리가 어지럽고 무언가 씹은 듯 답답하고, 근육이 놀란 듯 뛰는 경우는 오래 지나 위(痿)가 된다.【160】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을 쓴다. 위(痿)가 생겼을 때는 과루탕(括蕒湯)을 쓴다.

1. 下之：☞下之不愈 ※《상한유서》☞

2. 癖：☞痞硬 ※《상한론》【160】☞

3. 動：☞痛 ※《상한론》【160】☞

4. 氣：☞氣上衝 ※《상한론》【160】☞

鼻衄 비눗

經絡熱盛，迫血妄行，出於鼻者，爲衄血也。是雖熱，其邪尤在經，然亦不可發汗。經曰以桂枝、麻黃治衄，非治衄也，乃欲散其經中邪氣耳。衄血故爲欲解，若衄不止，而頭汗出，其身無汗，及發熱，汗不至足者，又爲惡證，當明辯之。

경락에 왕성한 열(熱)이 혈(血)을 핍박하여 함부로 움직여 코로 나오는 것을 녹혈(衄血)이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열이 있는 것이나 그 사기(邪氣)가 경락에 있으므로 또한 한법을 쓸 수 없다. 경문에서 계지탕(桂枝湯)·마황탕(麻黃湯)으로 코피가 치료되었다고 한 것은 코피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경락 속의 사기를 흘리고자 한 것일 뿐이다. 코피는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서 머리에서만 땀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거나, 열이 나고 땀이 다리까지 나지 않는 것은 모두 예후가 좋지 않은 증상이니 분명하게 변별해야 한다.

太陽證衄血及服桂枝湯後致衄者，爲欲解也，屬犀角地黃湯，衄不止，茅花湯。無汗能食者，卽欲衄，黃芩湯。

태양증에 코피가 나는 경우나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한 뒤에 코피가 나는 경우는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쓴다.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는 모화탕(茅花湯)을 쓴다. 땀이 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곧 코피가 나려고 할 때는 황금탕(黃芩湯)을 쓴다.

衄家，不可發汗，汗出必額上陷脈緊急，直視不能盼，不得眠，**芍藥地黃湯¹**。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는 한법을 쓸 수 없다. 한법을 쓰면 이마의 움푹한 곳의 맥이 급긴(急緊)해지고, 눈을 곧추 뜬 채 움직이지 못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작약지황탕(芍藥地黃湯)을 쓴다.

陽明病，渴欲漱水不嚥者必衄，黃芩芍藥湯。

양명병(陽明病)에 갈증이 나지만 물로 입을 행구려고만 하는 경우는 분명 코피가 난다.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을 쓴다.

不因下而自利加衄者，麻黃升麻湯。脈浮大，欲發熱，下利，鼻衄，乾嘔者，黃芩芍藥。衄，煩而後渴欲飲水，水入即吐，先服五苓散，次服竹葉石膏湯。

하법을 쓰지 않았으나 설사를 하며 코피가 날 때는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을 쓴다. 맥이 부(浮)·대(大)하며 열이 나려고 하고 설사를 하며 코피를 흘리고 헛구역질을 할 때는 황금작약탕(黃芩芍藥湯)을 쓴다. 코피가 나고 심번(心煩)이 생긴 뒤에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나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할 때는 먼저 오령산(五苓散)을 복용하고 다음으로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少陰病，但厥無汗，強發之，必動其血，或從口鼻，或自目出，名下厥上竭，爲難治，當歸四逆湯，仍灸太谿、三陰交、涌泉。一法用黑錫丹。

소음병에 궤증(厥證)만 있고 땀이 나지 않을 때 억지로 한법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 혈(血)을 동요시켜 입이나 코를 따라 나오거나 눈을 따라 나온다. 이것을 '하궤상갈(下厥上竭)'이라고 부른다. 치료하기 어렵다. 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쓰고, 이어 태계(太谿)·삼음교(三陰交)·용천(涌泉)에 뜸을 뜬다. 다른 곳에는 흑석단(黑錫丹)을 쓴다고 하였다.

1. 芍藥地黃湯：犀角地黃湯 ※《상한보망론》↩

吐血 토혈

諸陽受熱，其邪在表，當汗不汗，致使¹血毒入臟，積瘀於內，遂成吐血。凡見眼閉目紅，神昏語短，眩冒迷妄，煩燥漱水，狂驚譫語，鼻衄唾紅，背冷足寒，四肢厥逆，胸腹急滿，大便黑利，小便頻數，皆瘀血證也。不必悉具，但見一二，便作血證主張。初得此病，急宜用藥。至於陸續不已，經數時而腹痛者，此又難於料理也。

양경(陽經)이 열사(熱邪)를 받아 그 사기(邪氣)가 겉에 있을 때 한법을 써야 하나 한법을 쓰지 않아서 혈독(血毒)이 장(臟)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쌓이고 뭉쳐서 마침내 피를 토하게 된다. 눈을 감거나 눈이 붉거나, 의식이 혼미하고 말이 어눌하거나, 어지럽고 무언가로 덮은 듯하며 정신이 흐리거나, 갑갑해 하고 물로 입을 행구려고 하거나, 미쳐 날뛰고 섬어(譫語)를 하거나, 코피가 나거나 붉은색 침을 뱉거나, 등이 시리고 다리가 차갑거나, 팔다리가 차갑거나, 가슴과 배가 당기고 그득하거나, 검은색 설사를 보거나, 소변이 잦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어혈(瘀血)의 증상이다. 모두 살필 필요는 없으며 1 - 2가지만 나타나도 곧 혈증(血證)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이 병이 생겼을 때는 빨리 약을 사용해야 한다. 계속 낫지 않고 여러 시간 동안 배가 아픈 경우는 치료하기 어렵다.

經曰，服桂枝湯吐者，其後必吐膿血，犀角地黃湯。大下後寸脈沈遲，尺脈不至，咽喉不利，唾膿血者，麻黃升麻湯。此有兩證，一陽毒，一²陰毒。陽毒用升麻湯，³陰毒用甘桔湯加半夏、生姜。

경문에서 말하였다. "계지탕(桂枝湯)을 복용하고 토하는 경우, 그 후에 반드시 피고름을 토하게 된다."【019】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써야 한다. 크게 하법을 쓴 뒤에 촌맥이 침(沈)、지(遲)하며 척맥이 나타나지 않고, 목구멍이 불

편하고 피고름 섞인 침을 토할 때는 마황승마탕(麻黃升麻湯)을 사용한다. 이 2가지 증상에서, 하나는 양독(陽毒)이고 하나는 음독(陰毒)이다. 양독에는 승마탕(升麻湯)을 쓰고 음독에는 감길탕(甘桔湯)에 반하와 생강을 더하여 쓴다.

血熱者, 黃連阿膠湯. 地榆⁴、栝皮湯、三黃瀉心湯.

혈열(血熱)에는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을 쓴다. 또 지유산(地榆散)、백피탕(栝皮湯)、삼황사심탕(三黃瀉心湯)을 쓴다.

脈浮, 發熱, 反灸之, 必咽燥⁵吐血, 救逆湯.

맥이 부(浮)하고 열이 날 때 도리어 땀을 뜨면 반드시 목구멍 속이 마르고 피를 토할 것이니 구역탕(救逆湯)을 쓴다.

咽喉閉塞, 不可發汗, 發熱⁶則吐血, 氣欲絕, 手足厥冷, 蹇臥, 不能自溫, 當歸四逆湯.

목구멍이 막혔을 때는 한법을 써서는 안된다. 땀을 내면 피를 토하고 숨이 끊어지려고 하며 손발이 차갑고 웅크리고 누워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변불가발한병】당귀사역탕(當歸四逆湯)을 쓴다.

1. 血毒: ㉠熱毒 ※《상한유서》↩

2. 陰毒: 少陰 ※《상한유서》↩

3. 陰毒: 少陰 ※《상한유서》↩

4. 地榆: ㉠地榆散 ※《상한유서》↩

5. 燥: ㉠燥 ※문맥상 ↩

6. 發熱: ㉠發汗 ※《상한론》【변불가발한병】↩



心悸 심계

心悸者，築築然動，怔忡¹，不能自安者是也。其證有二，一者氣虛，一者停飲。其氣虛者，陽氣內弱，心中空虛而爲悸。又有汗下之後，正氣內虛，亦令人悸，與氣虛而悸者，則又甚也，法當定其氣悸²也。其停飲者，由飲水過多，停留心下，心火畏水，不能自安而爲悸也。治法必先分水氣，雖有餘邪，亦先治悸，免使水氣散走而成他證也。

심계(心悸)는 두근두근 뛰고 두렵고 당황스러워 편안하지 못한 상태이다. 증상에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 하나는 기허(氣虛)이고 다른 하나는 정음(停飲)이다. 기허로 인한 경우는, 양기가 안에서 약하고 가슴 속이 공허하여 계(悸)가 된 것이다. 또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정기가 안으로 허해져도 환자에게 계(悸)가 생긴다. 이것은 기허로 인한 계보다 더 심하다. 이때는 떠오른 기운을 안정시켜주어야 한다. 정음으로 인한 경우는, 물을 지나치게 마셔 수(水)가 심하에 정체되면 화(火)에 해당하는 심(心)이 수(水)를 싫어하므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계(悸)가 생긴다. 치료할 때는 반드시 먼저 수기(水氣)를 나누어 내보내야 한다. 비록 다른 사기(邪氣)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계(悸)를 치료해야 수기(水氣)가 흩어져 다른 증상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傷寒二三日，心中悸而煩，小建中湯。經云，先煩而悸者，此爲熱，先悸而煩者，此爲虛。故宜建中湯。

상한 2 - 3일에 가슴 속이 두근거리다가〔悸〕 답답해지면〔煩〕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102】 경문에서 말하였다. "먼저 번(煩)이 생긴 뒤에 계(悸)가 생긴 것은 열(熱) 때문이다. 먼저 계(悸)가 생긴 뒤에 번(煩)이 생긴 것은 허(虛)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써야 한다.

太陽病，小便利者，以飲水多，故心下悸，茯苓桂枝白朮甘草湯，小便少者，必裏急，猪苓湯。

태양병에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니 반드시 명치까지 두근거릴 것이다.【127】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을 쓴다. 소변 양이 적으면 반드시 뱃속이 당길 것이다.【127】저령탕(猪苓湯)을 쓴다.

陽明病，壯熱來往，心下悸，小便不利，心煩喜嘔，小柴胡湯。

양명병에 한열왕래가 있고 심하까지 두근거리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가슴이 갑갑하며 쉽게 토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096】

太陽病，發汗過多，其人叉手自冒，心下悸欲得按者，桂枝甘草湯。

태양병에 한법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환자가 손을 교차하여 가슴을 감싸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心下悸) 것을 안정시키려 할 때는 계지감초탕(桂枝甘草湯)을 쓴다.【064】

發汗後，其人臍下悸，欲作奔豚，茯苓桂枝白朮甘草湯³。

한법을 사용한 뒤에 환자의 배꼽 아래가 두근거리는 것은 분돈(奔豚)이 생기는 경우이니 복령계지감초대조탕(茯苓桂枝甘草大棗湯)을 쓴다.【065】

太陽病，發汗不解，仍發熱，心下悸，頭眩，肌體瞤動，振振欲擗地，真武湯。

태양병에 한법을 썼으나 병이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열이 나고, 명치까지 두근거리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푸들거리며, 몸이 흔들려 넘어질 것만 같을 때는 진무탕(真武湯)을 쓴다.

少陽病，耳聾目赤，胸滿而煩，妄加吐下，則悸而驚，與小建中湯，有熱者，小柴胡湯。

소양병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붉으며 가슴이 그득하고 갑갑한데 만약 토법이나 하법을 쓰게 되면 두근거리고(悸) 두려워하게(驚) 된다.【264】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열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少陰病，四逆，其人或悸，四逆散加桂枝。心下有水氣，厥而悸，當先治水，茯苓甘草湯。不然，水入胃中，必不利也。

소음병으로 팔다리가 차할 때 환자에게 계(悸)가 있으면 사역산(四逆散)에 계지(桂枝)를 더하여 사용한다.【318】심하에 수기(水氣)로 손발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먼저 수(水)를 치료한다.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수(水)가 위(胃) 속으로 들어가 반드시 설사를 하게 된다.

傷寒，脈結代，心動悸，炙甘草湯。

상한에 맥이 결(結)·대(代)하고 가슴이 크게 두근거릴 때는 자감초탕(炙甘草湯)을 쓴다.【177】

1. 怔忡：㉠怔忡忡忡 ※《상한가비적본》↩

2. 氣悸：㉠氣浮 ※《상한명리론》↩

3. 茯苓桂枝白朮甘草湯：㉠茯苓桂枝甘草大棗湯 ※《상한론》【065】↩

發黃 발황

《內經》曰，濕熱相交，民多病瘴。瘴者，單陽而無陰也。太陰脾土爲濕熱所蒸，則雖見於外¹，必發身黃。濕氣勝，則如薰，黃而晦。熱氣勝，則如橘，黃而明。傷寒至於發黃，熱勢已極，且與蓄血大抵相類。小便不利，爲發黃，小便自利，爲畜血也。設或寸口無脈，鼻出冷氣，與夫形如煙薰，搖頭直視，環口鰲黑，舉體發黃，是皆眞臟氣絕也。

《내경》에 "습과 열이 서로 만나면 단병(瘴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단(瘴)이란 양만 있고 음은 없는 것이다. 태음비토(太陰脾土)가 습열에 훈증을 받으면 색이 겉으로 드러나 반드시 몸이 누렇게 된다. 습기(濕氣)가 왕성하면 그을린 듯 어둡게 누렇게, 열기(熱氣)가 왕성하면 굴처럼 밝게 노랗다. 상한이 발황에까지 이른 경우는 열의 기세가 이미 극심하므로 축혈(蓄血)과 대개 비슷한 부류가 된다.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면 발황(發黃)이고 소변이 잘 나오면 축혈(畜血)이다. 만약 촌구맥(寸口脈)이 나타나지 않고 코에서 차가운 숨이 나오는 경우와, 몸이 연기에 그을린 듯하고 머리를 떨며 눈을 곧추뜨는 경우, 입 주위가 검고 온몸에 발황(發黃)이 생긴 경우는 진장(眞臟)의 기운이 끊어진 것이다.

傷寒，瘀血在裏，身必發黃，麻黃連翹赤小豆湯。

상한에 어혈(瘀血)이 속에 있으면 몸에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 마황연교적소두탕(麻黃連翹赤小豆湯)을 쓴다.

太陽中濕發黃，身熱，頭痛，目黃，汗出²，濕⁶在裏，五苓散、梔子蘗皮湯。

태양 중습(中濕)으로 발황이 생기면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눈이 누렇게 되고 땀이 난다. 이것은 속(裏)에 한습(寒濕)이 있는 것이니 오령산(五苓散)、치자벽피탕(梔子蘗皮湯)을 쓴다.

濕家之爲病，一身盡痛，發熱，身雖如似熏黃，小便不利，五苓散，小便自利，朮附湯，身煩痛，麻黃湯加蒼朮，脈浮身重，汗出惡風，防己黃耆湯。

습이 많은 사람(濕家)의 병은, 온몸이 모두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그을린 듯 누렇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쓰고, 소변이 잘 나올 때는 출부탕(朮附湯)을 쓰며, 몸의 통증이 심할 때는 마황탕(麻黃湯)에 창출(蒼朮)을 넣어 쓰고, 맥이 부(浮)하고 몸이 무거우며 땀이 나고 오통이 들 때는 방기황기탕(防己黃耆湯)을 쓴다.

陽明病，脈遲，食難用飽，飽則微煩頭眩，必小便難，此欲作穀疸。雖下之，腹滿如鼓，穀疸湯、五苓散加茵陳。

양명병에 맥이 지(遲)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기 어려운데, 배불리 먹으면 조금 갑갑하고 머리가 어지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반드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니, 이것은 곡달(穀疸)이 생기려는 것이다. 만약 하법을 쓰면 배가 복처럼 불러 오른다. 곡달탕(穀疸湯)이나 오령산(五苓散)에 인진(茵陳)을 더하여 쓴다.

陽明³傷寒發黃，易飢，短氣，腹滿，鼻乾，咽燥，心脇痛，小便難，潮熱，咳嗽，頭眩，嗜臥，脈絃浮大，小柴胡湯加茯苓。

양명 중풍(中風)으로 발황(發黃)이 생기면 쉽게 배가 고프며 숨이 짧고 배가 그득하며 코가 건조하고 목구멍이 마르며,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조열(潮熱)과 해수(咳嗽)가 나타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누우려고 만 하며 맥이 현(絃)、부(浮)、대(大)하다. 소시호탕(小柴胡湯)에 복령(茯苓)을 더하여 쓴다.【231】

血證發黃，如狂，小便多，大便黑，犀角地黃湯、桃仁承氣湯、抵當湯選用之。

혈증(血證)으로 발황(發黃)이 생기면 광증(狂證)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이 많이 나오며 대변이 검다.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저당탕(抵當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黃疸，脈浮滑緊數，頭面汗出，渴飲水漿，小便不利，茵陳蒿湯調五苓散。

황달(黃疸)에 맥이 부(浮)、활(滑)、긴(緊)、삭(數)하고 머리와 얼굴에서 땀이 나며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인진호탕(茵陳蒿湯)에 오령산(五苓散)을 타서 사용한다.

初發黃，以瓜蒂末，口噉水，搐鼻中⁴，黃水出，愈⁵。

처음 발황(發黃)이 생겼을 때 과체(瓜蒂) 가루를 쓰는데, 입에 물을 머금고 과체 가루 1자(字)를 코에 넣어 누런 물이 나오게 한 다음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복용시킨다.

1. 雖見於外：『色見於外』※《상한명리론》↩

2. 身熱，頭痛，目黃，汗出：身熱盡痛，頭汗目黃 ※《상한유서》↩

6. 濕：『寒濕』※《상한유서》↩

3. 傷寒：『中風』※《상한론》【231】↩

4. 搐鼻中：『搐一字許，入鼻中』※《상한유서》↩

5. 愈：『次服茵陳五苓散』※《상한유서》↩

發狂 발광

《難經》曰，重陰者顛，重陽者狂。傷寒熱毒在胃，併入于心，遂使神不寧而志不定也，故發狂。始則少臥不飢，妄語妄笑，甚則登高而歌，棄衣而走，踰垣上屋，皆獨陽亢極，熱之所致，非大下之，不能止也。亦有當汗不汗，瘀熱在裏，下焦畜血如狂者，小便不利¹，時⁶如狂未至于狂耳。若夫狂言直視，便溺自遺，其與汗後大熱，脈燥²，狂言，不食，又爲可慮也。

《난경》〈20난(難)〉에서 "음을 거듭하면 전증(癲證)이 되고, 양을 거듭하면 광증(狂證)이 된다."라고 하였다. 상한에 위(胃)에 있던 열독(熱毒)이 심(心)에 침입하면 결국 신(神)이 편안하지 않게 되고 지(志)가 안정되지 않게 되어 광증(狂證)이 생긴다. 처음에는 잠이 줄고 배고프지 않으며 평범하지 않은 말을 하고 이상하게 웃고, 심해지면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담을 뛰어 오르거나 지붕 위에 올라간다. 이것은 모두 양기(陽氣)만 홀로 매우 항진되어 열(熱)이 생겨난 때문이니 크게 하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멈추게 할 수 없다. 또 한법을 써야 할 때 한법을 쓰지 않아서 속에 어열(瘀熱) 머무르고 하초에 축혈(畜血)로 광증(狂證)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는 소변이 분명 잘 나오게 된다. 다만 광증(狂證)처럼 보일 뿐이고 광증이 된 것은 아니다. 미쳐 지껄이고 눈을 곧추뜨며 대소변을 지리는 경우와, 한법을 쓴 뒤에 심하게 열이 나고 맥이 조(躁)하며 미쳐 지껄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는 염려할 만하다.

重陽卽陽毒，脈數實，狂走錯語，煩燥乾嘔，面赤咽痛，潮熱，發狂³，或下利黃赤，陽毒升麻黃芩湯⁴。

양을 거듭한 것이 곧 양독(陽毒)이다. 맥이 삭(數)·실(實)하며 미쳐 날뛰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번조(煩躁)가 나타나고 헛구역질을 하며 얼굴이 붉고 목구멍이 아프며 조열(潮熱)과 발반(發斑)이 생기며 더러 누렇거나 붉은 설사를 할 때는 양독승마탕(陽毒升麻湯)을 쓴다.

時行熱病，發狂，黑奴丸。

전염성 열병으로 광증이 나타날 때는 흑노환(黑奴丸)을 쓴다.

經曰，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而血自下者，愈，若外不解，與桂枝湯，外已解，但小腹急結，桃仁承氣湯。

경문에서 말하였다. "태양병이 풀어지지 않고 방광에 열이 맺혔을 때, 환자가 광증(狂證)과 비슷하더라도 저절로 하혈하면 낫는다. 외증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쓰고, 외증이 이미 풀렸으나 아랫배가 당기고 마칠 때는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을 쓴다."【106】

血證如狂，脈微，身黃，唇燥嗽水，無寒熱，小腹滿，小便不利⁵，大便黑，犀角地黃湯，甚者，桃仁承氣湯、抵當丸，取下黑物爲效。

광증(狂證)처럼 나타나는 혈증(血證)에는, 맥이 미(微)하며 몸이 누렇게, 입술이 마르지만 물로 입을 행구기만 하고, 아랫배가 그득하고 소변이 잘 나오며 대변이 검다.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쓴다. 심하면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저당환(抵當丸)을 쓰는데, 검은색 대변을 보면 낫는다.

1. 不利：☞必利 ※《상한유서》↩

6. 時：☞特 ※《상한유서》↩

2. 燥：☞躁 ※《상한유서》↩

3. 發狂：☞發斑 ※《상한유서》↩

4. 陽毒升麻黃芩湯：☞陽毒升麻湯 ※《상한유서》↩

5. 小便不利：☞小便利 ※《상한유서》↩



筋惕肉瞤 근척육순

《內經》曰，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發汗過多，津液枯少，陽氣偏虛，筋肉失所養，故惕然而跳，瞤然而動，非溫經助陽，不可也。張氏故特設眞武湯以救之。或因發汗吐下後表裏俱虛而有此狀者，此又逆之甚矣。

《소문(素問)》〈생기통천론(生氣通天論)〉에서 말하였다. "양기(陽氣) 가운데 정미로운 것은 신(神)을 기르고 부드러운 것은 근(筋)을 기른다." 지나치게 발한을 시켜 진액(津液)이 마르면 양기(陽氣)가 매우 허해져 근육이 길러지지 못하므로 푸들푸들 뛰고 움찔움찔 움찔거린다. 경맥을 따뜻하게 하여 양기를 돕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중경이 특별히 진무탕을 만들어 이를 치료하였다. 더러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겉과 속이 모두 허하여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또한 심한 역증(逆證)이다.

太陽病，發汗不解，發熱，心悸，頭眩，身瞤欲擗地，眞武湯。

태양병에 한법을 사용했으나 병이 풀리지 않고 열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몸이 푸들거리고 넘어질 것 같을 때에는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發汗過多，或虛弱人微發汗，或傷風自汗，妄用大青龍湯，便有厥逆，筋惕肉瞤之證，並屬眞武湯，羸者，去芍藥，有熱者，去附子。

한법으로 지나치게 땀을 내었거나, 허약한 사람에게 조금 땀을 내었거나, 상풍(傷風)으로 자한(自汗)이 날 때 함부로 대청룡탕(大靑龍湯)을 사용하여 곧 손발이 차가워지고 근척육순(筋惕肉瞤)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모두 진무탕(眞武湯)을 쓴다. 환자가 수척한 경우에는 작약(芍藥)을 빼고 쓴다. 열이 있는 경우에는 부자(附子)를 빼고 쓴다.

應發¹而腹中左右有動氣者，並不可汗。汗之，則筋惕肉瞤，或頭眩，汗出不止，其後²最逆，先宜防風白朮牡蠣湯，次服小建中湯，十救一二。

한법을 써야 할 증상이지만 배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는 모두 한법을 쓸 수 없다. 한법을 쓰면 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기거나 어지럽게 되며 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서 심한 역증(逆證)이 된다. 먼저 방풍백출모려탕(防風白朮牡蠣湯)을 쓰고 다음으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사용하면 10명 중에 1-2명은 구할 수 있다.

吐下之後心下逆滿，氣上衝胸，起則頭眩，脈沈緊，身振搖者，茯苓桂枝白朮甘草湯，久而成痿者，通用。心下痞滿者，枳桔湯加茯苓、甘草。

토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심하가 치밀어 그득하고 기운이 위로 가슴을 치받으며 일어서면 머리가 어지럽고 맥이 침(沈)·긴(緊)하며 몸이 덜덜 떨리고 흔들릴 때는 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치료한다. 오래되어 위증(痿證)이 된 경우에도 이 처방을 두루 쓴다. 심하가 막히고 그득할 때는 지길탕(枳桔湯)에 복령(茯苓)·감초(甘草)를 더하여 쓴다.

1. 應發：☞應發汗症 ※《상한유서》☞

2. 後：☞候 ※이존제각본 ☞

多眠汗下¹ [附霍亂] 잠을 많이 자는 경우 [栝亂]

夫衛氣者，晝行於陽，夜行於陰。行陽於²寤，行陰於³寐。陽氣虛，陰氣盛，則目瞑，故多眠，乃邪氣傳於陰而不在陽也。昏昏閉目，陰自闔⁴也。默默不言者，陰主靜也。經曰，太陽病，十日已去，脈浮細，嗜臥者，外已解也。鼻乾，不得汗，嗜臥者，風熱內攻，不干乎表，故熱氣伏於裏，則喜睡也。三陽合病，但欲眠睡，目合則汗，譫⁵則有熱也。見盜汗。其胃熱，亦嗜臥也。風溫、狐惑亦有是證，又當辯之。

위기(衛氣)는 낮에 양분(陽分)을 흐르고 밤에는 음분(陰分)을 흐른다. 양분을 흐르면 잠이 깨고, 음분을 흐르면 잠이 든다. 양기(陽氣)가 허(虛)하고 음기(陰氣)가 성(盛)하면 눈이 감겨 잠이 많아진다. 이것은 사기(邪氣)가 음경(陰經)에 전해져 양경(陽經)에 있지 않은 경우이다. 잠이 와서 눈을 감는 것은 음(陰)이 닫힘(闔)을 담당하기 때문이고, 조용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음(陰)이 고요함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태양병이 든지 10일이 지나 맥이 부세(浮細)하고 자려고만 하는 것은 밖(外)이 이미 풀린 경우이다."【037】"코가 건조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231】은 풍열(風熱)이 안을 공격하고 겉은 간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열기(熱氣)가 속에 잠복되어 있으면 자려고 한다. "삼양합병(三陽合病)에 자려고만 하고 잠이 들면 땀이 나는 것은"【268】담(膽)에 열이 있는 경우이다. <도한(盜汗)>을 참고하라. 위(胃)에 열이 있어도 자려고 한다. 풍온(風溫)、고혹(狐惑)에도 이 증상이 있으니 또한 변별해야 한다.

太陽病十日，脈浮細，嗜臥者，外雖已解。設胸滿、脇痛、鼻乾、不得汗者，小柴胡湯，脈但浮者，麻黃湯。

태양병이 든지 10일이 지나 맥이 부(浮)、세(細)하고 자려고만 하는 것은 밖(外)만 이미 풀린 경우이다. 만약 가슴이 그득하고 옆구리가 아프며 코가 마르고 땀이 나지 않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쓰고, 맥이 부(浮)하기만 하면

마황탕(麻黃湯)을 쓴다.【037】

少陰病，但欲寐，尺寸俱沈細者，四逆湯。少陰病，欲吐不吐，心煩多寐，尺寸俱沈細者，四逆湯。⁶ 少陰病，欲吐不吐，心煩多寐，五六日，自利而渴，小便白者，則止矣。⁷ ⁸

소음병에 자려고만 하고 척맥과 촌맥이 모두 침(沈)·세(細)할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소음병에는 토하고 싶으나 토하지 못하고 속이 갑갑하며 자려고만 한다. 상한 5 - 6일 쯤에 설사를 하면서 갈증이 있으며 소변의 색이 맑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1. 汗下 : 문맥상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2. 於 : 則 ※《상한가비적본》 ↩

3. 於 : 則 ※《상한가비적본》 ↩

4. 自闔 : 司闔 ※《상한유서》 ↩

5. 譫 : 臆 ※《주해상한론》 ↩

6. 少陰病，欲吐不吐，心煩多寐，尺寸俱沈細者，四逆湯。 : 문맥상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7. 則止矣 : 四逆湯 ※《상한유서》 ↩

8. 원서에는 이후에 厥亂(霍亂)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지만, 뒤에 <厥亂(霍亂)> 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 번역하였다. ↩

陰陽易、陰陽交 음양역, 음양교

凡男子陽易，婦人陰易者，病新瘥而動淫欲也。其候身重氣之¹，小腹絞痛，頭不能舉，足不能行，四肢拘急，百節解散，眼中生花。手足拳攣，其脈離經，皆不可治。或榮衛精髓竭，翕翕少氣，手足不能舉者²而死。吁，外傷六氣，內傷七情，其爲害若是耶。燒棍散、猢猻屎湯、竹皮湯、乾薑湯、青竹茹湯、當歸白朮湯宜選用之。

남자의 양역(陽易)과 부인의 음역(陰易)은 병이 막 나았은 뒤에 음욕(淫欲)을 일으켜 생겨난다. 그 증상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프고 머리를 들지 못하며 다리로 걷지 못하고 팔다리가 뒤틀리며 모든 관절이 풀어지고 눈 앞에 꽃 같은 모양이 보인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맥이 정상을 벗어나면(離經) 모두 치료할 수 없다. 만약 영위(榮衛)와 정수(精髓)가 고갈되면 후끈후끈(翕翕)하고 숨이 얇으며 손발을 가누지 못하다가 죽는다. 아, 밖으로 육기(六氣)에 손상받고 안으로 칠정(七情)에 손상되면 그 해로움이 이와 같구나. 소곤산(燒棍散)、가서시탕(猢猻屎湯)、죽피탕(竹皮湯)、건강탕(乾薑湯)、청죽여탕(靑竹茹湯)、당귀백출탕(當歸白朮湯)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陰陽交者，溫病不得發汗，汗之復生大熱，狂言，不食，其脈燥疾³是也，皆不治。若脈浮數，表證尤在，可再汗之。若脈沈實，則爲胃實，又從汗下之⁴。後⁵復熱者，同此法。再汗用桂枝湯，再下用承氣湯。

음양교(陰陽交)는 온병(溫病)에 한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한법을 사용하여 다시 심하게 열이 나고 미친 듯 지껄이며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맥이 빠르게 뛰는 것으로 모두 치료할 수 없다. 만약 맥이 부(浮)、삭(數)하면 표증이 여전히 있는 것이니 다시 한법을 써야 한다. 만약 맥이 침(沈)、실(實)하면 위

(胃)가 실(實)한 것이니 하법을 써야 한다. 하법을 쓴 뒤에 다시 열이 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 다시 하법을 쓸 때는 계지탕(用桂枝湯), 다시 하법을 쓸 때는 승기탕(承氣湯)을 쓴다.

1. 氣之 : ㉠氣乏 ※《상한유서》↩

2. 手足不能學者 : 著席不能動搖者 ※《상한유서》↩

3. 燥疾 : ㉠躁疾 ※《상한유서》↩

4. 從汗下之 : ㉠當下之 ※《상한유서》↩

5. 後 : ㉠發汗後 ※《상한유서》↩

拂鬱¹ 불울

拂鬱²者，陽氣蒸越，形於頭面體膚之間，聚赤而不散。其證則有異焉。大便硬而氣短者實也，汗下後而得噦者虛也，當詳究之³。

불울(拂鬱)은 양기(陽氣)가 찌오르고 넘쳐서 머리와 얼굴 및 체표 피부 사이에 나타나 붉게 모여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증상에는 차이가 있으니 대변이 단단하면서 숨이 짧은 것은 실증(實證)이고, 한법·하법을 쓴 뒤에 딸꾹질〔噦〕이 생긴 것은 허증(虛證)이다. 자세히 살펴야 한다.

太陽，初得病，發汗不徹，併于陽明，續自微汗出，面色赤者，陽氣拂鬱也，解肌湯。或汗久⁴不徹，其脈浮緊，與麻黃湯。

태양병이 처음 들었을 때 한법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태양이 양명과 병병(併病)을 이루게 되어 계속 조금씩 땀이 나고 얼굴이 붉게 되는 것은 양기(陽氣)가 불울(拂鬱)한 경우이다.【048】해기탕(解肌湯)을 써야 한다. 만약 한법이 충분하지 않아 맥이 부(浮)·긴(緊)할 때는 마황탕(麻黃湯)을 써야 한다.

小便不利，時有微熱，大便乍難，拂鬱，不行臥，此燥屎重實⁵也，承氣湯主之。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때때로 미열이 나며 대변이 잠깐씩 잘 나오지 않고 불울(拂鬱)이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어 속이 막힌 경우이다. 승기탕(承氣湯)으로 치료한다.【242】

汗下後，虛熱⁶，又復下之⁷，其人拂鬱，復與之水，因而成噦，此胃中寒也，桂枝人參湯加茯苓。

한법·하법을 사용하여 매우 허해진데다 다시 한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불울(拂鬱)이 생겨났을 때 다시 물을 주면 이것으로 딸꾹질을 하게 된다. 위(胃)속이 차갑기 때문이다.【380】계지인삼탕(桂枝人參湯)에 복령(茯苓)을 더하여 쓴다.

1. 拂鬱 : 𢶏拂鬱 ※이존제각본 ←

2. 拂鬱 : 𢶏拂鬱 ※이존제각본 ←

3. 이하 내용은 원서에 <곽란(霍亂)> 조문에 있으나 《상한가비적본》을 근거로 옮겨 번역하였다. ←

4. 久 : 연자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5. 重實 : 𢶏裏實 ※《상한유서》 ←

6. 虛熱 : 𢶏極虛 ※《상한유서》 ←

7. 下之 : 𢶏汗之 ※《상한유서》 ←

痙瘓 계종

痙瘓者，痙則急而縮，瘓則緩而伸。熱則生風，風主乎動，故筋脈相引而伸縮¹。傷寒至於痙瘓，可謂危矣，能以祛風蕩熱之劑減其大勢，間有可治者。治法與瘓同。

계종(痙瘓)에서 계(痙)는 당겨져 수축한 것이고, 종(瘓)은 늘어져 이완되어 퍼진 것이다. 열(熱)은 풍(風)을 야기하고, 풍(風)은 움직임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근맥(筋脈)이 서로 당겨져 잘 펴지거나 수축되지 않는다. 상한병에 계종(痙瘓)까지 생기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 풍을 제거하고 열을 씻어내는 처방으로 커진 병세를 경감시키면 간혹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 치법은 치병(瘓病)과 같다.

1. 伸縮 : ㉮伸縮不寧 ※《상한유서》↩

戰慄 전을

戰慄者，陰陽爭戰，故身爲之搖也。邪氣外與正氣爭，則爲戰。邪氣內與正氣爭，則爲慄。戰者正氣勝，故有得汗而解者。慄則¹。不戰²而但鼓頤，遂成寒逆。此陰氣內熱³，正不勝邪，宜姜附、四逆湯加灼艾以禦之。經曰，陰中于邪，必內慄也。又云，邪中下焦，陰氣爲慄，足膝逆冷，便溺妄出，皆此類耳。方在惡寒條。四逆湯、甘草乾姜湯。若復燥而不得臥者，不治。

전을(戰慄)은 음(陰)과 양(陽)이 싸워서 몸이 떨리는 것이다. 외부의 사기(邪氣)가 정기(正氣)와 다투면 전(戰)이 되고, 내부의 사기(邪氣)가 정기와 다투면 율(慄)이 된다. 전(戰)은 정기(正氣)가 이기는 중이므로 땀을 내면 증상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율(慄)은 사기(邪氣)가 이기는 중이다. 몸에 전증(戰證)은 없으나 턱만 떨리는 것은 결국 한역(寒逆)이 된 경우이다. 이것은 음기(陰氣)가 안에서 성하여 정기가 사기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강부탕(薑附湯)·사역탕(四逆湯)에 뜸을 추가하여 치료한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음분(陰分)에 사기(邪氣)가 적중되면 반드시 안에서 율(慄)이 생긴다."【변맥법】 또 말하였다. "사기(邪氣)가 하초(下焦) 음기(陰氣)에 적중되면 율(慄)이 생기며, 다리에 서 무릎까지 시리고 대소변이 함부로 나온다."【변맥법】 이들은 모두 율증(慄證)의 종류일 뿐이다. 처방은 〈오한(惡寒)〉 조문에 있다. 사역탕(四逆湯)·감초건강탕(甘草乾姜湯)을 쓴다. 만약 다시 조증(躁證)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1. 慄則：☞慄者邪氣勝 ※《상한유서》↩

2. 不戰：☞其身不戰 ※《상한유서》↩

3. 內熱：☞內盛 ※《상한유서》↩



時行、兩感 시행과 양감

時行者，春應煖而反大寒，夏應熱而反大涼，秋應涼而反大熱，冬應寒而反大溫，此非其時而有其氣。是以一歲之中，長幼之病多相似者，此即時行之氣。春感寒邪在肝，升麻葛根解肌湯。夏感寒邪在心，調中益氣湯、射香湯、半夏桂枝甘草湯。秋感濕邪在肺，白虎加蒼朮，發黃，茵陳五苓散。冬感寒邪在腎，名曰冬溫，括蕤湯¹。溫疫通用人參敗毒散、升麻葛根湯。從春分以後至秋分節前，天有暴寒者，皆爲時行寒疫，宜用辛溫藥發散。

시행(時行)은 따뜻해야 할 봄이 도리어 매우 춥거나, 더워야 할 여름이 도리어 매우 시원하거나, 시원해야 할 가을이 도리어 매우 덥거나, 추워야 할 겨울이 도리어 매우 따뜻한 것처럼 절기에 맞지 않는 기운이 생겨나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한 해 가운데 계절과 상관 없이 어른과 아이의 병이 서로 매우 비슷하다. 이것이 곧 시행(時行)의 사기(邪氣)이다. 봄에 한(寒)에 감촉되어 사기(邪氣)가 간(肝)에 있을 때는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해기탕(解肌湯)을 쓴다. 여름에 한(寒)에 감촉되어 사기가 심(心)에 있을 때는 조중익기탕(調中益氣湯)、사향탕(射香湯)、반하계지감초탕(半夏桂枝甘草湯)을 쓴다. 가을에 습(濕)에 감촉되어 사기가 폐(肺)에 있을 때는 백호가창출탕(白虎加蒼朮湯)을 쓰고, 발황(發黃)이 있을 때는 인진오령산(茵陳五苓散)을 쓴다. 겨울에 한(寒)에 감촉되어 사기가 신(腎)에 있는 것을 동온(冬溫)이라고 하니, 위유탕(萎蕤湯)을 쓴다. 온역(溫疫)에는 인삼폐독산(人參敗毒散)、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을 두루 쓴다. 춘분(春分)부터 추분(秋分) 전까지 날씨가 매우 추운 경우, 모두 시행한역(時行寒疫)이 되므로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으로 발산시켜준다.

傷寒兩感，半屬于陰，半屬于陽，臟腑俱受病。一日太陽、少陰俱病，則頭疼口乾，煩滿而渴。二日陽明、太陰受病，則腹滿身熱，不欲食，譫語。三日少陽、厥陰俱病，則耳聾，囊縮而厥。水漿不入口，不知人者，六七日死。長沙無治法，但凡²兩感病俱作，治有先後，發表攻裏，本自不同。後人³以意消息，謂如

下利不止，身體疼痛，當先救裏，與四逆湯，清便自調，與桂枝湯。然治有先後之說。太陽先受病，在表，先解表。少陰先受病，在裏，先救裏。先表者，裏不可緩也。先裏者，表亦不可緩也。此通權變⁴之論也。

상한양감(傷寒兩感)은, 절반은 음분(陰分)에 속하고 절반은 양분(陽分)에 속하여 장부(臟腑)가 모두 병을 받은 것이다. 상한 1일에 태양(太陽)·소음(少陰)이 병을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가슴이 갑갑하고 그득하며(煩滿) 갈증이 생긴다. 2일에 양명(陽明)·태음(太陰)이 병을 받으면 배가 그득하고 몸에서 열이 나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섬어(譫語)를 하게 된다. 3일에 소양(少陽)·厥음(厥陰)이 모두 병이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고환이 오그라들며 손발이 차갑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는 6-7일만에 죽는다. 장중경에게도 치법이 없었다. 다만 "양감병으로 음분과 양분이 모두 병들었을 때 치법에 선후가 있으니 발표(發表)와 공리(攻裏)가 본디 다르기 때문이다."【상한례】라고 하였다. 뒷사람이 이러한 뜻을 응용하여 "만약 설사가 멈추지 않고 몸이 아플 때는 먼저 속을 치료해야 하니 사역탕(四逆湯)을 쓰고, 설사가 조절된 다음에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091】고 하였다. 이렇게 치법에 선후가 있다는 설이 생겼다. 태양이 먼저 병이 들어 병이 겹에 있을 때는 먼저 해표(解表)시킨다. 소음이 먼저 병이 들어 병이 속에 있을 때는 먼저 속을 치료한다. 먼저 겹을 치료하더라도 속을 치료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하며, 먼저 속을 치료하더라도 겹을 치료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원칙에 능숙하여 응용할 줄 아는 설명이다.

1. 括蕤湯：㉔ 萎蕤湯 ※《상한유서》↩

2. 但凡：㉔ 但曰 ※《상한유서》↩

3. 後人：《상한유서》에는 쌍종(雙鍾)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지선(李知先)을 가리킨다. ↩

4. 通權變 : 達權識變 ※《상한유서》↩



不得眠 부득면

陽盛陰虛，則晝夜不得眠。蓋夜以陰爲主，陰氣盛，則目閑¹而臥安。若陰爲陽所勝，故終夜煩擾而不得眠也。所謂陰虛則夜爭者是也。汗出鼻乾，不得臥，則邪在表也。若胃有燥屎，與大熱錯語，反²大汗，胃中汁乾而不得臥，則爲邪在裏也。胃不和則臥不得安，故宜散熱和胃。

양(陽)이 왕성하고 음(陰)이 허약하면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밤은 음(陰)이 주관하므로 음기(陰氣)가 왕성하면 눈을 감고 편안히 잠이 든다. 만약 음이 양의 세력에 밀리면 밤이 끝나도록 마음이 갑갑하고 번거로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음이 허약하면 밤에 또렷하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땀이 나고 코가 마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는 경우이다. 만약 위(胃)에 조시(燥屎)가 있어 열이 심하고 두서 없이 말하는〔錯語〕 것과, 크게 한법을 쓰고 나서 위 속이 건조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기(邪氣)가 속에 있는 경우이다. 위(胃)가 조화롭지 못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므로 열을 흠어 위기(胃氣)를 조화롭게 한다.

若汗吐下後，虛煩不得眠，又從梔子豉湯以湧之³。至于少陰病，熱煩于內而不得眠，又宜扶陰散熱。若瘥後不得眠者，則熱氣與諸陽相併，陰氣未復也。有汗下太過，陽氣暴虛而不得眠者，若無熱證，又宜湯附湯⁴以退陰復陽也。此又不可不知。

만약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또한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사용한다. 소음병의 경우에 속에서 열이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또한 음(陰)을 도와 열을 흠는다. 만약 병이 나은 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열기(熱氣)가 양기(陽氣)와 서로 다투어 음기(陰氣)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경우이다. 한법이나 하법을 지나치게 사용

하여 양기(陽氣)가 갑자기 허해져 잠을 이루지 못해도 만약 열증(熱證)이 없다면 또한 강부탕(薑附湯)으로 음기를 물러가게 하여 양기를 회복시킨다. 이 역시 반드시 알아야 한다.

太陽病二三日，不能臥，但欲起，心下結，脈微弱者，此本有寒，今反下之，若利止，必結胸，未止，三四日復下，必協熱而利。結胸，理中丸。協熱而利，白頭翁湯。

태양병 2 - 3일째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깨어 있으려고만 하고, 명치에 마치며 맥이 미약(微弱)한 것은 평소 한음(寒飲)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도리어 하법을 사용하여, 만약 설사가 그치면 반드시 결흉(結胸)이 생기고, 그치지 않아 3 - 4일째 다시 하법을 쓰면 반드시 열을 동반하고 설사(協熱利)를 한다. 결흉에는 이중환(理中丸)을 쓰고, 열을 동반한 설사에는 백두옹탕(白頭翁湯)을 쓴다.

少陰，利下，欬而嘔渴，心煩不得眠者，猪苓湯，此停水也。若二三日，心煩不得眠，黃連阿膠湯。

소음병에 설사를 하고 나서 기침과 구토와 갈증이 있고 심번(心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저령탕(猪苓湯)으로 치료한다.【319】이것은 수기(水氣)가 정체된 것이다. 만약 소음병을 얻은지 2 - 3일이 지난 뒤에 속이 갑갑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을 쓴다.【303】

病人小便不利，大便乍難乍易，時有微熱，喘冒不能臥者，有燥屎也，大承氣湯。

환자가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다 잘 나오다 하며 때때로 미열이 나고 숨이 차고 무언가로 덮은 듯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이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써야 한다.【242】

下之後復發汗，晝則煩燥不得眠，夜則安靜，不嘔不渴，無表裏證⁵，脈沈微，身無大熱者，乾姜附子湯。

하법을 쓴 뒤에 다시 한법을 사용하여, 낮에는 번조(煩躁)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야 안정되며, 구토하지도 않고 갈증도 없으며, 표증도 없고 맥이 침미(沈微)하며, 몸에 심한 열이 없을 때는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을 사용한다.【061】

吐下汗後，心中懊憹，虛煩不得眠，梔子豉湯。陽勝陰，則狂言亂夢，心煩乏氣者，酸棗湯。陰勝陽，則驚悸昏沈，大熱乾嘔，呻吟錯語，不得眠，犀角解毒湯。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 가슴 속이 괴롭고(懊憹) 허번(虛煩)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쓴다. 양기(陽氣)가 음기(陰氣)를 억누르면 미친 듯이 말하고 정신 없는 꿈을 꾸며 심번(心煩)이 있고 기운이 없으니, 산조인탕(酸棗湯)을 쓴다. 음기(陰氣)가 양기(陽氣)를 억누르면 두렵고 잘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맑지 못하며 열이 심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신음하고 두서없이 말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니, 서각해독탕(犀角解毒湯)을 쓴다.

中風，汗出，脈濡而弱，厥而且寒，燥不得眠，小建中湯。煩燥，竹葉石膏湯。

중풍(中風)에 땀이 나고 맥이 유(濡)하고 약(弱)하며 손발이 차갑고 오한이 들며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번조에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瘥後飲酒，煩惡⁶，乾嘔，口燥，呻吟，錯語，不得眠，犀角解毒湯。

병이 나은 뒤에 술을 마시서 가슴이 갑갑하고 헛구역질을 하며 입이 마르고 신음을 하며 두서없이 말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서각해독탕(犀角解毒湯)을 쓴다.

1. 目閉：目閉 ※《상한유서》↩

2. 反 : 及 ※《상한가비적본》↩

3. 湧之 : 用之 ※문맥상 ↩

4. 湯附湯 : 薑附湯 ※이존제각본 ↩

5. 無表裏證 : 無表證 ※《상한론》【061】↩

6. 煩惡 : 煩悶 ※《활인서》↩



發斑 발반

大熱則傷血，血熱不散，裏實表虛，熱氣乘虛出于皮膚而爲斑也，輕則爲疹子，甚則爲錦紋。或病本屬陽，誤投熱藥，或當汗不汗，當下不下，或汗下未解，皆能致此。大抵有兩證，一者溫毒，**卽春時發¹**，汗下不解，邪氣不散，故發斑也，一者熱病，卽冬時溫煖，乖戾之氣，遇春暄熱而發斑也。不可誤汗，若發其汗，重令開泄，更加斑爛也。然而斑之方萌，如蚊跡類焉。發斑多見于胸腹，蚊跡只在于手足。陽脈洪大，病人昏憤，先紅後赤者，斑也。脈不洪大，病人自靜，先紅後黃者，蚊跡也。其或大便自利，拂鬱氣短，燥屎不通，又**如果實壅²**者，雖盧扁復生，亦不能施其巧。凡汗下不解，煩悶，咳嗽嘔吐，足冷不溫，便是發斑之候。

열이 심하게 나면 혈(血)을 손상시킨다. 혈분(血分)의 열(熱)이 흩어지지 못했는데 속이 실하고 겉이 허하게 되면 열기(熱氣)가 허한 틈을 타 피부로 나와 반(斑)이 된다. 가벼우면 좁쌀 같이 돌아나고(疹子), 심하면 비단의 무늬처럼 된다. 병의 뿌리가 양(陽)에 있을 때 뜨거운 성질의 약을 잘못 투여하였거나, 한법을 써야 할 때 한법을 쓰지 않고 하법을 써야 할 때 하법을 쓰지 않았거나,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병이 풀리지 않을 때 모두 발반이 생긴다. 대개 2가지 증상이 있다. 하나는 온독발반(溫毒發斑)이다. 겨울에 한사(寒邪)에 감촉되어 봄에 온병(溫病)이 발생하였을 때 한법이나 하법을 써도 풀리지 않으면 사기(邪氣)가 흩어지지 않아서 발반이 생긴다. 다른 하나는 열병발반(熱病發斑)이다. 겨울이 따뜻하여 생긴 어그러진 기운(乖戾之氣)이 봄의 뜨거운 기운을 만나 발반이 생긴 경우이다. 잘못 한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한법을 사용하면 거름 땀구멍을 열고 기운을 나가게 하면 발반이 심해진다. 그런데, 반(斑)이 생기려고 할 때 모기 물린 자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발반(發斑)은 흉복(胸腹)에 많이 나타나고, 모기 물린 자국은 단지 손발에만 나타난다. 양맥이 흥대(洪大)하고 환자가 의식이 흐리며 처음에는 붉다가 나중에는 벌겋게 되는 경

우는 반(斑)이다. 맥이 홍대(洪大)하지 않고 환자가 안정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붉다가 나중에는 누렇게 되는 것은 모기 물린 자국이다. 더러 설사를 하거나, 불울(佛鬱)이 생기고 숨이 짧거나, 조시로 대변이 나오지 않거나, 또 과일이나 사마귀 모양으로 검은 반진이 생긴 경우는 비록 편작(扁鵲)이 다시 살아 온다고 하여도 그 의술을 배꿀 수 없다. 한법이나 하법으로 풀리지 않고 가슴이 갑갑하며 기침을 하고 구역질을 하며 발이 차가워 따뜻해지지 않은 것은 곧 발반의 증후이다.

溫毒發斑，黑膏主之。渴³而心悶，下利嘔吐，下部有瘡，或口瘡，黃連橘皮湯、葛根湯橘皮湯⁴。

온독발반(溫毒發斑)은 흑고(黑膏)로 치료한다.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며 음부(陰部)나 입에 창(瘡)이 생겼을 때는 황련굴피탕(黃連橘皮湯)、갈근굴피탕(葛根橘皮湯)을 쓴다.

陽毒發斑，狂顛妄言，面赤咽痛，身斑如錦，下利赤黃，升麻湯、麥奴丸，有下證，調胃承氣湯。

양독발반(陽毒發斑)에는 광증(狂證)이나 전증(顛證)이 나타나고 함부로 지껄이며 얼굴이 붉고 목구멍이 아프며 몸에 비단무늬 같은 반진이 생기고 붉거나 누런 설사를 한다. 승마탕(升麻湯)、맥노환(麥奴丸)을 쓴다. 하법을 써야할 증상이 있으면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쓴다.

時氣發斑，大青四物湯、豬膽雞子湯。

시기발반(時氣發斑)에는 대청사물탕(大靑四物湯)、저담계자탕(猪膽雞子湯)을 쓴다.

發斑通用升麻湯⁵、犀角地黃湯。熱多者，玄參升麻湯、黃連一物湯、青木香一物湯。

발반에는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을 두루 쓴다.
열이 많을 때는 현삼승마탕(玄參升麻湯)·황련일물탕(黃連一物湯)·청목향
일물탕(靑木香一物湯)을 쓴다.

凡赤斑五死一生，黑斑不救。

붉은색 발반이 생기면 5명은 죽고 1명만 살고, 검은색 발반이 생기면 구할 수
없다.

1. 卽春時發：☞冬時觸寒，至春時發 ※《상한가비적본》↩

2. 如果實齧：☞黑如果實齧 ※《통속상한론》↩

3. 渴：☞咳 ※《상한유서》↩

4. 葛根湯橘皮湯：☞葛根橘皮湯 ※《상한유서》↩

5. 升麻湯：☞升麻葛根湯 ※《상한유서》↩

動氣 동기

動氣者，臟氣不調，築築跳動，隨臟所主而形見於臍之左右上下也。《難經》各臟載之。又有眞氣內虛，水結不散，氣與相搏，卽發奔豚。以其從氣衝突如豚之奔，皆不宜汗下。然而獨不言脾當臍之有動氣者，脾爲中州，以行津液，妄施汗下，必先動脾，是以不言而喻也。左右上下，不宜汗下，何況中州之氣，其敢輕動之乎？傷寒所以看外證爲當者，蓋不在脈之可見，必待問之可得。發汗下，其可輕舉哉！

동기(動氣)는 장(臟)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여 공이질 하듯 뛰는 것으로, 장(臟)이 주관하는 곳에 따라 배꼽 상하좌우에 나타난다. 《난경(難經)》에서 각 장(臟)에 따라 실어 놓았다. 또 진기(眞氣)가 안에서 허한데 수(水)가 맺혀 흠어지지 않으면 기(氣)와 서로 다투어 곧 분돈(奔豚)이 나타난다. 분돈으로 돼지가 날뛰듯 기운이 치받을 때는 모두 한법이나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그런데 비(脾)에 대해 배꼽에서 동기가 있음을 말하지 않은 것은, 비가 중양을 관장하여 진액(津液)을 순행시키므로 한법이나 하법을 함부로 쓰면 반드시 먼저 비(脾)를 동요시키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동기가 배꼽의 상하좌우에 있을 때 한법이나 하법을 사용할 수 없으니, 하물며 중양을 관장하는 기운에 있어서 이를 함부로 가벼이 동요시킬 수 있겠는가. 상한에서 외증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맥으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증상을 물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법이나 하법을 가벼이 쓸 수 있겠는가.

動氣通用理中湯去白朮，加桂。白朮燥腎閉氣，故去之，桂泄奔豚，加之。一法，用柴胡桂枝湯亦良。二方當看有熱無熱。

동기(動氣)에는 보통 이중탕(理中湯)에서 백출(白朮)을 빼고 계지(桂枝)를 더하여 사용한다. 백출(白朮)은 신(腎)을 말리고 기운을 막으므로 빼고, 계지는 분돈의 기운을 배출시키므로 더한다. 어떤 곳에는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도 좋다고 하였다. 두 처방은 반드시 열(熱)의 유무를 보아야 한다.

動氣在左，發汗則頭眩，汗下不止，筋惕肉瞤，爲逆，先宜防風白朮牡蠣湯，汗必¹，與建中湯。動氣在右，發汗則衄而渴，心若煩，飲則吐，先宜五苓散，後與竹葉石膏湯。

동기(動氣)가 배꼽 왼쪽에 있을 때 한법을 사용하면 어지럽고 땀이 멈추지 않으며 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긴다. 이것은 역증(逆證)이다. 먼저 방풍백출모려탕(防風白朮牡蠣湯)을 써야 하고, 땀이 그치면 건중탕(建中湯)을 쓴다. 동기(動氣)가 배꼽 오른쪽에 있을 때 한법을 사용하면 코피와 갈증이 나고 가슴이 매우 답답하며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한다. 먼저 오령산(五苓散)을 써야하고, 다음으로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쓴다.

動氣在上，發汗則氣上衝心，桃根湯。動氣在下，發汗則心中大煩，骨節疼痛，目暈，食入即吐，先宜大橘皮湯，後與小建中湯。

동기(動氣)가 배꼽 위에 있을 때 한법을 사용하면 기운이 가슴으로 치솟게 된다. 도근탕(桃根湯)을 쓴다. 동기(動氣)가 배꼽 아래에 있을 때 한법을 사용하면 가슴속이 답답하며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눈앞이 어지러우며 음식을 먹으면 토한다. 먼저 대귤피탕(大橘皮湯)을 쓰고, 다음으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動氣在左，不可下，下之則腹滿拘急，身雖熱，反欲拳，先宜甘草乾姜湯，後與小建中湯。動氣在左²，下之則津液竭，咽乾鼻燥，頭眩心悸，宜竹葉石膏湯。

동기(動氣)가 배꼽 왼쪽에 있으면 하법을 쓸 수 없다. 하법을 사용하면 배 속이 당기고 몸에 열이 있어도 몸을 웅크리려고 한다. 먼저 감초건강탕(甘草乾姜湯)을 쓰고, 다음으로 소건중탕(小建中湯)을 쓴다. 동기(動氣)가 배꼽 오른쪽에 있을 때 하법을 사용하면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 목구멍과 코가 마르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을 써야한다.

動氣在下，下之則腹滿清穀，心痞頭眩，宜甘草瀉心湯。

동기(動氣)가 배꼽 아래에 있을 때 하법을 사용하면 배가 그득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며 심하(心下)가 막히고 머리가 어지럽다. 감초사심탕(甘草瀉心湯)을 써야 한다.

1. 汗必 : 汗止 ※문맥상 ↩

2. 左 : 右 ※문맥상 ↩



蛔厥、狐惑 회궐과 호혹

蛔厥屬厥陰，病人素有寒，妄發其汗，或汗後身有熱，又復汗之，以致胃中虛冷，飢不欲食，食即吐蛔。而乍靜乍煩者，蛔或上而或下也。虫聞食臭必出，所以食即吐虫也。蛔厥，先用理中丸，次用烏梅丸。若誤下之，利不止，用四逆湯。

회궐(蛔厥)은 궐음(厥陰)에 속한다. 평소 한(寒)이 있는 환자에게 함부로 땀을 내었거나, 땀을 낸 뒤 몸에 열이 나서 다시 한법을 사용하여, 위(胃) 속이 허랭(虛冷)하게 되면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회충을 토해 낸다. 잠시 안정되었다가 또 잠시 가슴이 갑갑했다가 하는 것은 회충이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회충이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반드시 나오므로 음식을 먹으면 회충을 토하게 된다. 회궐(蛔厥)에는 먼저 이중환(理中丸)을 쓰고 다음으로 오매환(烏梅丸)을 사용한다. 만약 잘못 하법을 사용하여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

狐惑、**失蠱**¹，皆虫蟲證也。蓋腹中有熱，入食無多，胃空虛，故三虫求食而食人之五臟也。其候四肢沈重，惡聞食氣，默默欲眠，目不能閉，**嚙**²齒晦，面眉間赤白黑色變易無常。虫食**下部**³爲狐，下唇有瘡，其咽乾。虫食其**臟**⁴爲惑，上唇有瘡，其聲啞。治蠱通用桃仁湯、黃連犀角湯、**雄黃銳散**⁵。無陽者，用金液丹。厥陰爲病，消渴，氣上衝心，飢不欲食，食即吐蚘，曰胃寒。復有消渴之證，蓋**染其**⁶上焦，而**中焦**⁷則但寒無熱矣。又有大便難一證，並用理中湯加大黃，入蜜少許微利之。

호혹(狐惑)、온닉(溫蠱)은 모두 벌레로 생겨난 증상이다. 배 속에 열이 있는데 먹는 양이 많지 않으면 위(胃) 속이 비기 때문에 삼충(三虫)이 음식을 갈구하며 사람의 오장(五臟)을 먹게 된다. 그 증상은, 팔다리가 무겁고 음식 냄새를 싫어하며 조용히 자려고만 하나 눈을 감지 못하고, 혀에 흰 백태가 끼고 이는 어둡게 변색되며 얼굴과 미간 사이가 평소와 다르게 붉은색이나 흰색이나 검

은색으로 변한다. 벌레가 음부(陰部)를 좀먹는 것을 호(狐)라고 하는데, 아랫입술에 창(瘡)이 생기고 목구멍이 마른다. 벌레가 장(臟)을 좀먹는 것을 흑(惑)이라고 하는데, 윗입술에 창(瘡)이 생기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벌레가 좀먹는 증상을 치료할 때는 보통 도인탕(桃仁湯)、황련서각탕(黃連犀角湯)、웅황예산(雄黃銳散)을 사용한다. 양기(陽氣)가 없을 때는 금액단(金液丹)을 쓴다. 귤음(厥陰)에 병이 들면 소갈(消渴)이 생기고 기운이 위로 가슴을 치받으며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회충을 토하니, 위한(胃寒)이라고 한다. 여기에 소갈(消渴)의 증상이 더 있는 것은 대개 열(熱)이 상초에 있고 중초에는 한(寒)만 있고 열이 없기 때문이다. 또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중탕(理中湯)에 대황(大黃)을 더하고 꿀을 조금 넣은 것으로 약간 설사시켜준다.

1. 失蠶 : 溫蠶 ※《상한유서》↩
2. 嚙 : 舌白 ※《상한유서》↩
3. 下部 : 陰 ※《금궐요략》↩
4. 臟 : 喉 ※《금궐요략》↩
5. 雄黃銳散 : 雄黃銳散 ※《상한유서》↩
6. 染其 : 熱在 ※《상한가비적본》↩
7. 中焦 : 中下焦 ※《상한가비적본》↩

百合病 백합병

百合者, 百脈一宗, 舉身皆受病¹, 無復所謂經絡傳次也。大病虛勞之後², 臟腑不平, 變而成此。其狀似寒無寒, 似熱無熱, 欲食不食, 欲臥不臥, 欲行不行, 口苦便赤, 藥入即吐利也。其脈微數, 每尿則頭痛, 六十日愈, 頭痛者³, 但淅淅然惡寒者, 四十日愈, 若尿則快然, 但頭眩者, 二十日愈。百合知母湯、百合地黃湯、滑石代赭湯、雞子湯、百合洗方, 可選用之。

백합(百合)은 모든 맥(百脈)이 한 다발로 모두 병드는 것으로 경락에 차례로 전경되었다고 할만한 것이 없다. 허로(虛勞)나 큰 병을 앓고난 후에 장부의 기운이 고르지 않아서 변하여 백합병이 된다. 그 증상은 오한이 있는 듯하나 없고, 발열이 있는 듯하나 없으며, 음식을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고, 잠을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움직이려 하여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쓰고 소변이 붉으며, 약을 먹으면 토하거나 설사한다. 그 맥이 미(微)、삭(數)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경우는 60일만에 낫는다. 머리가 아프지 않고 오싹하게 오한만 드는 경우는 40일만에 낫는다. 만약 소변을 볼 때는 문제가 없고, 머리만 어지러운 경우는 20일만에 낫는다. 백합지모탕(百合知母湯)、백합지황탕(百合地黃湯)、활석대자탕(滑石代赭湯)、계자탕(雞子湯)、백합세방(百合洗方)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1. 舉身皆受病 : ㉔ 舉皆受病 ※《상한유서》↩

2. 大病虛勞之後 : ㉔ 虛勞、大病之後 ※《상한유서》↩

3. 頭痛者 : ㉔ 不頭痛者 ※《상한유서》↩



不仁 불인

不仁，謂不柔和也。經曰，諸虛承寒則爲鬱冒不仁¹。蓋其血氣虛少，不能週流於身，是爲邪氣所伏，故肌體²頑麻，不知痛痒寒過³，厥如尸而鬱且冒也。設或脈浮而洪，身汗如油，喘而不休，水漿不下，形體不仁，又此爲命絕也。

불인(不仁)은 부드럽고 온화하지 않다는 말이다.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사기(邪氣)가 한(寒)을 틈타 침입하면 궤(厥)이 되고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이 생긴다."【평맥법】혈기(血氣)가 휴손(虧損)되어 온몸을 유주하지 못하면 사기(邪氣)가 잠복하게 되므로 팔다리와 몸의 감각이 둔감해지고 아픔·가려움·차가움·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시체처럼 궤(厥)이 되고 울모가 된다. 만약 맥이 부(浮)하면서 홍(洪)하고 몸에서 기름같은 땀이 흐르며 숨이 차는 증상이 그치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하며 몸에 불인(不仁)이 있는 경우는 또 한 생명이 끊어진다.

經曰，少陰脈不至，腎氣微、精血少，寒氣上奔，血結心下，陽氣退下，熱歸陰肱⁴，與陰相動，人之身不仁，此爲尸厥。以鬱冒不仁爲可⁵，刺之而得瘥者，實神醫之診也。甘草乾姜湯、桂枝芍藥湯加乾姜、桂枝麻黃各半湯，宜消息選用之。

경문(經文)에서 말하였다. "소음맥이 이르지 않으면 신기(腎氣)가 미약하고 정기(精血)가 적어지며, 한기(寒氣)가 위로 치받고 혈(血)이 심하(心下)에 맺히며 양기(陽氣)가 아래로 물러나고 열(熱)이 사타구니로 돌아가서 음(陰)과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몸에 불인(不仁)이 생기니, 이것이 시궤(尸厥)이다."【평맥법】편작(扁鵲)이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 침을 놓아 모두 낫게 하였으니, 참으로 신의(神醫)의 솜씨이다⁶. 감초건강탕(甘草乾姜湯)·계지작약탕(桂枝芍藥湯)에 건강(乾姜)을 더한 것, 계지마황각반탕(桂枝麻黃各半湯)을 응용하여 사용한다.

1. 諸虛承寒則爲鬱冒不仁：☞諸邪乘寒則爲厥，鬱冒不仁 ※《상한유서》↩
2. 肌體：☞肢體 ※《상한유서》↩
3. 寒過：☞寒溫 ※《상한유서》↩
4. 陰肱：☞陰股 ※《상한유서》↩
5. 可：☞可治 ※《상한명리론》↩
6. 편작(扁鵲)과 곽(號)나라 태자의 일화를 가리킨다.↩



霍亂 곽란

霍亂者，上吐下利，揮霍而撩亂者是也。邪在上焦，吐而不利。邪在下焦，則利而不吐。邪在中焦，既吐且利。然胃氣爲邪氣所傷，陰陽乖隔，遂上吐而利¹也，乃謂霍亂。其餘但稱吐利者，有以異也。故以乾霍亂死者多，濕霍亂死者少，吐利則所傷之物得以泄出，胃中水穀盡也。²

곽란은 위로 토하며 아래로 설사하는 증상이 매우 빠르고(揮霍) 뒤엉켜 있는(撩亂) 것이다. 사기(邪氣)가 상초(上焦)에 있으면 구토만 하고 설사하지 않으며, 사기(邪氣)가 하초에 있으면 설사만 하고 구토하지 않는다. 사기(邪氣)가 중초에 있으면 구토하고 설사한다. 위기(胃氣)가 사기(邪氣)에 손상되면 음양의 기운이 이어지지 못하여 결국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게 되니, 이것을 곽란(霍亂)이라고 한다. 이 외에 단지 토리(吐利)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곽란과 서로 다르다. 건곽란으로 죽는 경우가 많고, 습곽란으로 죽는 경우가 적은 것은, 토하고 설사하면 상하게 한 음식물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니 위(胃)속의 수곡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

其濕霍亂死者少，乾霍亂死者多。若上不得吐，下不得利，所傷之物不得出泄，壅閉正氣，陰陽懸隔³，喘脹而死。《素問》，食飲有節，起居有常，安得有霍亂也？⁴

습곽란으로 죽는 경우는 적고 건곽란으로 죽는 경우는 많다. 만약 위로 토하지 않고 아래로 설사하지 않으면 상하게 한 음식물이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어 정기(正氣)를 가로막아 음과 양이 떨어지게 되어서 숨이 차고 배가 불러 죽게 된다. 《소문(素問)》〈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을 적당히 먹고 정해진 곳에서 기거한다면" 어찌 곽란에 걸리겠는가.

霍亂，頭痛發熱，身疼痛，熱多欲飲水，五苓散，寒多不飲水者，理中湯。

곽란(霍亂)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쭈시고 아픈데, 열(熱)이 많아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오령산(五苓散)을 쓰고, 한(寒)이 많아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이중탕(理中湯)을 쓴다.

吐利，汗出，脈微，惡寒，手足厥冷，拘急，四逆湯。腹滿而痛，四肢拘急，轉筋下利，理中湯加附子、官桂。加減詳見本方。

구토와 설사를 하고 땀이 나며 맥이 미(微)하고 오한이 들며 손발이 차갑고 팔다리가 뒤틀릴 때는 사역탕(四逆湯)을 쓴다.【388】 배가 그득하고 아프며 팔다리가 뒤틀리며 근육에 쥐가 나고 설사를 할 때는 이중탕(理中湯)에 부자(附子)、관계(官桂)를 더하여 쓴다. 가감법은 해당 처방에 자세히 나온다.

吐利止，身痛不休，桂枝湯。既吐且利，小便復利而大汗出，下利清穀，內寒外熱，脈微欲絕者，四逆湯。吐利止，但汗出而厥，四肢拘急不解，脈微欲絕者，通脈四逆加豬膽汁。

구토와 설사가 그친 뒤에 몸의 통증이 멈추지 않을 때는 계지탕(桂枝湯)을 쓴다. 이미 구토와 설사를 하고 나서 소변이 다시 잘 나오고 크게 땀이 나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는 것은 안(內)이 차고 밖(外)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때 맥이 끊어질 듯 가늘면 사역탕(四逆湯)으로 치료한다.【389】 구토와 설사가 멈춘 뒤에 땀이 나며 손발이 차갑고 팔다리가 뒤틀려 풀리지 않으며 맥이 끊어질 듯할 때는 통맥사역가저담즙탕(通脈四逆加豬膽汁湯)을 쓴다.【390】

1. 利：ㄹ下利 ※《상한명리론》↩

2. 원서에는 이후에 불울(佛鬱)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으나 《상한가비적본》을 근거로 <불울(佛鬱)> 조문 뒤로 옮겨 번역하였다. ↩

3. 陰陽懸隔：關隔陰陽 ※《상한명리론》↩

4. 원서에는 이하 내용들이 <다면(多眠)> 조문에 있으나, 곽란(霍亂)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곳으로 옮겨 번역하였다. ↗



瘥後昏沈 병이 나은 뒤의 정신이 흐릿한 경우

傷寒瘥後，半月以來十餘日¹，終不惺惺，錯語少神，或寒熱似瘥，或潮熱頰赤²，醫以風溫³治之，非也。是由發汗不透⁴，寒熱⁵在心包絡間也。

상한이 나은 후 15일이 지난 뒤에도 끝내 정신이 맑지 않고 두서 없이 말하며 정신이 흐리고 더러 학질처럼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거나 조열(潮熱)이 나고 뺨이 붉은 경우가 있다. 의원이 풍온(風溫)으로 여기고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한법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소되지 않은 독(毒)이 심포락(在心包絡) 사이에 있는 것이다.

瘥後昏沈不醒，知母麻黃湯取微汗。胃脘有熱⁶，虛煩而嘔，竹葉石膏湯加生姜。嘔吐⁷不已，膈上有寒，理中丸。

병이 나은 뒤에 정신이 흐릿할 때는 지모마황탕(知母麻黃湯)으로 조금 땀을 낸다. 위완(胃脘)에 해소되지 않은 열(熱)이 있어 허번(虛煩)과 구토가 있을 때는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에 생강(生姜)을 더하여 쓴다. 끊임 없이 자주 가래를 뱉는 것은 흉격 위에 한(寒)이 있는 경우이니 이중환(理中丸)을 쓴다.

瘥後從腰以下有水，牡蠣澤瀉散。

병이 나은 뒤에 허리 아래에 수기(水氣)가 있을 때는 모려택사산(牡蠣澤瀉散)을 쓴다.

瘥後日暮微煩，以其病方瘥，強與穀食不消也，損穀則愈矣。

병이 나은 뒤에 저물녘 조금 가슴이 갑갑할 때는 그 병이 곧 나을 것이다.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면 소화되지 않으니 먹는 양을 줄이면 낫는다.

1. 十餘日：문맥상 연문(衍文)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

2. 頰赤 : 煩赤 ※《상한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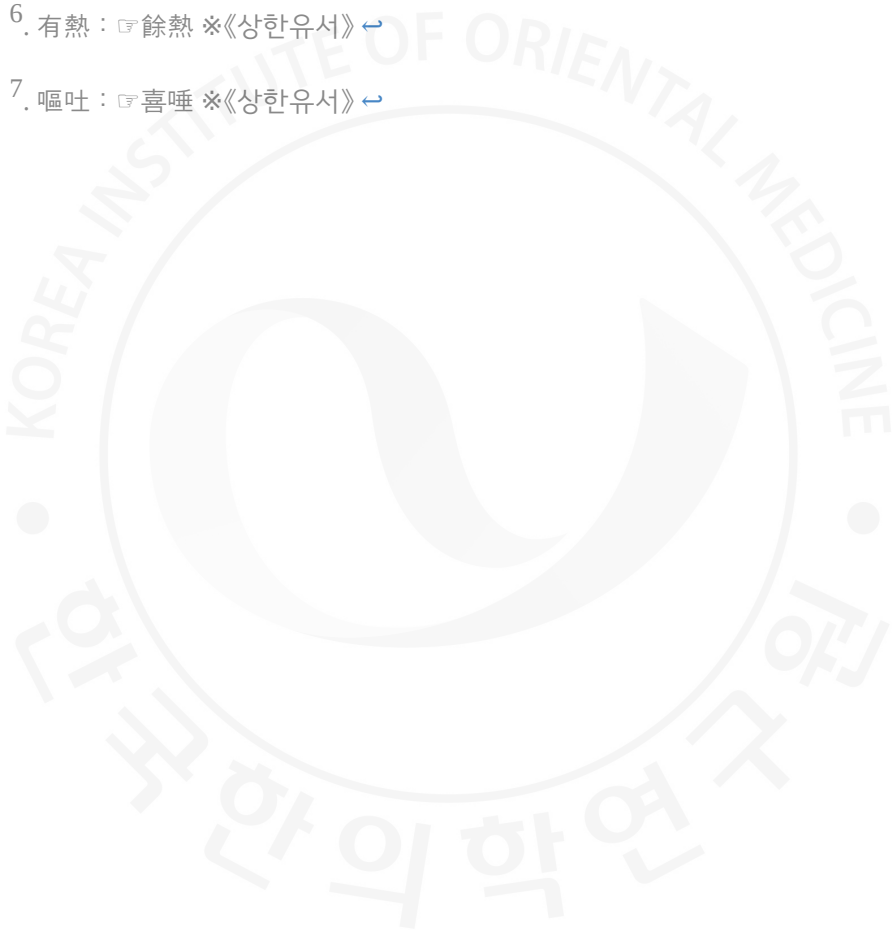
3. 風溫 : 風魅 ※《상한유서》↩

4. 不透 : 不盡 ※《상한유서》↩

5. 寒熱 : 餘毒 ※《상한유서》↩

6. 有熱 : 餘熱 ※《상한유서》↩

7. 嘔吐 : 喜唾 ※《상한유서》↩



상한과 유사한 4가지 병증. 《상한지장도(傷寒指掌圖)》에 나온다. 傷寒四證類玄。

出指掌圖

傷寒四證類玄¹。出指掌圖 상한과 유사한 4가지 병증. 《상한지장도(傷寒指掌圖)》에 나온다.

¹. 傷寒四證類玄 : 四證類傷寒 ※《상한지장도》↩



痰證 담증

外證增寒壯熱，惡風自汗，胸滿，氣上衝咽不得息，但身¹不疼，項不强。若涎多者，亦隱隱頭疼。脈有寸浮者，亦有寸伏者，以意參之。柴胡半夏湯、金沸草散、大半夏湯。氣上衝者，瓜蒂散吐之。

겉으로 오한, 발열, 오풍(惡風), 자한(自汗)이 있으며, 가슴이 그득하고 기운이 위로 목구멍까지 솟구쳐 숨을 쉬기 어렵다. 그러나 머리가 아프지 않고 뒷덜미도 뻣뻣하지 않다. 만약 담연(痰涎)이 많으면 또한 은근히 머리가 아프다. 촌구맥이 부(浮)한 경우가 있고 복(伏)한 경우도 있으니 따져보아 참고하라. 시호반하탕(柴胡半夏湯)、금불초산(金沸草散)、대반하탕(大半夏湯)을 쓴다. 기운이 위로 치솟을 때는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킨다.

¹. 身：頭 ※《상한지장도》↔

傷食 食上

亦頭疼，惡寒身熱，但左手脈平和，右手脈緊盛，知爲食也。大橘皮湯、二陳湯。心腹滿痛，大柴胡湯下之。胸滿嘔吐，瓜蒂散吐之。

또한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며 몸에서 열이 나지만 왼쪽 손의 맥은 보통 때와 같으나 오른쪽 손에서 긴맥(緊脈)이 왕성하게 나타나면 식상(食傷)임을 알 수 있다. 대귤피탕(大橘皮湯)、이진탕(二陳湯)을 쓴다. 가슴과 배가 그득하고 아플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공하시킨다. 가슴이 그득하고 구역질을 할 때는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킨다.

虛煩 허번

諸虛煩熱與傷寒相似，但不惡寒，頭不疼，身不痛爲異耳。表既虛，不可汗，裏不實，不可下。叔和云，虛煩有熱，不可攻。

모든 허번(虛煩)의 열(熱)은 상한과 유사하지만, 오한이 없고 머리가 아프지 않으며 몸에 통증이 없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겉이 이미 허하므로 한법을 써서는 안되며, 속이 실하지 않으므로 하법을 써서는 안된다. 왕숙화(王叔和)가 허번(虛煩)의 열은 공하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脚氣 각기

傷寒傳足不傳手，所以寒濕之氣¹發于足，則類傷寒。其證頭疼身熱，肢節痛，大便秘，或嘔，但初病時起于脚膝，屈弱不能移動爲異耳。感於寒，所患必冷，越婢、小續命湯入生薑汁最妙。感於暑，所患是熱，小續命去附子，減桂一半。脚腫，木瓜散、檳榔散。大便秘，脾約丸。

상한은 족경(足經)으로 전해지고 수경(手經)으로는 전해지지 않으므로, 한습(寒濕)의 기운이 다리를 훈증하여 병이 생기거나 상한(傷寒)과 유사하다. 그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며 팔다리 관절이 아프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더러 구역질을 한다. 그러나 처음 병이 다리와 무릎에서 나타나 굽히는 힘이 약해 보행하지 못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한사(寒邪)에 감촉되면 분명 시리게 되므로 월비탕(越婢湯)을 쓰거나 소속명탕(小續命湯)에 생강즙을 넣어 쓰면 가장 효과가 좋다. 서사(暑邪)에 감촉되면 열이 나게 되므로 소속명탕(小續命湯)에서 부자(附子)를 빼고 계지(桂枝)를 절반으로² 줄여 쓴다. 다리가 부을 때는 모과산(木瓜散)·빈랑산(檳榔散)을 쓴다. 대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비약환(脾約丸)을 쓴다.

1. 發 : 𩇛 蒸 ※《상한지장도》↩

2. 계지(桂枝)를 절반으로 : 《상한지장도》소속명탕에 계지(桂枝)가 반량(半兩)으로 되어 있다. ↩

熱入血室 열입혈실

婦人中風，發熱惡寒，經水適來，得之七八日，熱除，脈遲，身涼，胸脇滿如結胸狀，譫語者，此爲熱入血室，當刺期門，隨其實而瀉之。

부인(婦人)이 중풍(中風)으로 발열과 오한이 생기고 마침 월경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된 지 7-8일째에 열이 내리고 맥이 지(遲)하며 몸이 차가운데, 결흉(結胸)과 같이 가슴과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헛소리(譫語)를 하는 경우는 열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것이다. 기문(期門)에 자침하여 그 실사(實邪)를 사(瀉)한다.

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日明了，暮則譫語如見鬼狀，此爲熱入血室，無犯胃氣及上中二焦，必自愈。

부인(婦人)이 상한(傷寒)으로 열이 날 때 마침 월경이 시작되고, 낮에는 정신이 맑다가 저녁이 되면 귀신이라도 본 듯 헛소리(譫語)를 하는 것은 열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경우이다. 위기(胃氣)와 상초(上焦)、중초(中焦)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분명 절로 낫는다.

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經水適斷，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如瘕狀，小柴胡湯。

부인(婦人)이 중풍(中風) 7-8일째에 계속 오한과 발열이 날 때 마침 월경이 끝나는 것은 열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경우이다. 그 혈(血)이 분명 맺혀서 학질과 같이 된 것이니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陽明，下血譫語，此爲熱入血室。但頭汗出者，刺期門，隨其實而瀉之，澱然汗出而愈。

양명병에 하혈(下血)과 섬어(讖語)가 있는 것은 열(熱)이 혈실(血室)로 침입한 경우이다. 머리에서만 땀이 나면 기문(期門)에 자침하고 실(實)한 곳을 따라 사(寫)해주면 축축하게 땀이 나면서 낫는다.

婦人熱入血室有二。經水適來二條，不言藥者，蓋以經血方來，熱氣乘虛而入，經血止，則熱亦出矣，故不可用汗下藥犯其胃氣及上中焦。如其胸滿讖語，此內實也，刺期門以瀉之。若經水適斷，續得寒熱，其血必結，故用小柴胡湯。若陽明熱入血室，此男子失血之證，但當刺以瀉熱也。

부인의 열입혈실증은 2가지가 있다. 월경이 막 시작될 때(經水適來)와 관련된 2가지 조문에서 치료약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개 월경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열기(熱氣)가 허한 틈으로 들어왔다가 월경이 그치면 열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법이나 하법의 약을 사용하여 상초(上焦)·중초(中焦)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가슴이 그득하고 헛소리(讖語)를 하는 경우는 안이 실(實)한 것이므로 기문(期門)에 자침하여 사해준다. 월경이 끝나는 경우에 계속 오한과 발열이 있는 것은 월경혈이 분명 맺힌 경우이므로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쓴다. 양명병의 열입혈실은 남자가 피를 흘린 증상이니 다만 자침하여 열을 사해주어야 한다.

해제

개요

《상한명리속론(傷寒明理續論)》은 도화(陶華)가 15세기에 저술한 상한(傷寒)에 대한 전문서이다.

저자

저자 도화(陶華, 1369-1463)의 명(明)나라 의학자로 자는 상문(尙文), 호는 절암(節庵) 혹은 절암도인(節庵道人)이며 여항(餘杭) 지역 사람이다. 어려서 유학(儒學)을 공부하였고 의학에 능통하여 영락(永樂) 연간에 훈과(訓科, 지방 정부의 의학 관원)에 발탁되었으며 선덕(宣德) 연간에 사임하였다. 환자에게 약을 복용시켜 단번에 낫게 할 만큼 신호하다고 하여 "陶一貼"이라고 불리웠다고 한다. 《상한명리속론》과 함께 《상한쇄언(傷寒瑣言)》, 《상한가비적본(傷寒家秘的本)》, 《살거추법(殺車槌法)》, 《상한일제금(傷寒一提金)》, 《상한증맥약절강망(傷寒證脈藥截江綱)》을 저술하였다. 이 6가지 책은 합책되어 다시 《상한육서(傷寒六書)》로 간행되었다. 이 외에 《상한전생집(傷寒全生集)》을 남겼다.

구성

책의 내용은 전반부의 총론과 후반부의 각론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 총론에서는 〈상한삼음삼양맥증론 [傷寒三陰三陽脈證論]〉, 〈음양허실과 약의 한온(寒溫)에 대한 변별 [陰陽虛實用藥寒溫辯]〉, 〈육경용약격법 [六經用藥格法]〉 등 증상의 대강과 치법을 구분하는 대의를 설명하였고, 후반부 각론에서는 〈발열(發熱)〉, 〈두통(頭痛)〉, 〈항강(項強)〉 등 70여종의 병증에 대한 감별과 치법을 소개하였다.

의의

책의 이름에서 나타나듯, 저자는 성무기(成無己)의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을 읽고 난 후 이 책을 저술하기로 결심하였다. 서문에 따르면, 저자는 경신년 겨울 수개월 동안 다리가 아파 밖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때 성무기(成無己)의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을 읽었다고 한다. 그는 《상한명리론》에서 설명한 병증이 50가지에 그친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보고 들은 것들을 모아 비슷한 부류끼리 나열하고 이를 정리하며 덜어내거나 덧붙여 [乃集所見所聞, 比類附例, 斟酌而損益之]"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가 '보고 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곽옹(郭雍)의 《상한보망론(傷寒補亡論)》, 방안상(龐安常)의 《상한총병론(傷寒總病論)》, 한지화(韓祗和)의 《상한미지론(傷寒微旨論)》, 인재(仁齋) 양사영(楊士瀛)의 《상한유서(傷寒類書)》, 왕식(王寔)의 《상한증치(傷寒證治)》 및 상기지(常器之), 양대수(楊大受) 등의 의학이론이다. 이 가운데 특히 양사영의 《상한유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성무기의 《상한명리론》이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 조문에 충실한 반면, 도화는 주광(朱肱), 양사양(楊士瀛) 등 후대 의가들이 소개한 증후과 변증까지 아우르려고 하였다.

판본

《상한명리속론(傷寒明理續論)》은 5권본(가정(嘉靖) 12년간본), 1권본(의통정맥전서(醫統正脈全書) 계열), 상하권본(만력(萬曆) 40년 이존제각본(李存濟刻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주로 유통된 것은 1권본으로, 《의통정맥전서》에 실려 있는 《상한육서(傷寒六書)》이다. 《의통정맥전서》는 보월루본(步月樓本), 청(淸) 도광(道光) 13년 문발당간본(文發堂刊本), 청말 강음주씨교간본(江陰朱氏校刊本), 돈화당간본(敦化堂刊本), 일본각본(日本刻本) 등이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真柳誠. 『傷寒六書』解題. 和刻漢籍醫書集成(第7輯). 東京・エンタプライズ.

1989.

- 陶節庵(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 裘沛然(主編).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2.
-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編纂委員會. 續修四庫全書總目提要(子部). 上海古籍出版社. 2015.



일러두기

판본

저본(底本)으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고금의통정맥전서(古今醫統正脈全書)》의 《상한육서(傷寒六書)》(청구번호 301-0058)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교본(對校本)으로는 청말 강음주씨 교간본(江陰朱氏校刊本) 《고금의통정맥전서》의 《상한육서》를 사용하였고, 이외 판본들은 입수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현대 표점본(陶節庵(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의 대교 결과를 참고하였다.

타교본(他校本)으로는 이 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상한유서(傷寒類書)》와 도화의 또 다른 저작인 《상한가비적본(傷寒家秘的本)》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외에 필요한 경우 《상한보망론(傷寒補亡論)》, 《상한총병론(傷寒總病論)》 등을 활용하였다.

번역

- 단락의 구분은 원문을 따랐다. 그러나 문맥이 어색하거나 타교(他校)를 통해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합치거나 나누었다.
-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의 인용문에는 가급적 구체적인 출처를 찾아 병기하였다. 《상한론(傷寒論)》 인용문에는 "【029】"와 같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문 번호를 표시하였고, 조문 번호가 없는 부분에는 "【상한례】", "【변맥법】" 등과 같이 편명을 약칭하여 기재하였다. 《금궤요략(金匱要略)》 인용문에는 "【금궤요략】"으로 표시하였다.
- '煩燥'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煩躁'로 보고 번역하였다.
- 소자(小字)는 "[鄭聲附]", "[小便難附]" 등과 같이 표시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출판사항

서 명 : 국역 상한명리속론 傷寒明理續論

원저자 : 도화 陶華

국역 및 해제 : 오준호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9년 12월 13일

Renewal : 2020년 12월 31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조사한 이는 오준호이고, 판본을 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한의 고문헌 지식 분석 시스템 개발(KSN1812200)



ISBN : 978-89-5970-442-2 [PDF]

